

보험동향 2012년 여름호

- | | |
|-----------|--|
| 총괄 |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
| 경제금융 동향 | 경제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경아 (연구원) |
| 국내보험시장 동향 |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이혜은 (연구원) |
|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 국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영 국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일 본 박정희 (선임연구위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 목차

I. 테마진단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망보장보험의 성장 전략 / 1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변화와 시사점 / 29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44

2. 국내경제 / 69

3. 금융경제 / 80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86

2. 생명보험 / 89

3. 손해보험 / 106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32

2. 영국 동향 / 139

3. 일본 동향 / 147

4. 중국 동향 / 154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65

VI. 통계표 / 178

I. 테마진단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망보장보험의 성장 전략

이경희 연구위원, 김세중 선임연구원

1. 검토배경

■ 2000년대 후반 이후 사망보장보험(life insurance) 시장¹⁾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 시장에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현상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입여력(affordability)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1990년대 초반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종신보험은 2000년대 초반 생명보험회사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급성장하였으나 이후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선진시장에서도 사망보장보험의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음.

- 미국의 가구당가입률(개인보험+단체보험)은 1984년에는 81%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70% 수준으로 낮아졌음.

- 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의 가입률은 동 기간 62%에서 44%로 더 크게 하락하였음.²⁾

1) 사망보장보험은 종신, 정기, CI,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종신 등으로 구성되나, 모든 종목에 대해 일관된 통계 자료를 구하기 어려움. 세부 항목별 수입보험료는 FY2010부터 집계되었으며, 계약건수와 가입금액에 대한 정보는 종신, CI 종목에 한정됨. 데이터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사망보장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신, CI 중심으로 분석함.

2) LIMRA(2011), MarketTrends LIMRA's Factbook-2011 Trends in the United States.

-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손익관리를 위한 상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사망보장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함.
 - 사망보장보험을 통한 위험률차익은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업비차익과 이자율차익과 달리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사망률과 생존율 추이는 상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망보장보험의 확대를 통해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종신연금) 인수여력도 제고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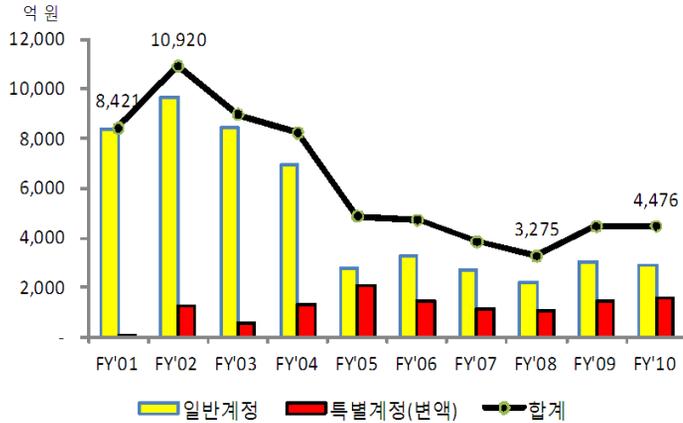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사망보장보험의 현황과 성장성 둔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성장률, 가입률 측면의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소비자의 가입여력 측면을 분석한 후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임.

2. 사망보장보험의 시장 현황

가. 성장 추이

- 사망보장보험의 성장성을 대리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 규모는 2000년대 초반에는 급격하게 팽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는 FY2001 8,421억 원에서 FY2002 1조 92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FY2003에는 8,974억 원으로 감소함.
 - 이후 초회보험료 규모는 지속적으로 위축되다가 FY2009 들어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미미함.
 - FY2010 초회보험료 규모는 최고 성장세를 보였던 FY2002 대비 41.0% 수준으로 축소됨.

〈그림 1〉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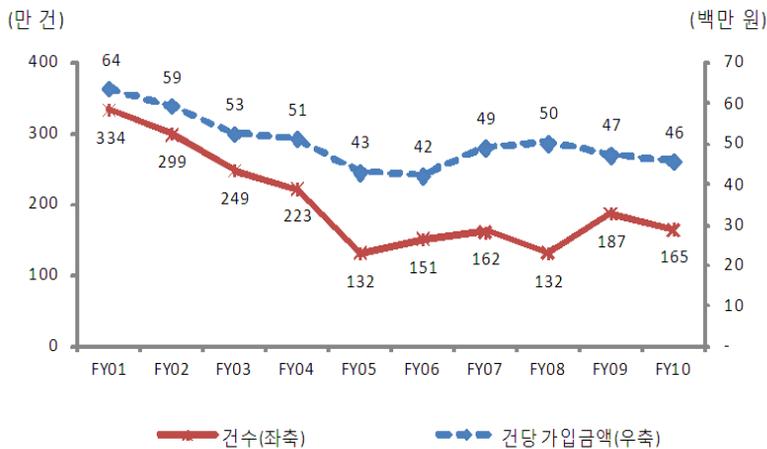
주: 특별계정은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호.

■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신계약 가입건수와 신계약 건당 가입금액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연간 신계약 건수는 FY2001 3백만 건을 상회하였으나 FY2010에는 절반 수준인 170만 건으로 감소함.

○ 신계약 건당 가입금액 역시 FY2001에는 6천 4백만 원에 달했으나 FY2010에는 4천 6백만 원 수준으로 낮아짐.

〈그림 2〉 종신보험의 신계약 건수 및 신계약 건당 가입금액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호.

- 종신보험 신계약의 건당 가입금액 하락 현상은 동 보험의 계약자가 초기에는 가입금액이 고액인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점차 가입금액이 낮은 중저소득 계층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나. 가구당 가입 현황

- 2011년 2월 보험연구원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망보장보험³⁾의 가구당 가입률은 49.5% 수준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은 미국(70%)보다는 낮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미국(44%)보다 높은 수준임.
 - 연령계층별로 보면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니즈와 가구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40~44세 가입률이 54.1%로 가장 높음.
 -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와 소득 측면에서 가입여력이 낮은 29세 이하 계층의 가입률은 35.7%로 가장 낮음.
 - 소득계층별로 보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와 3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간 가입률 격차가 15%p에 달함.
 - 고소득 가구의 가입률은 60% 수준인데 비해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은 35%에 불과하며, 중소득(3천만 원~5천만 원) 가구의 가입률은 51.9%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높은 중장년층과 가입여력이 존재하는 고소득층 가구의 가입률이 그렇지 못한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계층은 연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35~39세 계층으로 78.6%에 달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40~44세 계층의 가입률도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사망보장보험이 고소득층에서 가장 사망 시 유족의 생활보장,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상속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3) 사망보장보험 가입 가구는 종신, CI, 변액종신보험 중 1건 이상 가입한 가구를 의미함.

〈표 1〉 연령계층별 · 소득계층별 가구당 사망보장보험 가입률

(단위: 세, %)

연령	저소득층 (3천만 원 이하)	중소득층 (3천만~5천만 원)	고소득층 (5천만 원 초과)	소계
29세 이하	27.0	50.0	0.0	35.7
30-34세	53.3	50.0	57.1	52.2
35-39세	50.0	49.2	78.6	53.3
40-44세	37.5	56.0	66.7	54.1
45-49세	36.4	57.0	46.7	51.4
50-54세	27.5	51.9	62.3	50.3
55-59세	24.4	51.6	53.8	46.7
60세 이상	40.0	42.6	81.8	47.9
소계	35.0	51.9	60.0	49.5

주: 1) 사망보장보험 가입 기준은 종신, CI, 변액종신보험 중 1건 이상 가입한 경우를 의미함.

2) 연령계층은 세대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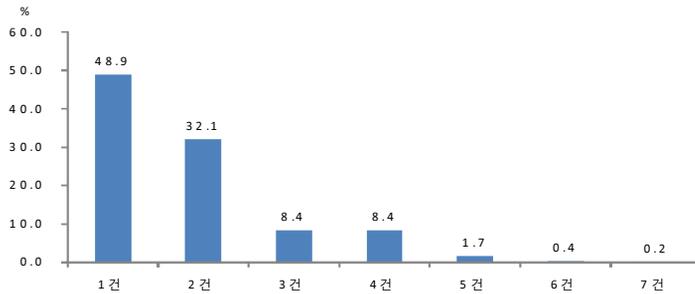
3) 전체 표본 수 = 1,082

자료: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추정한 것임.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 당 사망보장보험의 계약건수는 0.8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건 이상 가입한 중복 가입 가구⁴⁾의 비중(51.1%)이 높기 때문임.

○ 2건 가입한 가구 비중이 32.1%, 3건 이상 가입한 가구 비중도 19.1%에 달함.

〈그림 3〉 사망보장보험 가입 가구의 계약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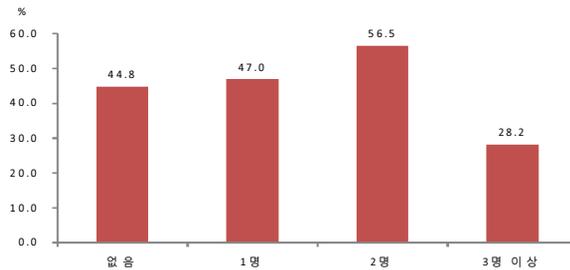
주: 사망보장보험 가입 가구는 종신, CI, 변액종신보험 중 1건 이상 가입한 가구로 산출함.
 자료: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추정한 것임.

4) 중복 가입한 가구의 평균 계약 건수는 1.8건으로 추정됨.

■ 동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은 가구주가 48세 기혼자이며 1.37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가입률이 56.5%로 가장 높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가입률은 47.0%, 자녀가 없는 가구의 가입률은 44.8%로 나타남.

〈그림 4〉 자녀 수와 사망보장보험 가입률



주: 1) 사망보장보험 가입 가구는 종신, CI, 변액종신보험 중 1건 이상 가입한 가구로 산출함.

2) 3명 이상 가구의 비중은 7.2% 수준임.

자료: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추정한 것임.

■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가입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 지출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가구와 가입하지 않은 가구 간 전체 소득에서 보험료 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대 수준으로 유사함.

〈표 2〉 사망보장보험 가입 가구와 미가입 가구 비교

	가입 가구	미가입 가구	차이(가입-미가입)
가구주 연령(세)	48.0	47.9	0.1
기혼율(%)	79.1	75.1	4.0
자녀수(명)	1.37	1.32	0.05
연 소득(A, 만 원)	4,610	4,084	526
월 보험료(만 원)	63	56	7
연 보험료(B, 만 원)	756	672	84
소득 대비 보험료(B/A, %)	16.4	16.5	-0.06

주: 1) 사망보장보험 가입 가구는 종신, CI, 변액종신보험 중 1건 이상 가입한 가구로 산출함.

2)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보험(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포괄함.

3) 전체 표본 수 = 1,082

자료: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추정한 것임.

다. 건당 보장수준 및 보험료

- FY2010 기준 사망보장보험 건당 가입금액은 4천 8백만 원에 불과하여 보장수준의 충실도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2건 이상 다건 가입자의 경우 보장수준이 1억 원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계소득 대비 가입금액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음.
 -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4천 26만 원이며, 사망보장보험의 주 가입대상인 40대의 경상소득은 5천 2백만 원에 달함.
 - 미국에서는 연평균 가구소득의 6배 정도를 적정 사망보험금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 보장수준은 1년 소득에 불과함.
- 우리나라 사망보장보험 계약자의 보장수준이 낮다는 것은 피보험자 사망 시 실제 계약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됨.
 - 보험개발원 분석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가입자 중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계약자의 89.4%가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수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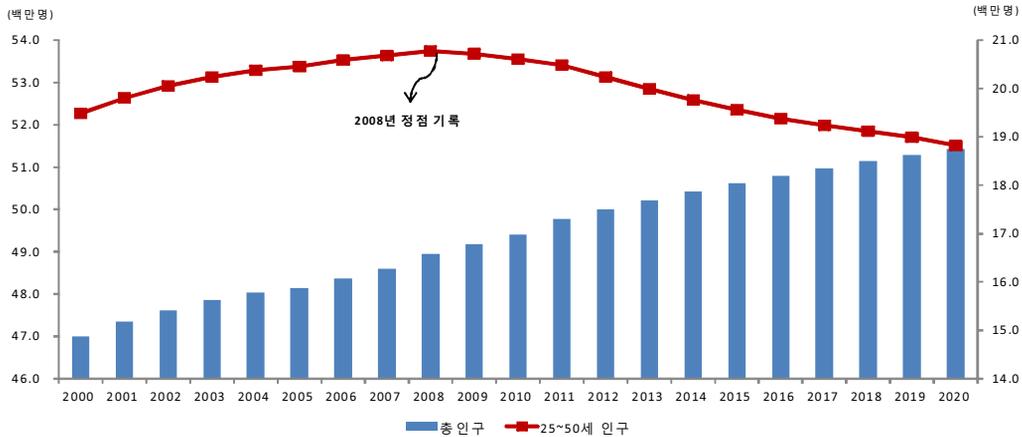
3. 사망보장보험의 성장 둔화 요인

가. 사망보장 수요 축소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사망보장보험의 주력 가입 계층이라 볼 수 있는 25~50세 계층의 인구는 감소 국면으로 진입하였음.
 - 사회생활과 함께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는 25~50세 인구는 2008년 2천 59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사망보장보험의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5) LIMRA(2006), The Market for Term Insurance.

〈그림 5〉 25~50세 인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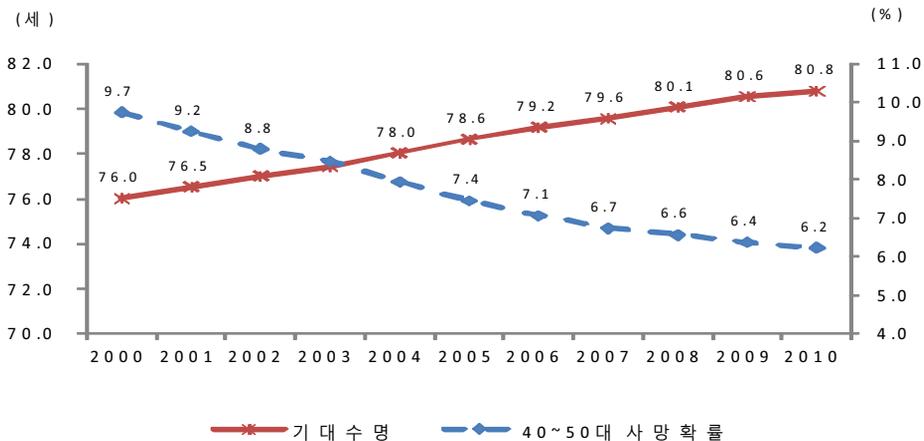


주: 좌측은 총인구, 우측은 25~50세 인구.
자료: 통계청.

■ 사회 전체적으로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0~50대 연령층의 사망률도 감소 추세에 있어 이들의 사망보장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됨.

○ 2000년 76.0세였던 기대수명이 2010년에는 80.8세로 증가함에 따라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음.

〈그림 6〉 기대수명과 40~50대 사망확률 추이



주: 40~50대 사망률은 40세, 45세, 50세, 55세의 인구 중 5년 내에 사망하는 인구의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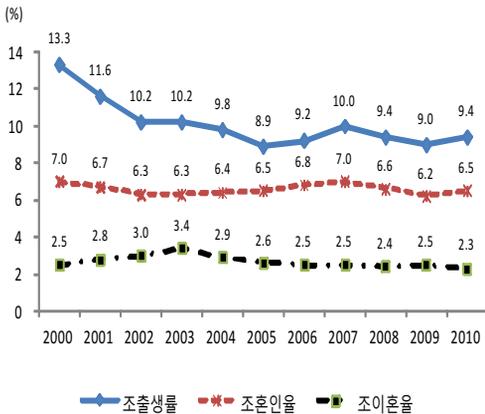
○ 반면, 40~50대 사망률은 2000년 9.7%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6.2%로 낮아져 가장의 조기사망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됨.

■ 혼인을 감소, 평균 초혼연령 상승, 이혼율 증가 등으로 1~2인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니즈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은 1995년 29.6%에서 2010년 69.3%로 5년마다 10%p씩 증가하였고, 평균 초혼연령도 매 5년마다 약 1세 정도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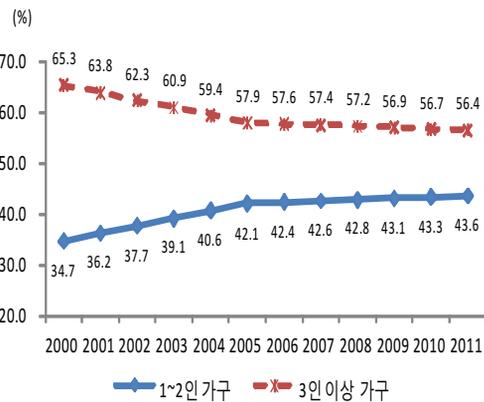
○ 1~2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43.6%로 상승한 반면,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56.4%로 낮아짐.

〈그림 7〉 출생률, 혼인율, 이혼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8〉 가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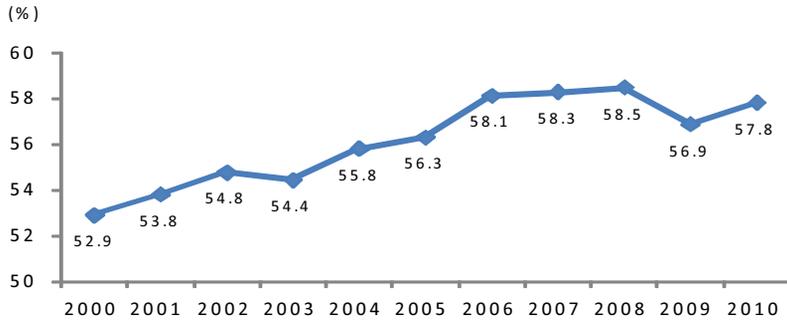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장 사망 시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완화되어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수요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장 사망 시 경제적 안정에 대한 니즈가 높은 2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52.9%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10년에는 57.8% 수준으로 높아짐.

〈그림 9〉 25~39세 여성의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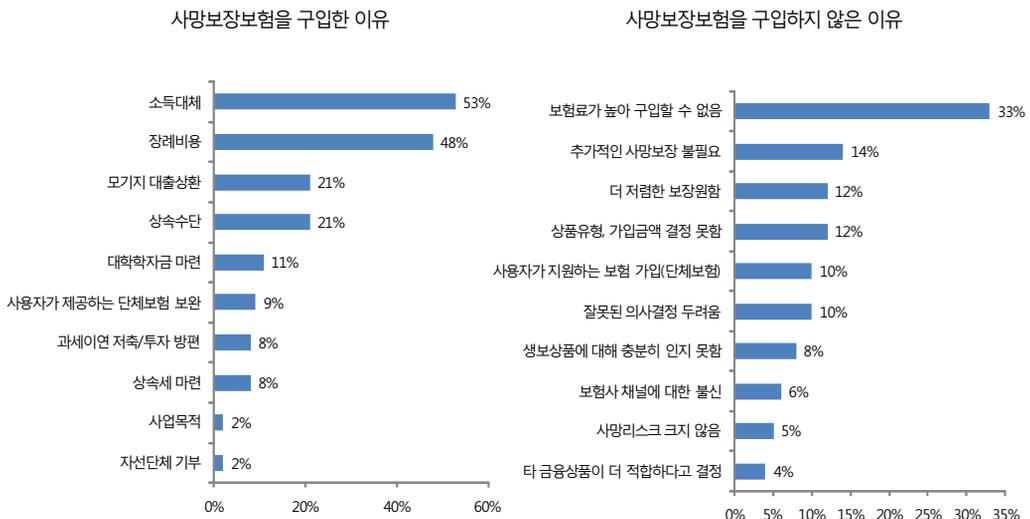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나. 가입여력 축소

■ 잠재적인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니즈가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가입여력이 중요한 요건이 되며, 실제 미가입자의 상당수는 가입여력이 낮기 때문으로 조사됨.

○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사망보장보험을 구입하는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커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림 10〉 사망보장보험 구입 이유 vs. 구입하지 않은 이유



자료: LIMRA(2011), MarketTrends LIMRA's Factbook-2011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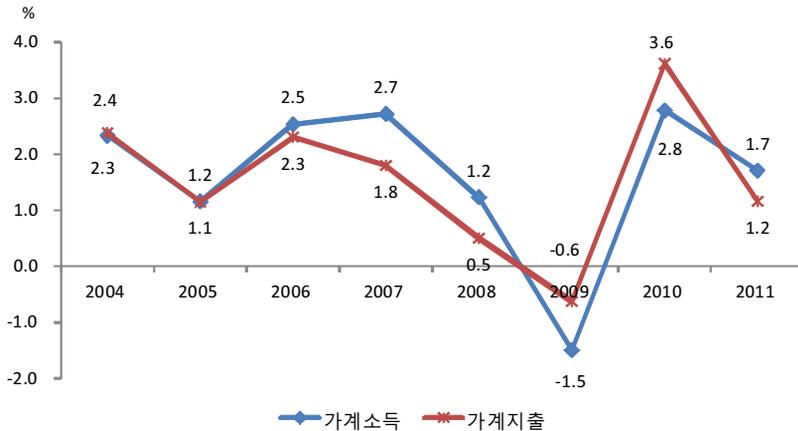
■ 우리나라 역시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니즈는 존재하지만 가입여력이 낮아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종신보험 미가입자 중 15% 정도는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저소득 계층의 니즈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낮아진 것으로 보임.

○ 2009~2011년 평균 실질 가계소득(2인 이상)은 1.0%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실질 가계지출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 증가율(2인 이상, 실질)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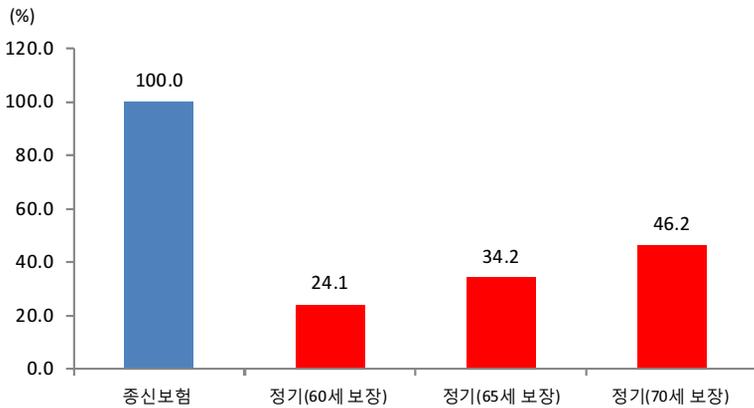
■ 국민계정상 가계 순저축률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잠정)에는 2.7%로 전년(3.9%)에 비해 1.2%p 하락함.

○ 실질소득 증가율이 낮아져 가처분소득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은 높지 않을 것임.

■ 종신보험의 월 보험료는 1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상승에 비해 지출 증가가 높은 가구에서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A사가 40세 남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가입금액 1억 원, 20년 납입 종신보험의 월 보험료는 19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보험료가 가계의 정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함.
- 이에 비해 동일 조건으로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규모가 4만 8천 원(60세 보장)~9만 2천 원(70세 보장) 수준으로 낮아짐.
-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종신보험의 30~50% 수준에 불과함.

〈그림 1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보험료 비교(40세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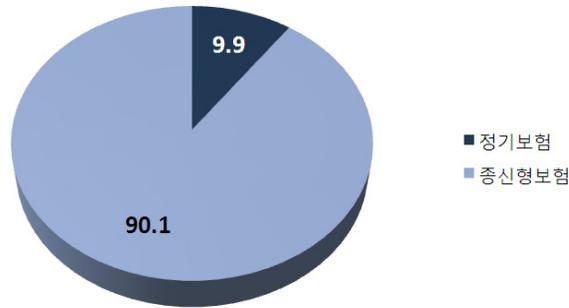
주: 가입금액 1억 원, 20년 납입, 월납 기준.
 자료: 보험료는 A사 보험료산출시스템에서 산출.

■ 가계의 가입여력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보험 시장은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보장기간을 기준으로 FY2010 사망보장보험의 수입보험료를 비교하면 종신형(permanent)⁶⁾이 90.1%에 달하며, 정기형(term)은 9.9%에 불과하여 종신형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됨.
- 종신형 사망보장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1조 4천억 원에 달함.
- 10년, 20년, 또는 65세 보장, 70세 보장 등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는 정기형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조 4천억 원에 불과함.

6) 보장기간이 종신(whole life)인 종신, CI, 변액종신 및 변액유니버설종신을 의미함.

〈그림 13〉 사망보장보험의 상품 비중
(종신형 vs. 정기, FY2010)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사망보장보험의 성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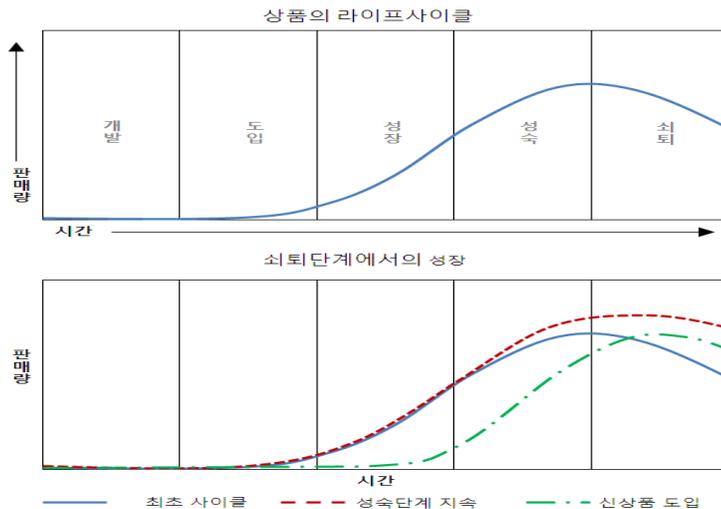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보험 시장은 가입률 지표로만 보면 성장여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보장의 충실도(건당 가입금액)를 감안하면 성장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가구당 가입률은 49.5%로 개인 차원에서 가입(단체보험 제외)한 미국 가구의 가입률(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건당 가입금액(4천 8백만 원)은 1년 가계소득에 불과하여 적정 보장금액과 실제 가입금액 간 격차가 존재함.

- 2장 및 3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망보장보험 시장은 상품 라이프 사이클상 쇠퇴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구당 계약건수는 0.89건, 다건 계약자 비중이 51.1%에 달하며, 초회보험료 및 신계약건수, 신계약 가입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사망보장보험의 성장 전략으로 상품측면에서 가입여력을 개선시키는 전략과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가입여력을 개선시켜 고객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사망보장상품의 성숙단계를 연장시킬 수 있고, 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망보장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성시킬 수 있을 것임(〈그림 14〉 참조).

〈그림 14〉 사망보장보험의 성장 전략



자료: LIMRA(2011), Behind the Eight Ball: Is the Future Bright for Individual Life Insurance?, Strategic Issue Series.

가. 고객기반 확대

- 사망보장보험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순자산 기준으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세부 시장에 적합한 상품과 채널을 갖추어야 함.
 -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기능이 다양하고 보험료도 높아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자금설계 니즈가 있는 고소득·부유층에게 적합함.
 - 중간소득층 이하는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가입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종신형에 비해 보험료가 낮고, 동일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높은 정기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
 - 보장수준은 높이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기 위해 종신보험에 정기보험을 결합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함.

〈그림 15〉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목표시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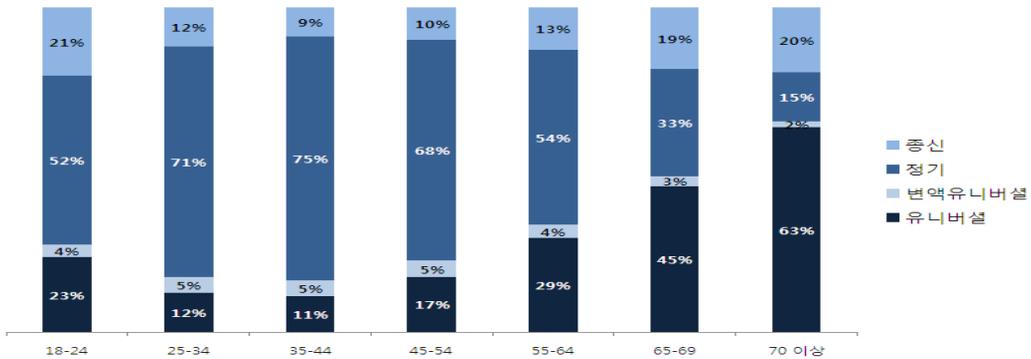
자료: Cooperstein, S.(2011), Implications of the Perceptions of Post Retirement Risk for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side Track Marketing Opportunity, But Requiring Focused Retooling, Society of Actuaries, 에서 수정 작성함.

1) 중저소득 계층

■ 가치분소득이 낮은 20~30대 계층의 잠재적인 사망보장보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과 채널을 융합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청년층은 소득이 높지 않고, 자녀 부양, 각종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매우 높을 것임.
- 이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기보험을 먼저 판매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가입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추가 판매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임.
- 미국에서도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력 제약이 큰 청년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정기보험인 것으로 조사됨.
 - 25~34세 계층이 구입한 상품 중 정기보험이 71%로 가장 높고, 종신 및 유니버설보험이 각각 12%씩 차지하며 변액유니버설보험은 5%에 불과함.

〈그림 16〉 연령계층별 사망보장보험 상품 비중(미국, 2009)



자료: LIMRA(2009), Individual Life Buyers in the United States.

○ 최근 일본에서도 청년층 1인 가구에 주목하여 온라인 생보전업사가 출범하였고, 이를 계기로 기존 중형사도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30대 계층에게 보험료 부담이 낮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 Lifenet과 Nextia가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1년 35억 엔으로 추정됨.

■ 일본 대동생명에서는 가격부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기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음.

○ 정기보험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하는 저해약환급금 상품과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무해약환급금 상품을 제공함.

○ 저해약환급금 상품은 일반적인 평균식 정기보험과 마찬가지로 경과기간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낮게(통상적인 정기보험의 70% 수준)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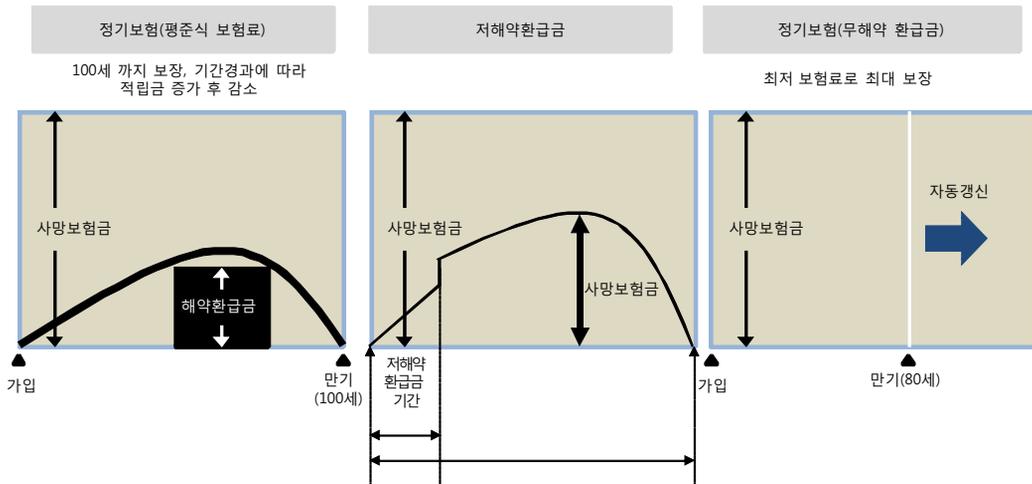
○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을 특정 시점으로 한정하지만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함.

〈그림 17〉 보장 니즈와 정기보험 상품



자료: 일본 대동생명.

〈그림 18〉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정기보험상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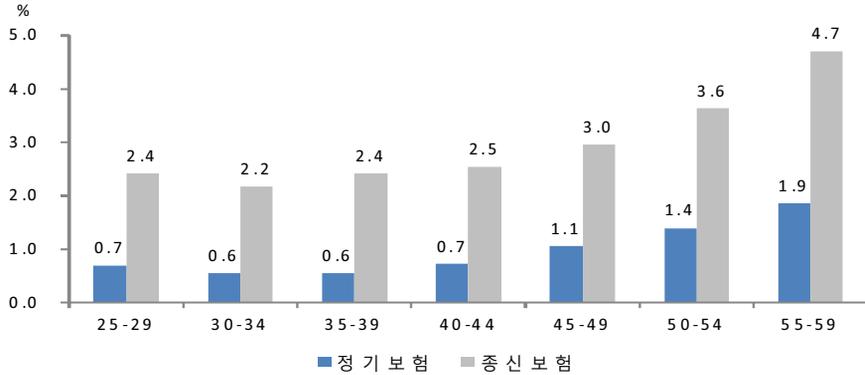
자료: 일본 대동생명.

■ 우리나라에서도 정기보험을 활용할 경우 종신형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입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저소득 계층으로 시장을 확대하기에 용이할 것임.

○ 25~44세 계층이 가입금액 5천만 원인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경상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은 종신보험이 2.2~2.5% 수준인데 비해 정기보험은 0.6~0.7% 수준으로 추정됨.

○ 45세 이상 중장년 계층에서도 가계 소득 중 1.1~1.9%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금액 5천만 원인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9〉 경상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가입금액 5천만 원)



주: 1) 정기보험의 보험료 산출 조건은 남자, 25~39세 20년납/60세 보장, 40~44세 20년납/65세 보장, 45~49세 20년납/70세 보장, 50~54세 15년납/70세 보장, 55~59세 10년납/70세 보장.

2)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 보험료 / 경상소득

자료: 보험회사 보험료산출시스템.

2) 위험세분화

■ 사망보장보험의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세분화함으로써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함.

○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표준체와 우량체(건강체)로만 구분하며, 우량체 등급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20~60세), 비흡연(최근 1년), 혈압, 체격(BMI: Body Mass Index)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위험률 세분화를 통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청년층의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면 이들 계층의 가입여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미국에서 판매되는 15년 만기 정기보험의 경우 비흡연자의 보험료는 흡연자 대비 50%(35세)~60%(45세) 수준에 불과하며, 종신보험 역시 비흡연자의 보험료는 흡연자 대비 75%(35세)~80%(45세) 수준임.⁷⁾

7) LIMRA(2005),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Fall 2005.

3) 여성 시장

-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결혼에 대한 의식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장 보험의 대상을 기혼 남성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은 남성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재무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잠재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 소득원 사망 시 부차적 소득원의 소득만으로는 이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부가 동시에 사망할 위험도 존재하므로 기혼 여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장보험 수요도 존재할 것임.

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

- 혁신적인 상품과 부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쇠퇴단계에 있는 사망보장보험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현 단계에 존속시키거나 새로 생성시킬 수 있을 것임.
 -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수 서비스는 기존 계약의 유지 및 추가 상품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임.

1) 장기유지 보너스

- 사망보장보험 시장의 성장은 신계약의 유입뿐만 아니라 보유계약의 유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약의 장기 유지를 유인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함.
 - 현재 신계약 비중이 13%에 달할 정도로 신계약 기여도가 높으나 향후에는 주력 수요층의 감소로 인해 보유계약 기여도가 더 중요해 질 것임.
 - 우리나라의 종신보험 유지율은 5년차 50%, 9년차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유계약의 유지율을 높이는 전략도 시장확대를 위해 필요함(황진태 · 이경희 2010).
- 계약 유지를 유인하기 위해 일정 연령(예: 60세) 또는 경과기간(예: 11년차) 도달 시 보너스(customer loyalty credit)를 부여하는 장기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 보너스 금액은 적립금의 일정 비율(예: 0.25%)로 책정하며, 경과기간 기준으로 보너스를 부여할 경우 특정 시점 이후에는 일정 간격(예: 5년)으로 부여할 수 있음.

2) 자녀의 정기보험 특약

■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 정기보험 특약을 제공함으로써 보유계약의 보험료 수준을 높이고 향후 특약의 주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가입한도(예: 5백만 원, 1천만 원)를 설정하여 25세 도달 시점까지 정기보험 특약을 제공함.
- 동 특약을 구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연령은 통상 55세까지이며 언더라이팅 등급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됨.
- 일반적으로 특약 비용은 정액(예: 가입금액 1,000원 당 0.5원)으로 부과하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함.
- 정기보험 특약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예: 정기보험의 5배) 이상으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쳐야 함.

3) 가입금액 증액 권리 부여

■ 보험회사는 최초 가입시점에서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한 계약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입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권리(GIO: Guaranteed Insurability Option)를 부여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역선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 발생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 가입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가입 연령(예: 45세 이전), 권리 행사 기간(예: 50세, 65세) 및 횟수(예: 3회)는 제한할 수 있을 것임.
- 특정사건이 발생할 때 가입금액을 높임으로써 계약자는 보장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고,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를 증대시킬 수 있음.

- 계약자 입장에서라도 장래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할 때 언더라이팅, 건강검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가 계약이 가능하므로 보장니즈 증대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기존 계약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신규 계약이 추가되는 방식이며, 추가된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증액 옵션을 부여하지 않음.
- 옵션이 행사되면 행사 시점의 조건에 따라 신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질병 상태에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표 3〉 가입금액 증액 옵션(GIO) 사례

상품	사건	가입금액 증액 한도
정기보험	- 결혼 - 출산 - 이사 또는 주택개량으로 모기지 증대 - 승진 또는 전직으로 급여 인상	- 1억 원 - 가입금액의 50% - 증대된 모기지 금액 - 임금상승률
종신보험	가족 보장 - 결혼 - 출산 - 이사 또는 주택개량으로 모기지 증대	- 가입금액의 1/3 - 3천만 원 - 증대된 모기지 금액
	상속세 마련 - 상속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 증가 - 상속세율 인상 및 상속공제 축소	- 상속세 부담액 - 가입금액 50%

4) 적립금의 연금전환 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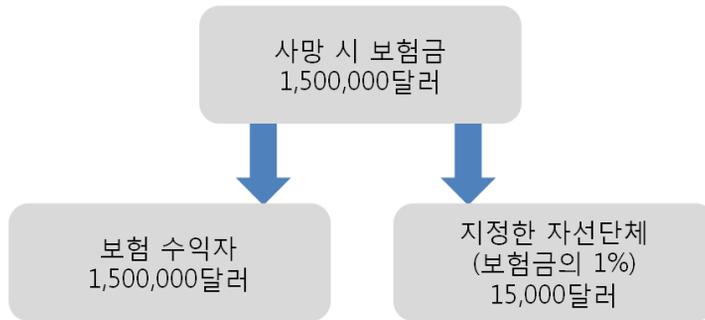
- 부채상환 완료, 자녀 취업 등으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면 계약자가 적립금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켜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연령이 증대됨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보장니즈는 감소하는 반면, 피보험자의 생존보장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게 됨.
-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계약자 적립금을 거치연금이나 즉시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금리확정형 또는 변액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종신보험의 보장 내용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지급, 연금전환 등으로 확대하였음.
- 피보험자가 가입 시 정한 은퇴 연령(예: 60, 65, 70세 등)까지 생존하면 납입보험료의 일정 수준(예: 50%)을 생활자금으로 수령함.

- 기존의 연금전환 특약은 전환 당시 기초율과 약관을 적용하는데 반해, 최근 출시된 상품 중에는 주계약 가입당시의 기초율과 약관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음.

5) 자선단체 기부 특약

-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전반에 걸쳐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병존하고 있어 보험을 통해 기부문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질 것임.
 - 가입금액이 고액인 사망보장보험(예: 종신보험,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에서 활용 가능할 것임.
-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선단체 기부 특약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예: 1%)을 가입 시점에 계약자가 지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서비스임.
 - 기부로 인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감소하지 않음.
 - 기부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자선단체는 가입 시점에서 지정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인정한 기관이어야 함.
 - 가입 시 지정한 자선단체를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나 가입 이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자선단체 기부 특약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부금에 대한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설정함.
 - 통상 기부금의 최저한도는 10,000달러(1백만 달러×1%)이며 최고한도는 100,000달러(1천만 달러×1%) 수준으로 설정됨.

〈그림 20〉 미국 보험회사의 자선단체 기부 특약 예시



다. 잠재시장 규모 추정

■ 고객기반 확대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사망보장보험의 보험료 규모를 추정하면 연간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가입금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한 정기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함.⁸⁾
-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는 월 1만 8천 원(25~29세)~7만 6천 원(55~59세) 수준이 될 것임.
- 연령계층별로 5%(50~59세)~20%(25~29세) 정도가 신규 가입한다고 가정함.
 - 현재 가입률이 가장 낮은 25~29세 가구의 가입률이 20%p 상승(14만 4천 가구)한다면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는 311억 원에 달할 것임.
 - 가구 수가 가장 많은 40~44세 가구의 가입률이 10%p 상승(22만 8천 가구)할 경우 가능한 수입보험료 규모는 836억 원으로 추정됨.
 - 소득이 가장 높은 45~49세 가구의 가입률이 10%p 증가(21만 1천 가구)한다면 예상 수입보험료 규모는 1,164억 원으로 추정됨.

8) 현재 사망보장보험을 보유한 가구에서 추가 가입한다면 보장수준을 1억 원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임 (기존 4천 8백만 원+추가 5천만 원).

(표 4) 시장 확대 시 사망보장보험의 잠재시장 규모 추정

연령 계층 (세)	가구 소득 (천 원/년)	가구 분포 (%)	가구 수 (천 가구)	현재 가입률 (%)	신규 가입률 (%p)
25~29	31,330	4.1	721	35.7	20.0
30~34	41,330	7.8	1,371	52.2	10.0
35~39	44,470	11.2	1,968	53.3	10.0
40~44	50,910	13.0	2,285	54.1	10.0
45~49	52,540	12.0	2,109	51.4	10.0
50~54	51,660	12.4	2,179	50.3	5.0
55~59	48,980	9.5	1,670	46.7	5.0
소계	40,257	99.2 ¹⁾	17,433	49.5	10.0
연령 계층 (세)	신규 가입 (천 가구)	보험료 (천 원/월)	수입보험료 (억 원/년)	보험료 /경상소득 ²⁾	보험료 /가처분소득 ²⁾
25~29	144	18	311	10.9	12.7
30~34	137	19	313	12.9	15.7
35~39	197	21	484	13.0	15.9
40~44	228	31	836	14.2	17.6
45~49	211	46	1,164	12.9	16.0
50~54	109	60	785	14.4	18.0
55~59	83	76	761	24.4	30.0
소계	1,110	39	4,654	16.9	20.7

주: 1) 24세 이하 및 60세 이상 가구 제외함.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에 정기보험 추가 가입 시 부담하는 보험료(현재 지출하는 보험료+정기보험 추가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5.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보험 시장은 2000년대 초반 급성장한 이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 경기침체에 따른 가입여력 축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부부와 부양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구 비중 축소, 주력 가입대상(25~50세) 인구의 감소, 기대여명 증대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위축됨.
- 현재 가계소득 중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16% 수준에 달해 고액의 사망보장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높지 않음.

■ 사망보장보험 가입자의 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재무여건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미가입자뿐만 아니라 기가입자(가입은 하였으나 보장수준이 낮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가격 대비 보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입여력이 낮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종신행보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함.

- 가입률이 낮은 20~30대 계층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격세분화 전략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도 필요함.

- 이후 판매채널과 고객 간 장기관계가 형성되면 경제적 니즈의 변화에 따라 보장금액 증액, 정기보험의 종신행보험 전환 전략 등을 검토함.

○ 소비자들은 사망보장 외에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서비스의 제공도 계약유지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유지 보너스, 자녀의 정기보험 특약, 가입금액 증액 권리 부여, 자선단체 기부 특약 등 보유계약 유지 및 신규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도 사망보장보험의 주 수요층이 되는 인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모형을 발굴해야 할 것임.

○ 확대 가능한 잠재시장의 인구 구조와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을 이해하고,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모형을 구축해야 할 것임.

〈참고 문헌〉

생명보험회사, 보험료산출시스템.

_____, 상품요약서.

_____, 업무보고서 각호.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2011. 11. 12),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화증권(2010. 10. 26), 일본보험업, 산업분석.

황진태 · 이경희(2010. 5),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연구보고서 2010-2, 보험연구원.

Cooperstein, S.(2011), Implications of the Perceptions of Post Retirement Risk for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side Track Marketing Opportunity, But Requiring Focused Retooling, Society of Actuaries.

Ikoma, T. and Miyamoto, J.(2006), Population distribution and business trend of life insurance in Japan, The Dai-ichi-life mutual insurance company.

LIMRA(2005),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Fall 2005.

_____(2006), The Market for Term Insurance, 2006.

_____(2009), Individual Life Buyers in the United States.

_____(2011), Behind the Eight Ball: Is the Future Bright for Individual Life Insurance?, Strategic Issue Series.

_____(2011), MarketTrends LIMRA's Factbook-2011 Trends in the United States, 2011.

Mitchel, J.(2011), Product Development: 2010-Evidence of Innovation, LIMRA.

Muise, N.(2009), Simplified Issue Marketplace-An Individual Life Insurance Product Study, LIMRA.

Swiss Re(2012), Understanding profitability in life insurance, Sigma, No. 1.

Terry, K.(2005), A New Whole Life: The Shift From Perm to Term Insurance,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Fall 2005.

Terry, K., Durham, A., and Isenberg, K.(2010), Individual Life Buyers in the United States, LIMRA International.

Retzloff, C. (2011), Person-Level Trends in U.S. Life Insurance Ownership, LIMRA.

보험개발원 보험뉴스(<http://www.kidi.or.kr>)

통계청(<http://kostat.go.kr>)

한국은행(<http://ecos.bok.or.kr>)

일본 대동생명(<http://www.daido-life.co.jp>)

미국 AXA Equitable(<http://www.axa-equitable.com>)

미국 Legal and General(<http://www.legalandgeneral.com>)

〈부록 표 1〉 연령계층별 · 소득계층별 가구당 사망보장보험 가입 통계

(단위: 건, %)

	연령계층 (세)	저소득층 (3천만 원 이하)	중소득층 (3천만~5천만 원)	고소득층 (5천만 원 초과)	소계
표본 가구 수 (A)	~29	37	13	1	51
	30~34	30	30	7	67
	35~39	30	61	14	105
	40~44	24	91	18	133
	45~49	22	86	30	138
	50~54	51	162	77	290
	55~59	45	128	52	225
	60~	15	47	11	73
	소계	254	618	210	1,082
사망보장보험 가입 가구 수 (B)	~29	10	7	-	18
	30~34	16	15	4	35
	35~39	15	30	11	56
	40~44	9	51	12	72
	45~49	8	49	14	71
	50~54	14	84	48	146
	55~59	11	66	28	105
	60~	6	20	9	35
	소계	89	321	126	536
사망보장보험 가입률 (B/A)	~29	27.0	50.0	0.0	35.7
	30~34	53.3	50.0	57.1	52.2
	35~39	50.0	49.2	78.6	53.3
	40~44	37.5	56.0	66.7	54.1
	45~49	36.4	57.0	46.7	51.4
	50~54	27.5	51.9	62.3	50.3
	55~59	24.4	51.6	53.8	46.7
	60~	40.0	42.6	81.8	47.9
	소계	35.0	51.9	60.0	49.5

자료: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함.

◀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변화와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인구구조적 변화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또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판매채널 전략의 변화 또한 요구되는 시점임.

- 인구고령화, 기대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판매채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가 변화하게 되며, 이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이 도입되고, 도입된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 또한 변화하게 됨.
- 이러한 변화는 미국 생명보험시장의 예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각 시기의 경제환경과 목표시장에 따라 주력 상품 및 주력 채널전략도 변천하게 됨(〈표 1〉 참조).

〈표 1〉 미국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의 변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경제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성장 재개 주식시장 활황	세계화 확대 (이상과열)	저성장
목표시장	젊은 가계	젊은 전문가	부유한 가계	고소득자 및 은퇴자
상품특성	종신보험	투자형 상품 (UL, VL)	투자형 상품	보증옵션 상품
판매채널	전속채널	전속채널, 독립채널, 직판(우편, 전화)	다중채널	기존 보험채널 및 투자채널

자료: Lombardi(2009).

- 특히 미국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 소비자층으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니즈는 상품설계와 판매채널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됨.

■ 본고는 미국의 판매채널 변화와 변화의 동인이 되었던 요인들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판매채널 전략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1970~198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1970년대에는 전속채널을 통해 전통적 중신보험이 주력상품으로 판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함께 투자형 상품이 늘어났고 이와 함께 독립채널의 판매 비중 또한 높아짐.

가. 경제 환경과 소비자 니즈

- 1970년대 미국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경험함.
 -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가격인상 및 생산량 제한으로 인하여 1973~1974년, 1978~1980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Oil Shock)이 발생함.
 - 경기침체로 인하여 1969년 3.5%였던 실업률은 1975년 8.5%까지 상승하였으며, CPI 기준 인플레이션율도 1980년 13.6%까지 상승함.
- 한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의 소비행태, 문화 등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에는 이들이 20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20~30대 젊은 가계가 주요 목표 소비자 집단으로 부각됨.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족 생계 보장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중신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이후 1980년대에는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공급경제학’에 기반을 둔 소득세 감세, 정부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경제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하락하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됨.¹⁾

나.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

- 1970년대에는 소비자들의 가족 생계 보장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상품이 주력 상품으로 판매됨.
 - 표준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보험상품들은 주로 단일 회사를 대리하는 일반대리점(Agency Building), 홈서비스(Home Service Agents) 등과 같은 전속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되었음.
- 한편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전통적 종신보험이 주를 이루었으나,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들이 성장하기 시작함.
 - 198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뮤추얼 펀드가 대중화 되면서 변액보험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자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유니버설보험도 판매됨.
 - 또한, 타 금융권과의 경쟁을 위해 높은 확정이율을 보장하는 금리확정형 상품(GIC: Guaranteed Interest Contract)의 비중이 높아짐.
 - 그러나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때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됨.
- 투자 성격을 가지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면서 전통적 상품을 판매할 때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는 독립채널의 판매 비중이 늘어남.
 - 아울러 보험회사들은 전화나 우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채널도 주요한 채널의 하나로 활용하였는데, 주로 표준화된 전통적 보장성 상품 판매에 사용됨.

1) 레이건 정부 하에서 상당한 수준의 군비증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재정적자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됨. 아울러 관련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함.

3. 1990년대: 미국

저금리 현상이 나타났던 1990년대에는 이전에 판매되었던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금리역마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과 변액보험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변액연금의 비중이 늘어남. 또한 상품의 복잡화, 전속채널 유지비용 상승,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 완화 노력 등으로 인해 독립채널의 활용이 확대되어 전속채널의 판매비중을 앞지르게 됨.

가. 경제 환경과 소비자 니즈

- 미국경제는 1990년대 초반에는 다소 경기 침체를 보였으나, 1991년부터 2001년 초까지 경기확장기를 보임.²⁾
 - 1990년에 발발한 걸프전으로 인해 원유가가 급상승하였고, 1990년 초까지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상승, 재정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경제의 경기회복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함.

- 금리는 1980년 초를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
 - 저금리 상황은 창업자본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특히 정보기술(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1995~2000년 사이에는 닷컴 버블(Dot-com Bubble)³⁾이라 불리는 거품경제현상도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들이 40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을 필요로 하게 됨.
 - 주식시장 활황으로 소비자들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

2) <http://www.nber.org/cycles/cyclesmain.html>

3) IT bubble, TMT bubble, Internet bubble이라고도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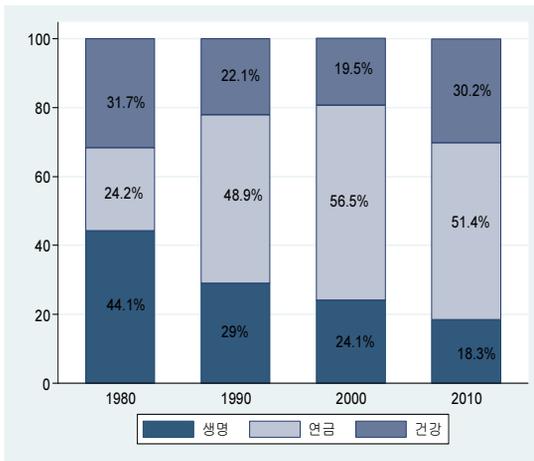
나.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

■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준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연금상품이 활성화되었으며, 주식시장 활황으로 보험시장에서는 특히 변액연금이 주력상품으로 판매됨.

- 1980년에는 생명보험, 연금, 건강보험 중 연금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4.2%였으나, 1990년에는 48.9%, 2000년에는 56.5%로 그 비중이 증가함(<그림 1> 참조).
- 또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연금상품 중에서도 변액연금(Variable Annuities)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1989년에는 26%였던 변액연금의 비중은 1999년 74%로 증가함.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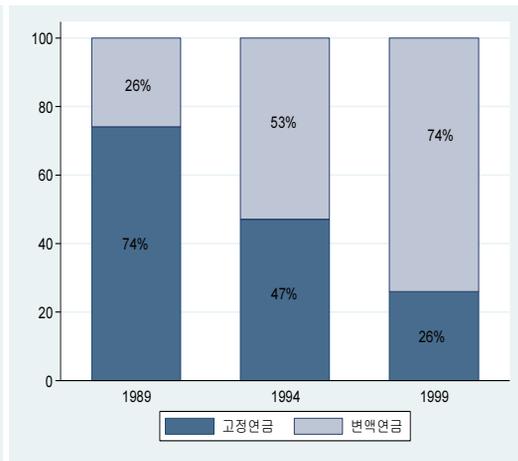
<그림 1> 미국 생명보험 상품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자료: ACLI(2010).

<그림 2> 미국 연금 구성비 추이



자료:LIMRA(2011).

■ 한편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회사들은 1980년대에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상품으로부터 발생된 금리역마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연동형 유니버설(UL)보험, 실적배당형 변액종신보험 등의 상품 비중을 확대시킴.

4) LIMRA(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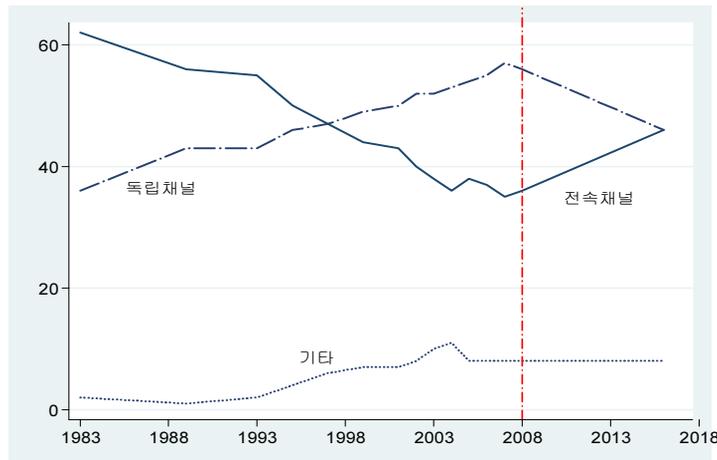
- LIMRA(2011)에 의하면 1984년 기준으로 개인생명보험상품 중 유니버설상품과 변액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30%와 3%였으나, 1999년에는 유니버설상품이 19%, 변액상품이 31%를 차지하게 됨.

■ 이렇게 보험상품이 복잡화되면서 독립채널(Independent Agents)의 비중도 늘어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독립채널의 판매비중이 전속채널의 비중을 추월하게 됨.

- 상품이 복잡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전속채널보다는 여러 회사들의 상품들을 비교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독립채널을 선호하게 됨.

〈그림 3〉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단위: %)



주: 1) 2008년 이후 비중은 추정치.

2) 신계약 기준.

자료: LIMRA(2011).

■ 상품의 복잡화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 최소화 노력, 전속채널 유지 비용의 상승, 전속채널 정착률 하락 등이 독립채널 판매비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⁵⁾

- 1990년대에 문제가 되었던 불완전판매 사건 이후, 보험회사들이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채널 활용 비중을 늘렸다는 분석도 존재함.

5) 자세한 관련 논의는 안철경·권오경(2010)을 참조하기 바람.

- 종신보험을 퇴직연금처럼 판매한 사례나 보험료 소멸부(Vanishing Premium) 종신보험 관련 불완전판매가 보험회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힘.⁶⁾
-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전속채널에 대해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전속채널을 활용할 경우 독립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비를 부담하게 됨.

■ 이 시기에는 독립채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전속채널, 독립채널(브로커딜러, 독립모집인), 직접판매와 방카슈랑스 등을 함께 활용하는 다중채널(Multi-Channel) 전략이 사용됨.

4. 2000년대: 미국

금융융합화가 가속화되고 노년기 대비를 위한 상품이 요구되면서 변액연금상품, 특히 보장옵션을 가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고소득 소비자들은 세금을 포함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데 독립채널이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음. 그러나 상품과 목표시장에 따라 다양한 채널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채널전략도 달리 나타남.

가. 경제 환경과 소비자 니즈

- 2000년 초 그동안 유지되었던 투자활황, 특히 정보기술 관련 투자가 저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주식시장도 침체기를 맞이함.
 -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을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은 다시 침체기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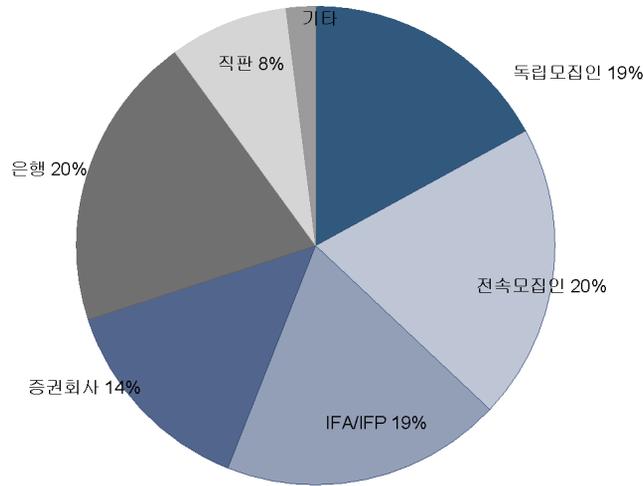
6) 보험료 소멸부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를 지급 후 배당금으로 이후 보험료가 충당되므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품으로 소개, 판매되었으나, 1990년대 저금리하에서 예상했던 배당금 수준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함.

- 한편 1999년에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또는 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면서 은행, 투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간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금융다각화를 가속화시킴.
-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소비자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안정적 소득에 대한 니즈는 더욱 강화됨.

나.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

- 보험회사는 고소득 은퇴자들을 목표시장으로 하여 노년기 소득흐름의 안정화를 제공할 수 있는 보증옵션을 포함한 연금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 보증옵션에는 최저사망보증(GMDB), 최저연금보증(GMIB), 평생인출액 보증(GLWB), 연금개시기 원금보장(GMAB), 최저정기인출액보증(GMWB) 등이 있음.
- 주 목표시장인 고소득 은퇴자들은 세금 문제를 포함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자를 필요로 하고 주로 이러한 필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채널들이 지배적인 판매비중을 차지하게 됨.
 - 여러 상품들을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고, 투자형 상품설계와 더불어 다양한 보증옵션을 더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채널을 필요로 하게 됨.
- 아울러 보험회사들은 기존 보험상품을 판매하던 채널 이외에도 증권브로커, 금융기관, 금융자문가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복합채널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미국 연금상품의 채널별 판매비중



주: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와 IFP(Independent Financial Planner)는 독립재무설계사를 의미함.
 자료: Lombardi (2009).

■ 그러나 보험회사에 따라 전속채널을 통한 판매비중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전속채널과 독립채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전적으로 독립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함.⁷⁾

- 노스웨스턴뮤추얼(Northwestern Mutual)의 경우 고능률화된 전속채널을 활용하여 전문직 고소득층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상속 등의 자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함.⁸⁾
 - 노스웨스턴뮤추얼의 주력상품은 종신보험으로 변액연금상품의 판매비중은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채널이나, 증권회사채널 등 전적으로 독립채널을 통해 연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트포드(Hartford)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⁹⁾
- 메트라이프(MetLife)¹⁰⁾나 퍼시픽라이프(Pacific Life)¹¹⁾와 같이 전속채널과 독립채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7) 박현문(2011) 참조.

8) <http://www.northwesternmutual.com>

9) <http://www.thehartford.com/Auto-Insurance-Investments-Retirement>

10) <http://www.metlife.com/individual/index.html>

11) <http://www.pacificlife.com/PL>

■ 메트라이프의 판매채널 전략은 대표적인 복합채널 전략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시장에 따라 시장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을 활용함.¹²⁾

- 메트라이프는 판매자회사를 통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판매자회사 중에는 자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채널과 독립채널이 공존함.
- 전속채널에 해당되는 자회사에는 중산층을 목표로 하는 MetLife Financial Service와 부유층을 목표로 하는 NEF(New England Financial)¹³⁾가 있음.
-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부유층을 목표시장으로 하여 주로 변액유니버설보험이나 연금 등을 판매하는 GenAmerica나 연금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MetLife Investors 등과 같은 독립판매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게 됨.

5. 국내 생명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시사점

경제환경 및 목표시장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2000년대 상황과 흡사한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해 단순한 상품의 판매가 아닌 세금이나 상속문제 등을 포함한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판매채널이 필요할 것임.

■ 우리의 경우 경제환경 및 목표시장 측면에서 판단할 때 미국의 2000년대 상황과 흡사한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저금리 기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720만 여명으로 추계되며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데, 이들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12) 안철경 · 권오경(2010).

13) 부유층 시장을 목표로 한 판매를 위해 1996년 인수함.
(<http://www.metlife.com/new-england-financial/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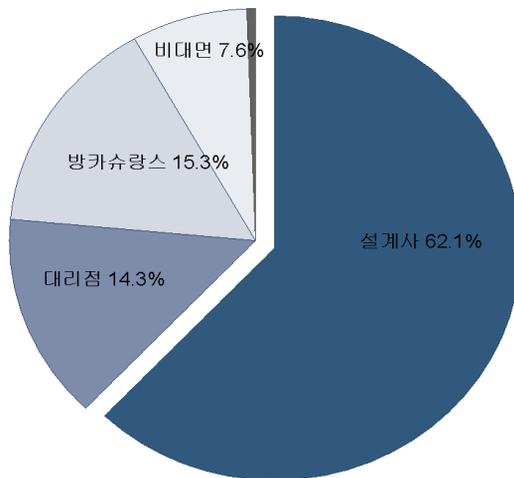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은퇴 후 노령기 대비를 위한 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대될 것이며, 미국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정된 소득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보증옵션을 포함한 변액연금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소비자의 자산, 투자성향, 보장이 필요한 위험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판매채널은 충분한 전문성이 필요함.

■ 기존 판매채널이 상품 판매에 중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상품과 함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준화된 상품은 기존의 판매 중심 전략이 적합하겠으나, 비표준화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상품이 복잡해지면 소비자 니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그림 5〉 국내 개인생명보험 판매채널 판매비중



주: FY2010 1/4분기 개인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
 자료: 이경희·김세중, 『보험동향』, 2010년 겨울호.

■ 〈그림 5〉는 국내 생명보험(개인보험) 판매채널의 판매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주 채널인 것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는 생명보험 개인보험료 중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보험료 비중은 약 15.3%를, 설계사 채널 비중은 약 62.1%를 차지함(2010년 1/4분기).¹⁴⁾

■ 최근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설계사 등록시험제도를 개정, 보험모집인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¹⁵⁾ 등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사 채널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자격에 해당되는 생명보험설계사자격 이외에 별도로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변액보험 이외의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는 실정임.
- 예를 들어 판매 시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체교육 이수 후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함.

■ 변화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각 회사의 주력상품과 목표시장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것이나, 크게 기존 전속채널의 전문성 제고, 자회사 형태로서의 판매전문회사 활용, 외부 독립채널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먼저 기존의 전속채널 중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룹을 양성하여 세제 전문가 등과 함께 고소득 은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그룹으로 이원화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기존 전속채널의 직원화를 통한 전문 판매 인력 양성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표준화된 상품 판매나 간단한 고객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모바일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효율화할 수 있을 것임.

14) 이경희·김세중(2011).

15)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http://www.ctis.or.kr>)

- 다음으로 MetLife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형태로 판매 전문회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판매전문회사는 독립채널일 수도 있고 전속채널일 수도 있음.

- 보험지주회사 형태로서의 변화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하트포드의 예와 같이 외부 판매전문회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박현문(2011), 『생명보험 걸어온 길, 가야할 길』, 매일경제신문사.

보험연구원(2012), 『보험동향』, 2012년 봄호, 보험연구원.

안철경 · 권오경(2010),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경영보고서 2010-01, 보험연구원.

이경희 · 김세중(2011), 「개인생명보험의 신계약 동향과 시사점」, 『보험동향』, 2010년 겨울호, 보험연구원.

ACLI(2010), *Life Insurance Fact Book 2010*, ACLI.

Kallenbach, Scott(2011), "Go Deep and Focus on Changes in Business Practices,"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Number 3/4, LIMRA.

Lam, Kenny and Jatin Pant(2011), "The Changing Face of Asian Personal Financial Services," *McKinsey Quarterly*, McKinsey&Company.

LIMRA(2011), *Guaranteed Uncertainty*, LIMRA.

LIMRA and Moss-Adams LLP(2007), "New Game, New Rules, New Reality: The Economics of Growing Distribution," Strategic Issues Series, LIMRA.

Lombardi, Lucian(2009), *Distribution Trends: In the United States*, LIMRA.

Lombardi, Lucian and Vivek Agrawal(2010), "Forces of Change: Issues Facing Distribution Leaders," McKinsey&Company and LIMRA.

State Street Global Marketing(2010), *Vision 2010: Life Insurance*, Vol.V(2), State Street.

참고 미국의 판매채널

■ 전속채널(Affiliated Agent)

- 일반대리점(Agency Building), 홈서비스(Home Service Agents): 한 회사를 대리하는 전속채널로서 건강보험, 연금보험, 단체생명 및 건강보험, 주식관련 상품(equity products)을 판매함.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보험 상품(property-casualty products)을 판매하기도 함.
- MLEA(Multi-line Exclusive Agent): 한 보험회사를 대리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주식관련 상품과 더불어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채널

■ 독립채널(Independent Agent)

-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
- PPGA(Personal-Producing General Agent)
- 독립대리점사용인(Sub-producer)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2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이에 따른 긴축재정, 유가 상승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저성장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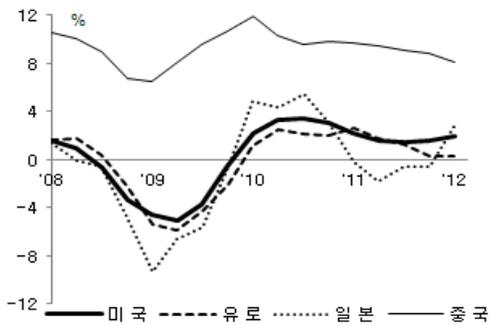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지연, 신흥국의 경기둔화로 2011년 4/4분기에 이어 3.2%에 그침.¹⁾

○ 선진국의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2011년 4/4분기 1.4%에서 2012년 1/4분기 1.5%로 0.1%p 상승에 그침.

○ 신흥국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대내외 부문이 다소 위축되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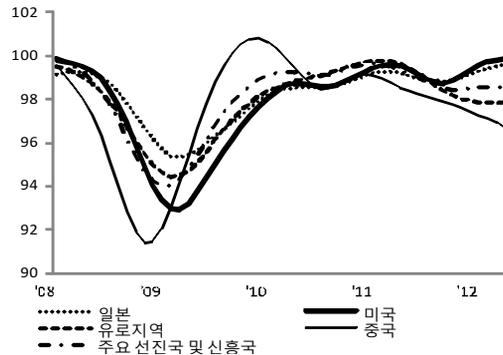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6.0%에서 2012년 1/4분기 5.7%로 성장률이 하락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2007.1=100
자료: OECD.

1) 국제금융센터 인용 Goldman Sachs 통계를 재인용.

○ 그러나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²⁾의 경기선행지수가 2011년 4/4분기부터 2012년 1/4분기 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경기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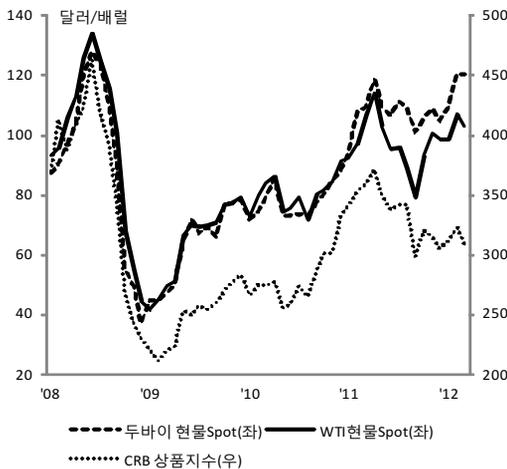
■ 전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성장률 정체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소폭 하락함.

○ WTI 및 두바이 국제유가는 1/4분기 배럴당 평균 116.7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9.6% 상승하였으나, CRB지수³⁾는 전분기대비 0.5% 상승에 그침.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11년 4/4분기 4.4%에서 2012년 1/4분기 3.9%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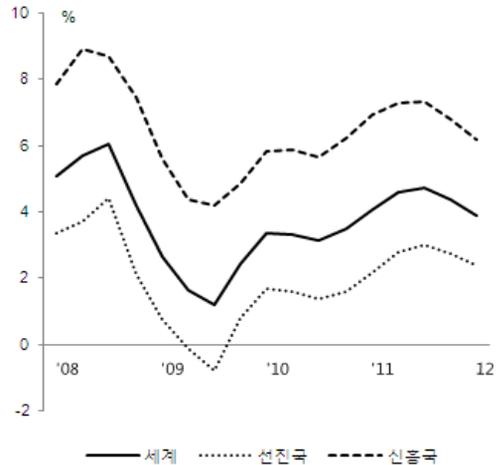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4분기 2.7%에서 2012년 1/4분기 2.4%로 낮아졌고, 신흥국은 같은 기간 6.8%에서 6.2%로 하락함.

〈그림 3〉 국제유가 · 원자재가격 추이



주: CRB 상품지수 1967=100
자료: Bloomberg.

〈그림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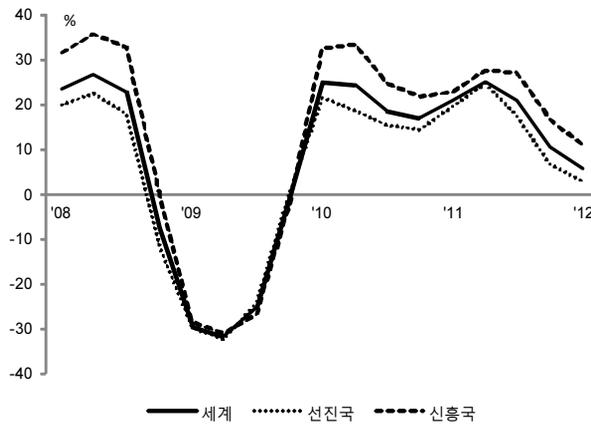
2) ‘OECD 국가 + 6개 주요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1년 4/4분기 99.9, 2012년 1/4분기 100.0, 2012년 4월 100.0을 기록함.

3) 곡물,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지수.

■ 세계무역액은 세계경기 회복지연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함.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1년 4/4분기 10.4%에서 2012년 1/4분기 5.7%로 하락함.
- 1/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전분기(6.8%, 16.8%)보다 각각 4.1%p, 6.1%p 하락한 2.7%와 10.7%로 나타남.

〈그림 5〉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IMF.

가. 미국경제

2012년 1/4분기 미국경제는 고용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심화, 이란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전분기에 비해 다소 약화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1/4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은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민간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0.5%에 그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개인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서비스부문 지출이 전분기대비 0.2% 증가하였고, 재화부문 지출이 1.4%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0.6% 늘어남.
 - 민간투자는 주택투자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불안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부진해짐.
 - 수출과 수입은 유로지역 경기 악화와 세계경기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1.0%, 0.7% 증가에 그침.
 - 정부지출은 재정적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방 및 주정부가 긴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0% 감소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GDP	3.0	1.7	1.0	0.9	0.6	0.6	0.1	0.3	0.5	0.7	0.5
민간소비	2.0	2.2	0.7	0.7	0.7	0.9	0.5	0.2	0.4	0.5	0.6
서비스	0.9	1.4	0.2	0.6	0.4	0.3	0.2	0.5	0.5	0.1	0.2
재화	4.3	3.7	1.6	0.9	1.2	2.0	1.2	-0.4	0.3	1.3	1.4
민간투자	17.9	4.7	7.1	6.0	2.2	-1.8	0.9	1.6	0.3	5.1	1.6
설비	4.4	8.7	1.5	4.4	2.7	2.1	0.5	2.5	3.7	1.3	0.8
주택	-4.3	-1.3	-4.1	5.3	-7.8	0.6	-0.6	1.0	0.3	2.8	4.7
수출	11.3	6.8	1.8	2.4	2.4	1.9	1.9	0.9	1.1	0.7	1.0
수입	12.5	4.9	3.0	5.0	2.9	-0.6	2.0	0.3	0.3	0.9	0.7
정부지출	0.7	-2.1	-0.3	0.9	0.2	-0.7	-1.5	-0.2	0.0	-1.1	-1.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2. 6),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FOMC⁴⁾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라 하반기 고용시장, 투자 및 민간소비 부문 위축을 예상하고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FOMC는 1/4분기 초반에는 2012년 성장률을 2.4~2.9%로 전망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1.9~2.4%로 낮춤.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3/4	4/4	1/4	2/4	3/4	4/4	1/4	3월	4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8.2	0.7	3.3	2.6	1.4	1.2	2.1	1.5	0.6	0.4
소비자신뢰지수 ²⁾	58.1	50.9	57.0	66.9	61.5	50.3	53.6	67.5	69.5	68.7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6.7	-2.9	-7.8	10.1	3.7	-0.2	10.5	5.4	1.1	-0.5
주택가격지수 ⁴⁾	140.0	146.1	142.8	141.6	141.0	140.0	137.3	136.9	137.6	138.6
산업생산지수 상승률 ⁵⁾ (%)	4.1	1.6	0.5	1.1	0.3	1.4	1.2	1.4	0.2	0.3
산업생산가동률 ⁶⁾	77.9	74.8	75.4	76.2	76.3	77.1	77.9	78.7	78.5	79.2
ISM제조업PMI	55.3	55.2	57.9	60.1	56.6	52.1	52.4	53.3	53.4	54.8
경기선행지수 ⁷⁾	104.0	109.7	111.3	113.4	114.7	93.8	94.2	95.2	95.6	95.5
실업률 ⁸⁾ (%)	9.0	9.5	9.6	9.0	9.0	9.1	8.7	8.3	8.2	8.1
포괄적 실업률(u-6) ⁹⁾ (%)	15.9	16.7	16.8	15.9	16.0	16.2	15.6	14.8	14.5	14.5
비농업취업자 증감 ¹⁰⁾ (천 명)	460	-136	461	576	389	383	492	677	143	77
실업수당 청구자수 ¹¹⁾ (만 명)	40.9	46.0	43.4	41.4	42.4	41.0	39.0	36.9	36.5	38.4
소비자물가 상승률 ¹²⁾ (%)	3.2	1.2	1.3	2.1	3.4	3.8	3.3	2.8	2.7	2.3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0.9	0.7	1.1	1.5	1.9	2.2	2.2	2.3	2.3
생산자물가 상승률 ¹²⁾ (%)	6.0	3.8	3.8	4.9	6.9	6.9	5.4	3.4	2.8	1.9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2.4	1.5	1.4	1.8	2.2	2.7	3.0	3.0	2.9	2.7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정조정, 2000.1=100 5)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6) 2007=100, 7) 2004=100, 2011 3/4분기부터 지수항목 조정, 8) 16세 이상, 계절조정, 9)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10)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감, 11) 해당 기간의 청구자수 평균, 1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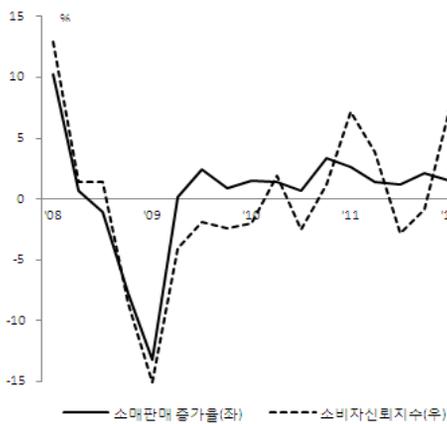
4) FOMC(2012, 6),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내수부문〉

■ 2012년 1/4분기 내수부문에서는 고용시장 개선으로 소매판매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주택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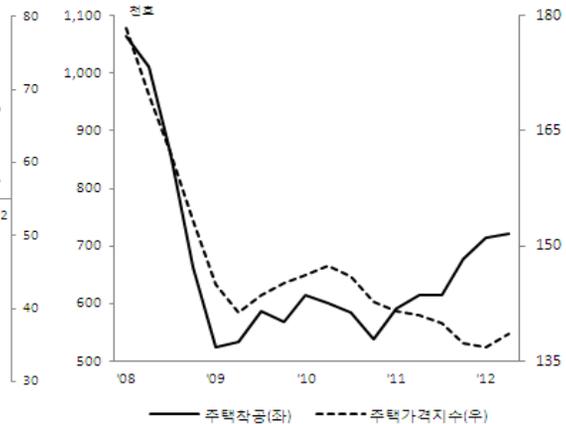
-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여건 개선과 개인소득 증대⁵⁾에 힘입어 전분기 53.6에서 67.5로 상승하였고,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1.5% 증가함.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 137.3에서 136.9로 하락하였으나,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⁶⁾와 주택착공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주택 재고는 감소함.⁷⁾

〈그림 6〉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증가율, 소비자신뢰지수는 1985=100
 자료: U.S. Census Bureau, Conference Board.

〈그림 7〉 주택시장 추이



주: 주택가격은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S&P/Case-Sh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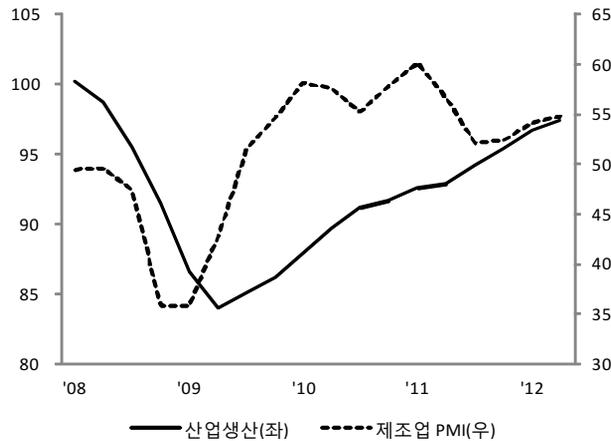
〈생산부문〉

■ 2012년 1/4분기 생산부문에서는 기업 체감지수가 개선되고 산업생산이 전분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해외수익 감소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증가폭은 제한됨.

5) 2011년 4/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4% 증가하였으며 2012년 1/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9% 증가함.
 6) 전분기대비 각각 7.3%, 4.6% 증가함.
 7) 2011년 4/4분기 -15.3%에서 2012년 1/4분기 -8.2%로 재고 감소함.

- 산업생산지수는 전분기대비 1.4% 높아져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산업생산가동률지수 역시 전분기보다 0.8p 상승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고용지수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52.4에서 53.3으로 상승함.

〈그림 8〉 산업생산지수와 제조업 PMI



자료: U.S. Census Bureau,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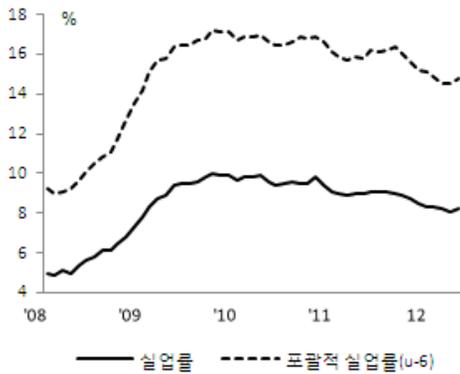
〈고용과 물가〉

- 2012년 1/4분기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전분기에 이어 개선세가 지속됨.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8.3%를 기록하였으며, 구직포기자와 비자발적 임시직 실업을 반영하는 포괄적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하여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4%대에 진입함.
 -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 49만 2천 명에서 67만 7천 명으로 늘어남.
 - 실업수당 청구자(월 평균)는 전분기 39만 명에서 36만 5천 명으로 감소함.

- 2012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세 둔화로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로 전분기보다 0.4%p 낮은 2.8%를 기록함.

- 근원소비자물가는 주거비⁸⁾ 등의 상승으로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2.2% 상승함.
- 에너지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4.6% 상승하였으나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6.5%p 낮아짐.

〈그림 9〉 실업률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그림 10〉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U.S. Census Bureau.

8) 경기회복 부진으로 주택 구매보다는 임대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

나. 유로경제

2012년 1/4분기 유로경제는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 은행신용 축소, 정부재정 감축 등으로 내수 부문이 부진해지면서 전분기의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출을 제외한 내수 전반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분기대비 0.0% 상승에 그침.

- 민간소비는 소비자 체감경기 및 고용여건 악화, 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0% 증가함.
- 고정자본투자는 기업수익 감소, 기업 체감경기 악화,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설비투자 및 주택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전분기대비 1.4% 감소함.
- 정부지출은 각국의 재정감축 노력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0.2% 증가에 그침.
- 수출은 역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미국과 남미지역에서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1.0% 늘어났으며, 수입은 내수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1/4
EA17 GDP	1.9	1.4	0.4	0.9	0.4	0.3	0.8	0.1	0.1	-0.3	0.0
민간소비	0.9	0.2	0.2	0.1	0.3	0.4	0.1	-0.4	0.3	-0.5	0.0
고정자본	-0.5	1.4	-0.4	1.9	0.2	-0.3	1.7	-0.1	-0.3	-0.4	-1.4
정부지출	0.5	0.1	-0.4	0.2	0.1	0.0	0.1	0.1	-0.2	-0.1	0.2
수출	11.3	6.1	3.1	4.6	2.1	1.5	1.3	1.2	1.4	-0.7	1.0
수입	9.6	3.9	3.5	4.2	1.6	1.5	0.7	0.4	0.7	-1.7	0.1

자료: 유럽중앙은행.

■ 2011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하였던 독일 및 북유럽 국가들은 고용여건 개선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2년 1/4분기 플러스 성장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함.

- 1/4분기 독일 경제는 민간소비 지출(0.4%) 및 수출 증가(1.7%)가 투자지출 감소(-1.1%)를 상쇄하여 전분기대비 0.5% 성장함.
- 1/4분기 이탈리아(-0.8%)와 스페인(-0.3%) 등 남유럽 국가들은 대내외 경제 전반의 부진 심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됨.

〈표 4〉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GDP	3.7	3.0	0.5	1.9	0.8	0.5	1.3	0.3	0.6	-0.2	0.5
민간소비	0.6	1.4	-0.0	0.8	0.3	0.7	0.5	-0.7	1.2	-0.2	0.4
고정자본	5.5	6.4	0.2	5.7	1.6	-0.2	4.0	0.0	0.3	1.1	-1.1
수출	13.7	8.2	3.4	7.0	2.0	1.0	1.6	2.7	2.6	-1.5	1.7
수입	11.7	7.8	5.8	6.2	0.9	1.3	1.0	2.9	2.7	-0.8	0.0
프랑스 GDP	1.4	1.7	0.1	0.5	0.4	0.3	0.9	-0.1	0.3	0.1	0.0
민간소비	1.3	0.3	0.1	0.0	0.7	0.4	0.2	-1.0	0.3	0.1	0.2
고정자본	-1.4	2.9	-1.2	1.2	0.9	0.3	1.1	0.6	0.2	1.3	-0.8
수출	9.3	5.0	4.5	3.1	2.2	0.4	1.4	0.7	1.2	1.1	0.3
수입	8.3	5.0	1.5	3.3	3.8	0.2	2.8	-1.0	0.7	-1.4	0.7
이탈리아GDP	1.5	0.5	1.0	0.6	0.4	0.2	0.1	0.3	-0.2	-0.7	-0.8
민간소비	1.2	0.2	0.4	-0.1	0.9	0.3	0.2	-0.2	-0.4	-0.9	-1.0
고정자본	1.7	-1.2	2.2	0.2	0.6	-1.2	0.9	-0.4	-1.2	-2.6	-3.6
수출	11.4	6.3	3.3	3.8	2.3	3.0	0.6	0.6	1.8	-0.1	-0.6
수입	12.4	1.0	4.2	3.2	2.2	4.9	-1.8	-1.6	-1.3	-2.8	-3.6
스페인 GDP	-0.1	0.7	0.2	0.3	0.1	0.2	0.4	0.2	0.0	-0.3	-0.3
민간소비	0.8	-0.1	-0.1	0.9	-0.7	0.7	-0.5	0.2	0.2	-1.0	0.0
고정자본	-6.3	-5.1	-0.9	-0.6	-1.9	-2.0	-0.4	-1.1	-0.4	-4.3	-2.6
수출	13.5	9.1	3.7	4.6	3.8	2.1	2.0	0.7	4.1	-1.6	-0.9
수입	9.0	-0.1	2.1	5.4	0.0	0.3	0.1	-1.8	2.3	-6.5	-1.3
영국 GDP	1.4	0.8	0.4	1.1	0.7	-0.5	0.2	-0.1	0.6	-0.3	-0.3
민간소비	0.8	-0.8	0.0	0.8	0.1	-0.3	-0.9	-0.4	-0.3	0.4	0.1
고정자본	3.0	-1.7	5.4	-2.8	0.9	0.0	-0.9	-0.1	0.6	-0.6	-0.3
수출	5.3	4.8	-0.3	3.7	0.2	3.9	1.4	-2.2	0.0	1.6	0.1
수입	8.5	0.6	2.3	2.8	2.6	1.6	-1.7	-0.6	0.2	0.9	0.4

자료: 독일통계청, 프랑스통계청, 이탈리아통계청, 스페인통계청, 영국통계청.

■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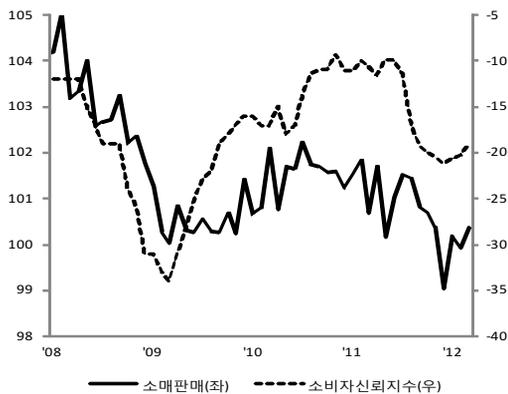
- 1/4분기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는 재정위기 확산, 은행의 신용축소, 가계와 기업의 부채조정, 고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월에도 하락함으로써 경기침체는 2/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ECB⁹⁾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5~0.3%와 0.0~2.0%로 전망함.

〈내수부문〉

■ 2012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지역간 체감경기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지역 평균으로는 정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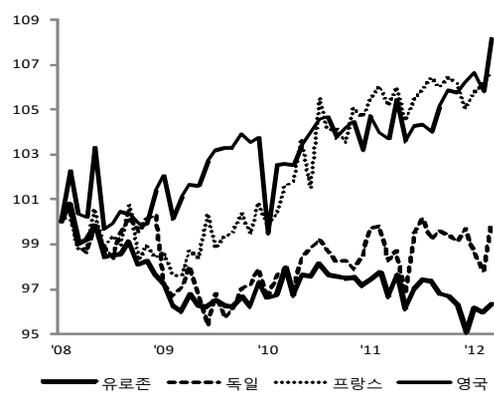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가 -20.0을 기록하여 유로지역 소비자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나, 독일(-0.3)과 북유럽(6.0) 국가의 소비자 체감경기는 개선됨.
- 1/4분기 소매판매는 주요국 및 북유럽 국가에서는 호조세를 보인 반면, 남유럽 국가에서 부진해져, 평균적으로 전분기대비 0.1% 증가함.

〈그림 11〉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지수는 2005=100, 소비자신뢰지수 장기평균=-12.0
 자료: eurostat(2012, 6).

〈그림 12〉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주: 소매판매지수(2005=100)를 2008.1=100으로 환산.
 자료: eurostat(2012, 6).

9) ECB(2012, 6), Monthly Bulletin,

〈표 5〉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3/4	4/4	1/4	2/4	3/4	4/4	1/4	3월	4월
유로지역 ESI ¹⁾	101.0	102.3	105.7	106.9	105.2	98.4	93.6	94.1	94.5	92.9
소매판매 증가율 ²⁾ (%) 소비자신뢰지수 ³⁾	-0.6 -14.6	0.5 -12.1	-0.4 -10.4	-0.1 -11.0	-0.4 -10.7	0.3 -15.9	-1.2 -20.6	0.1 -20.0	0.4 -19.1	-0.3 -19.9
산업생산 증가율 ⁴⁾ (%) 제조업기대지수 ⁵⁾	3.4 9.4	1.6 11.3	1.7 16.8	1.0 18.7	-0.1 13.1	0.6 5.2	-2.0 0.6	-0.4 2.1	0.2 1.5	-0.2 -1.6
실업률 ⁵⁾ (%)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10.2 2.7	10.1 1.7	10.1 2.0	9.9 2.5	10.0 2.7	10.2 2.7	10.6 2.9	10.9 2.7	11.0 2.7	11.0 2.6
독일 ESI ¹⁾	110.4	110.7	115.2	116.1	114.2	107.5	103.7	105.9	104.3	103.3
소매판매 증가율 ²⁾ (%) 소비자신뢰지수 ³⁾	1.1 4.3	0.7 2.6	-0.5 9.1	1.1 8.7	-0.9 8.9	1.3 2.2	-0.2 -2.8	-0.7 -0.3	0.0 -0.6	0.3 -2.3
산업생산 증가율 ⁴⁾ (%) 제조업기대지수 ⁵⁾	7.6 12.2	2.0 18.5	2.6 23.5	1.9 24.0	1.3 17.2	1.7 6.0	-1.8 1.2	0.1 5.6	0.7 1.9	-0.1 0.7
실업률 ⁵⁾ (%)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6.0 2.5	6.9 1.2	6.7 1.6	6.3 2.2	6.0 2.5	5.9 2.7	5.6 2.7	5.5 2.4	5.5 2.3	5.4 2.2
프랑스 ESI ¹⁾	103.1	101.7	105.7	109.3	107.9	100.5	94.6	93.6	95.6	95.3
소매판매 증가율 ²⁾ (%) 소비자신뢰지수 ³⁾	2.7 -22.5	2.2 -19.3	-0.2 -17.2	1.1 -19.1	-0.2 -18.0	0.7 -24.3	-0.2 -28.4	0.3 -24.9	0.5 -21.5	-0.2 -20.2
산업생산 증가율 ⁴⁾ (%) 제조업기대지수 ⁵⁾	1.2 11.8	0.1 5.5	0.1 13.4	1.5 20.6	-0.8 14.4	0.6 10.0	-1.1 2.3	-0.3 -1.4	0.0 0.6	0.5 -5.9
실업률 ⁵⁾ (%)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9.7 2.3	9.8 1.8	9.7 1.9	9.6 2.0	9.6 2.2	9.6 2.3	9.8 2.6	10.1 2.6	10.1 2.6	10.2 2.4
영국 ESI ¹⁾	96.5	101.5	100.7	101.8	100.9	93.9	89.2	93.0	91.5	95.7
소매판매 증가율 ²⁾ (%) 소비자신뢰지수 ³⁾	1.4 -21.4	1.0 -15.7	-0.4 -17.5	0.2 -22.4	0.3 -18.6	0.1 -20.0	1.4 -24.4	0.9 -21.7	0.6 -22.2	-0.1 -24.4
산업생산 증가율 ⁴⁾ (%) 제조업기대지수 ⁵⁾	-0.5 12.0	0.2 11.4	0.9 19.4	-0.2 23.6	-1.5 18.1	0.1 10.3	-1.2 -4.0	-0.4 13.2	-0.2 17.4	0.0 17.5
실업률 ⁵⁾ (%)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8.0 4.5	7.7 3.1	7.7 3.4	7.7 4.1	7.9 4.4	8.2 4.7	8.3 4.7	8.1 3.5	8.1 3.5	- 3.0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 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5) 계절조정, 6)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2. 6);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생산부문〉

■ 2012년 1/4분기 산업생산 역시 지역간 기업 체감경기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지역 평균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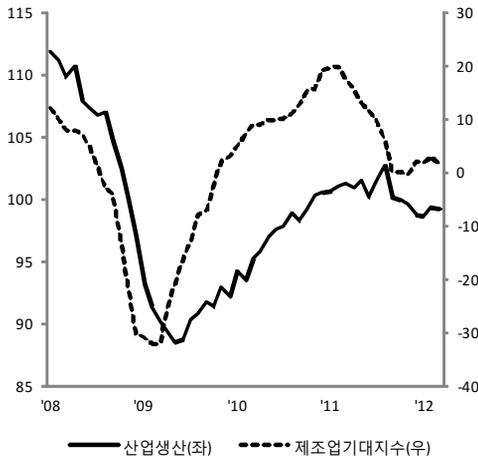
○ 1/4분기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동유럽(0.8%) 국가를 제외한 북유럽(0.0%) 국가, 남유럽(-1.0%) 국가의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감소하거나 정체됨.

○ 1/4분기 유로지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2.1을 기록하여 전분기(0.6) 보다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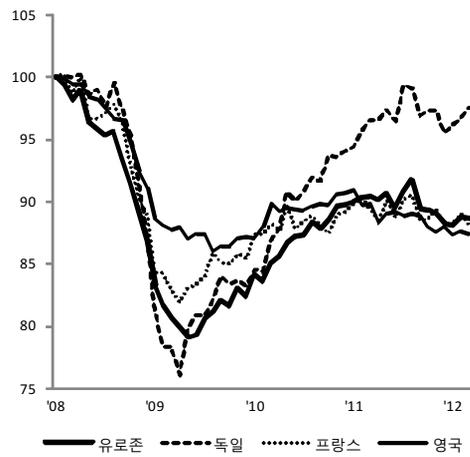
- 독일(1.2 → 5.6), 영국(-4.0 → 13.2), 북유럽 국가들의 제조업기대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그 이외 국가들¹⁰⁾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그림 13〉 유로지역의 산업생산과 제조업기대지수



주: 산업생산은 2005=100, 제조업기대지수 장기평균=6.4
자료: eurostat(2012, 6).

〈그림 14〉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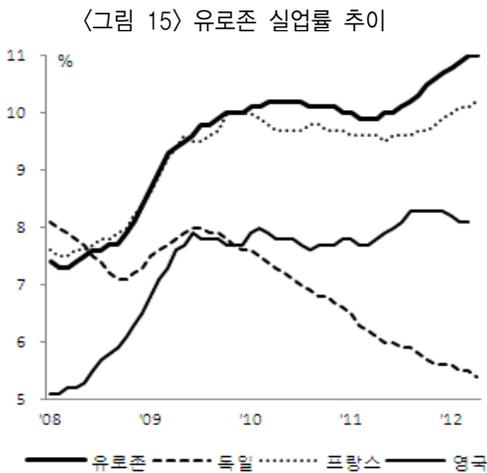
주: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2008, 1=100으로 환산.
자료: eurostat(2012, 6).

10) 스페인(2011년 4/4분기 -5.3 → 2012년 1/4분기 -3.7), 이탈리아(2011년 4/4분기 0.2 → 2012년 1/4분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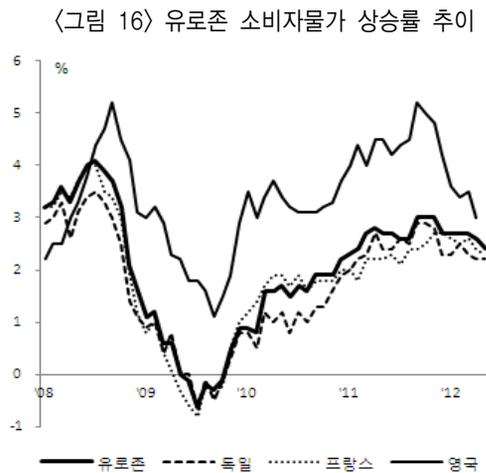
〈고용과 물가〉

■ 2012년 1/4분기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은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 상승세가 독일 및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 하락폭을 상회하여 전분기대비 상승함.

- 1/4분기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은 10.9%로 전분기보다 0.3%p 상승하였으며 취업자 수 평균은 전분기대비 0.2% 감소함.
- 독일과 영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프랑스의 실업률이 상승하여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은 7.9%를 기록함.¹¹⁾
- 북유럽¹²⁾ 및 동유럽¹³⁾ 국가의 실업률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남유럽¹⁴⁾ 국가의 실업률은 상승함.



자료: eurostat(2012. 6).



자료: eurostat(2012. 6).

■ 2012년 1/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전분기보다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유럽 전역에 걸쳐 나타남.

11) 주요국: 독일(5.6% → 5.5%), 프랑스(9.8% → 10.1%), 영국(8.3% → 8.1%)

12) 북유럽(6.6% → 6.4%):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13) 동유럽(10.2% → 10.2%):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14) 남유럽(16.7% → 17.5%):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함.
 -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9.1%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10.2%p 하락하였으며,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 상승하여 전분기보다 0.1%p 높아짐.
- 유럽 전역의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를 하회하거나 같음.¹⁵⁾

15) 주요국(3.3% → 2.8%), 북유럽(1.8% → 1.8%), 동유럽(3.8% → 3.8%), 남유럽(3.2% → 2.6%)

다. 일본경제

2012년 1/4분기 일본경제는 대지진 피해 재건과 소비진작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내수 부문이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전환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1/4분기 일본경제는 대지진 피해 재건 프로그램¹⁶⁾으로 내수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분기대비 1.2% 성장함.

- 민간소비지출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체감경기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2% 증가함.
- 설비투자(전분기대비 -2.1%)와 주택투자(전분기대비 -1.5%) 지출은 정부투자 지출 확대에 구축(crowding out)되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함.
- 정부투자 지출은 지진 피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생산 시설 복구 및 주택 건설로 전분기대비 3.8% 증가함.
- 수출은 엔화강세 약화¹⁷⁾ 태국의 생산 시설 복구 등으로 전분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자본재와 화력발전 연료 수입 증가로 전분기대비 1.9% 증가함.

〈표 6〉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4.4	-0.7	1.3	1.2	0.8	0.0	-2.0	-0.4	1.9	0.0	1.2
민간소비	2.6	0.1	0.6	0.3	0.5	0.2	-1.5	0.6	1.1	0.7	1.2
설비투자	0.5	1.1	-1.0	4.8	0.9	-2.0	-0.3	-0.3	0.1	5.2	-2.1
주택투자	-4.2	5.4	3.0	0.8	0.3	4.5	1.6	-3.1	4.8	0.1	-1.5
정부지출	2.1	1.9	-0.5	1.6	0.3	0.4	0.3	0.7	0.2	0.4	0.7
정부투자	0.4	-3.6	2.3	-6.8	0.6	-2.5	-4.1	7.3	-1.0	-0.8	3.8
수출	24.2	-0.1	6.2	5.5	1.5	-0.2	-0.4	-6.3	8.7	-3.7	3.0
수입	11.1	5.9	2.5	5.9	1.8	0.2	1.2	0.2	3.5	0.9	1.9

자료: 일본 내각부(2012. 6).

16) 19조 엔(2,4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대지진 피해 재건 프로그램.

17) 2011년 말 74.4엔을 기록한 엔/달러는 일본중앙은행의 엔고저지 추가 양적완화의 일환으로 자산매입규모를 확대(2012. 2)함에 따라 2012년 3월 말 현재 82.30엔으로 상승함.

■ 지진피해 복구 관련 투자 지출, 소비 지출, 신흥국 및 원자재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일본중앙은행(BOJ)¹⁸⁾은 FY2012년과 FY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종전(2012년 1월)의 2.0%에서 2.3%로,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함.

〈표 7〉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3/4	4/4	1/4	2/4	3/4	4/4	1/4	3월	4월
소매판매 증가율 ³⁾ (%)	-1.2	3.2	-0.3	-3.0	-1.7	-1.0	0.8	5.2	10.3	5.8
소비자신뢰지수 ⁴⁾	37.7	41.5	41.0	40.5	34.4	37.3	38.5	40.0	40.0	40.7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⁵⁾ (%)	2.8	14.1	6.9	3.5	4.2	8.1	-4.5	3.8	5.0	10.3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⁶⁾ (%)	7.3	12.7	6.6	7.0	9.4	5.3	7.4	4.6	3.1	9.1
광공업생산 증가율 ⁷⁾ (%)	-3.5	-1.0	-0.1	-1.5	-4.2	5.4	0.4	1.2	0.2	-0.2
- 가동률지수 증가율 ⁷⁾ (%)	-3.9	-1.6	0.0	-2.8	-7.1	9.7	2.0	3.2	0.9	-0.4
- 재고율지수 증가율 ⁷⁾ (%)	6.4	2.1	2.1	-3.0	12.4	-3.8	-1.3	-1.7	0.8	2.9
실업률(%)	4.6	5.0	5.0	4.8	4.7	4.4	4.5	4.5	4.5	4.6
비자발적 실업자(만 명)	11.3	13.8	12.9	12.0	11.4	10.9	10.9	10.5	10.3	10.5
비농업취업자 증감 ¹⁾ (만 명)	2	18	-4	16	-36	-8	31	26	-14	-28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3	-1.0	-0.3	-0.5	-0.4	0.1	-0.3	0.3	0.5	0.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0	-1.5	-1.2	-1.4	-0.9	-0.5	-1.1	-0.7	-0.5	-0.3

주: 1)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기준치=50, 5) 전년동기대비, 6)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7)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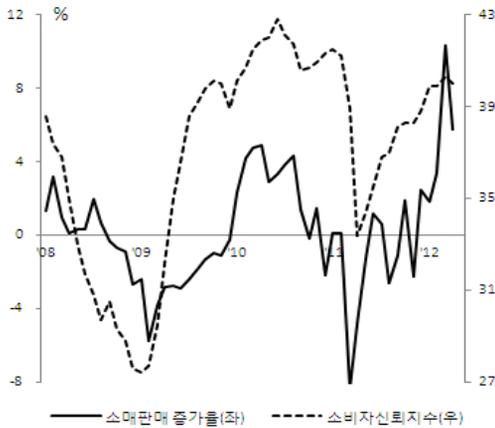
〈내수부문〉

■ 2012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소비자 체감경기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으로 전분기보다 크게 증가함.

18) Bank of Japan(2012. 6), Minutes of the Monetary Policy Meeting.
Bank of Japan(2012. 4),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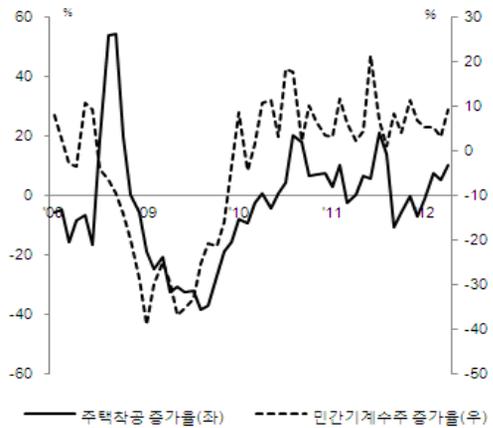
- 1/4분기 소매판매는 자동차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함.
 -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재도입으로 자동차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3.1% 증가함.¹⁹⁾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완만한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38.5) 보다 1.5p 상승한 40.0을 기록함.

〈그림 17〉 소비자신뢰지수 및 소매판매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그림 18〉 주택착공 및 민간기계수주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 2012년 1/4분기 민간기계수주와 주택착공은 정부 주도 생산시설 복구와 주택 건설로 일부 구축되면서 전분기대비 정체 또는 감소함.

- 민간기계수주액²⁰⁾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기저효과에 의해 4.6%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0.9% 증가에 그침.
- 1/4분기 주택착공호수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기저효과에 의해 3.8%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기준으로는 4.5% 감소함.

19) 경제산업성 및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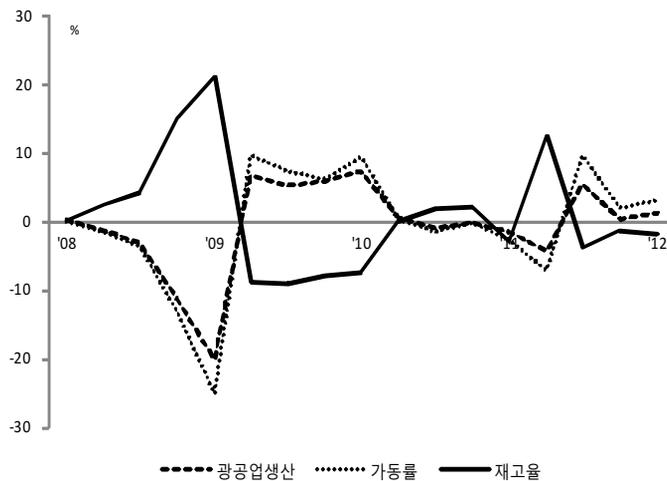
20) 선박·전력을 제외함.

〈생산부문〉

■ 2012년 1/4분기 광공업 생산은 태국 홍수로 인한 생산부문 차질이 해소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세가 커짐.

- 1/4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기저효과²¹⁾를 반영하여 3.4%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1.2% 증가함.
- 1/4분기 가동률지수 역시 전년동기대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8.6%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3.2% 증가함.

〈그림 19〉 광공업생산, 가동률 및 재고율 지수 증가율



주: 전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고용과 물가〉

■ 2012년 1/4분기 고용여건은 비자발적 실업자 감소, 취업자 증가, 구직자 취업률 상승 등이 나타나면서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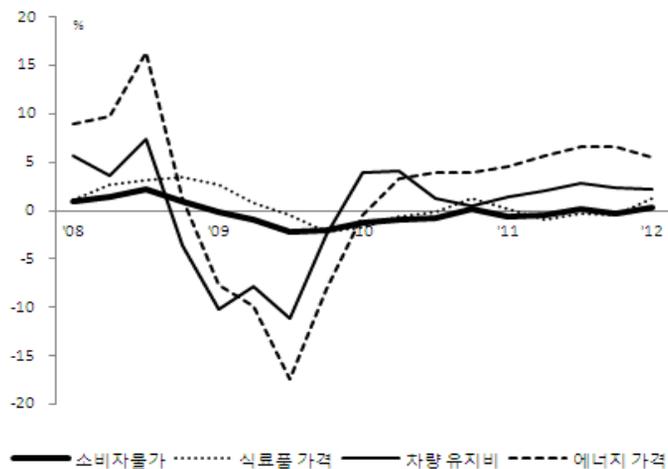
21)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동북부 지역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함.

- 1/4분기 실업률은 4.5%로 전분기와 같았으나 비자발적 실업자는 전분기(10만 9천 명)보다 4천 명 감소하였으며 비농업취업자는 전분기 보다 26만 명 증가함.
- 고용시장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구직자 취업비율²²⁾도 1/4분기 0.75%로 전분기(0.69%)보다 개선됨.

■ 2012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지진피해 복구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차량 유지비가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3% 높아짐.

- 1/4분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과 차량 유지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 5.5%, 2.3% 상승함.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요는 아직 저조하여 1/4분기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일본 내각부.

22) 내각부.

라. 중국경제

2012년 1/4분기 중국경제는 두 차례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소비 증가율 둔화로 인해 성장세 하락이 지속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2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부문 성장세 동반 둔화로 8.1%(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여 2011년 1/4분기부터 5분기 연속 하락함.
 - 고정투자 증가율은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체감경기 약화, 은행의 주택투자 대출 억제로 전분기(23.8%)보다 2.9%p 하락하였으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14.4%)보다 2.5%p 하락함.
 - 1/4분기 초반에는 주택투자 지출이 감소하였고, 후반에는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소비 지출이 감소함.
 - 수출은 유로지역과 일본의 수요 감소로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수(8.9%)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내수 부문 수요 둔화로 증가율 역시 한 자리 수(9.9%)로 낮아짐.

-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투자와 소비 증가세 둔화로 종전보다 하향 조정됨.
 - World Bank²³⁾는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012. 1)의 8.4%에서 8.2%로 낮추고, 2013년 성장률을 종전의 8.3%에서 8.6%로 상향 조정함.
 - 전문가²⁴⁾들은 4월 중 소매판매, 고정투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확대됨에 따라 2/4분기 경제성장률이 8%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23) World Bank(2012. 4), China Quarterly Update.

24) Li & Fung Research Center(2012. 5), Li & Fung China Trade Quarterly.

〈표 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1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실질 GDP(%) ²⁾	10.4	9.2	2.2(9.7)	2.3(9.5)	2.4(9.1)	1.9(8.9)	1.8(8.1)	-	-
고정자산투자 ¹⁾ (%)	24.5	23.8	25.0	25.6	24.9	23.8	20.9	20.9	20.2
수출 증가율(%)	32.3	20.7	25.3	22.4	20.7	14.4	8.9	8.9	4.9
수입 증가율(%)	14.6	25.3	32.6	23.2	24.7	20.9	9.9	5.3	0.3
소매판매 증가율(%)	18.4	17.1	16.3	17.2	17.3	17.5	15.0	15.2	14.1
소비자신뢰지수	105.5	103.8	102.4	106.8	104.7	99.3	103.0	100.0	103.0
기업체감경기지수	135.4	130.6	138.9	132.4	130.0	120.9	123.0	-	-
산업생산 증가율(%)	14.5	13.8	14.9	13.9	13.8	12.8	11.7	11.9	9.3
구매자관리지수 ³⁾	53.8	51.3	52.8	51.9	50.9	49.9	51.5	53.1	53.3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5.4	5.1	5.7	6.3	4.6	3.8	3.6	3.4
생산자물가 상승률(%)	5.5	6.0	7.0	6.9	7.1	3.1	0.1	-0.3	-0.7

주: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전분기대비 증가율,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내수부문〉

■ 2012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소비자체감경기 개선, 소득수준 개선²⁵⁾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전분기대비 둔화됨.

○ 소매판매는 소득수준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전분기대비 2.5%p 하락하는 등 둔화됨.

-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와 농촌지역 소비진작 효과 소진으로 주택 및 가전제품 판매 증가율이 하락함.²⁶⁾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103.0을 기록하여 전분기(99.3)보다 개선됨.

25) 1/4분기 도시 및 농촌의 실질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각각 9.8%, 12.7% 증가하여 증가율은 전분기(8.4%, 11.4%)를 상회함.

26) 2011년 1/4분기 21.6% → 2012년 1/4분기 2.4%

〈그림 21〉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2012년 1/4분기 주택착공 투자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²⁷⁾에 힘입어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주택가격도 전분기보다 낮아짐.
 - 1/4분기 부동산 관련 고정투자의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증가율은 23.5%로 전분기보다 0.7%p 낮아짐.
 - 2011년 4/4분기 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9개 도시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한 반면, 2012년 1/4분기 주택가격은 38개 도시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함.

〈생산부문〉

- 2012년 1/4분기 산업생산의 경우 해외수요 감소, 기업수익 감소²⁸⁾ 등 다수의 악재²⁹⁾가 겹치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1.1%p 하락한 11.7%를 기록함.

27) 과열경기 억제를 위해 M2의 증가율은 2011년 2/4분기 15.4%, 3/4분기 13.7%, 4/4분기 13.1%, 2012년 1/4분기 12.9%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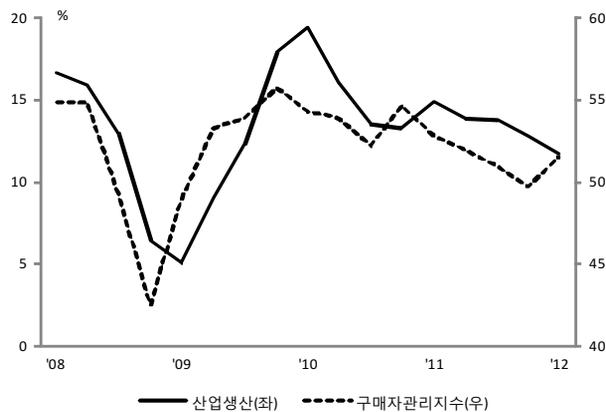
28) 1/4분기 대기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함.

29) 기업수익 감소, 통화 및 신용 긴축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부족, 임금비용 상승.

■ 2012년 1/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³⁰⁾는 전분기(49.9)에서 반등함으로써 2/4분기 산업생산 증가 둔화세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임.

- 1/4분기 PMI(51.5)는 기업체감경기 상승세(120.9 → 123.0)를 반영하여 국내 신규주문, 수출주문, 부품구매,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50을 상회함에 따라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51.5를 기록함.

〈그림 22〉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



주: 구매자관리지수 기준=50,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2012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소비수요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공공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주거비 하락으로 상승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 주거비, 교통·통신비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분기에 비해 0.8%p 낮은 수준임.

- 식료품가격(9.9% → 8.1%), 주거비(3.2% → 2.0%), 교통·통신비(0.5% → 0.2%) 등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전분기대비 하락함.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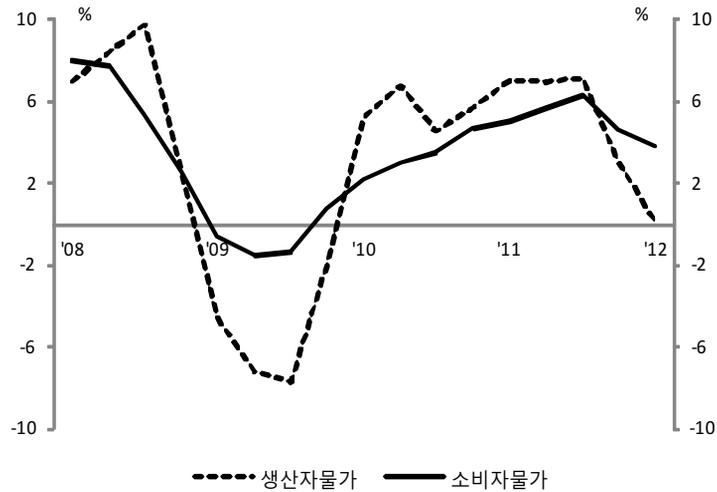
30)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31) 중국 국가통계국.

■ 2012년 1/4분기 생산자물가는 원자재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됨.

- 원자재가격 상승률은 전분기 5.5%에서 1.0%로 크게 하락하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 상승에 그침.

〈그림 23〉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주: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2년 1/4분기 실질GDP는 민간소비와 수출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함.

■ 2012년 1/4분기 실질GDP는 민간소비와 수출증가율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8%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약품 등 비내구재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5%p 높은 1.6%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3.0%에 크게 미치지 못함.

〈표 9〉 실질 GDP와 지출 항목별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4.9 (0.6)	6.3	4.2 (1.3)	3.5 (0.8)	3.6 (0.8)	3.3 (0.3)	3.6	2.8 (0.9)
- 민간소비	3.0	4.4	2.9	3.0	2.1	1.1	2.3	1.6
- 설비투자	16.9	25.7	10.3	7.7	1.2	-3.3	3.7	8.6
- 건설투자	-5.2	-3.7	-11.0	-4.2	-4.0	-2.1	-5.0	1.5
-재화수출 ³⁾	17.4	16.0	18.6	10.9	10.3	3.8	10.5	4.0
-재화수입 ³⁾	16.0	18.4	13.8	10.0	8.0	3.5	8.7	4.6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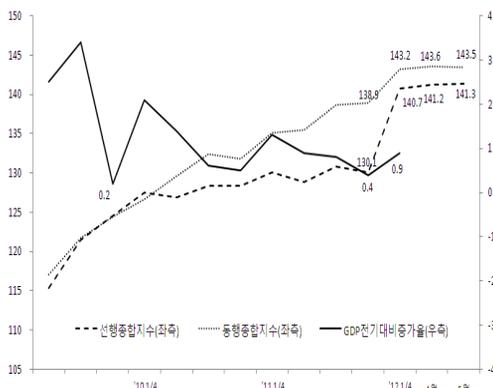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8.6%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부진세를 이어갔으나 건물건설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1.5% 증가하였음.
- 재화수출은 자동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4.0% 증가하였으며, 재화수입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4.6% 늘어남.

■ 2012년 5월 경기동행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는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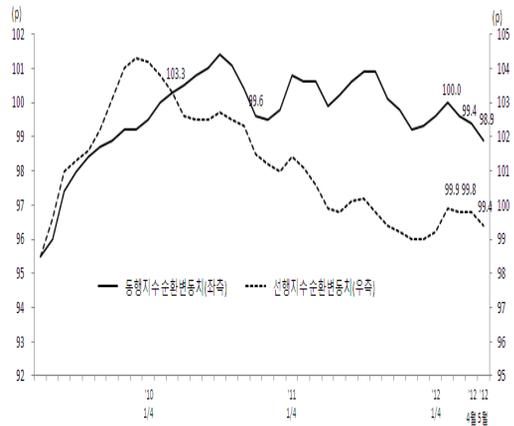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는 건설기성액,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 하락한 143.5를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5p 하락한 98.9로 나타났음.
- 5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수출입물가비율³²⁾,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한 141.3을 기록하였으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p 하락한 99.4로 나타났음.

〈그림 24〉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5〉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5월 소매판매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전월보다 1.9%p 늘어난 2.2% 증가함.

-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1/4분기동안 전년동기대비 3.6% 늘어났으나 4월에는 0.3% 증가하는데 그쳤고, 5월에는 4.7% 증가하였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1/4분기 전년동기대비 0.7% 늘어났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0.7% 감소, 1.7% 증가하였음.
-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1/4분기 2.3% 증가하였고, 4~5월 차량연료, 의약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1.5%, 1.4% 증가하였음.

32) 수출입물가비율 = 수출물가지수 ÷ 수입물가지수 × 100

〈표 10〉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매판매	6.6	5.1	5.7	4.4	1.5	4.1	2.0	0.3	2.2
- 내구재	14.9	12.9	17.5	10.4	3.0	10.7	3.6	0.3	4.7
* 승용차	11.1	10.2	13.0	8.3	-7.7	5.5	-7.4	-7.3	6.3
- 준내구재	6.8	6.1	5.6	4.0	2.2	4.4	0.7	-0.7	1.7
- 비내구재	2.2	0.8	-0.4	2.0	1.4	1.0	2.3	1.5	1.4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1/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였으나, 국내기계수주는 2.4% 감소하였음.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 기타기기 등이 증가하여 2012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4월에 특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4.6% 증가하였으나, 5월에는 일반기계류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1.2% 감소하였음.
- 운송장비의 경우 2012년 1/4분기 기타운송장비 등의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2.9% 줄어들었으나, 4월에는 10.5% 증가하였다가 5월에는 기타운송장비의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2.8% 하락세로 전환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2012년 1/4분기 2.4% 감소하였으며 4월에 공공부문의 공공운수업(자동창고시스템)과 민간부문의 기타운송장비(선박용내연기관)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등에서 발주가 줄어들면서 6.9% 감소세를 이어갔고 5월에 공공운수업(고압차단기), 1차금속제조업 등의 발주가 줄어들면서 11.1% 감소하여 감소폭이 커졌음.

〈표 11〉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설비투자지수	25.1	6.6	4.8	-3.5	-11.4	-3.7	9.3	5.4	-1.5
- 기계류	30.5	6.8	7.0	-3.5	-10.7	-4.7	11.8	4.6	-1.2
- 운송장비	4.3	5.6	-5.7	-3.2	-14.5	0.8	-2.9	10.5	-2.8
국내기계수주	8.9	20.9	11.5	13.1	17.7	36.2	-2.4	-6.9	-11.1
건설투자	-1.4	-11.9	-6.8	-4.6	-4.0	-6.5	1.5	-	-
- 건설기성	-3.3	-12.6	-6.6	-8.4	-0.5	-6.7	-3.7	-8.0	-6.5
건축	-7.1	-15.1	-8.4	-8.0	-2.8	-8.4	-1.1	-11.5	-7.4
토목	2.2	-9.2	-4.2	-8.8	2.2	-4.5	-6.9	-3.1	-5.3
- 국내건설수주	-18.7	-11.8	-1.7	1.5	22.4	4.0	36.6	-4.4	2.9
건축	-9.9	-7.7	-2.5	9.8	40.6	10.9	31.3	-3.2	5.4
토목	-29.5	-17.2	0.1	-11.0	-1.1	-6.6	44.5	-7.5	-5.4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1/4분기의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 저조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공동주택, 발전·통신과 민간부문의 발전 등의 발주 증가로 36.6% 늘어남.

○ 2012년 4월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8.0% 감소하였으며 5월에도 6.5% 감소하였음.

- 건설기성 발주자별로는 2012년 1/4분기 공공부문이 2.3%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은 6.9% 증가하였으며, 2012년 4월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4.2%, 4.0% 감소하였으며 5월에는 공공부문이 0.1%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이 5.3% 감소하였음.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1/4분기 공공부문의 공동주택, 발전·통신과 민간부문의 발전 등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36.6% 증가세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 4월에는 민간부문에서의 사무실, 기계설치 등의 발주가 감소하여 4.4% 감소하였고, 5월에는 주택, 연구소 등의 발주가 증가하여 2.9% 증가하였음.

〈대외거래〉

■ 2012년 5월 수출(확정치)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471억 달러, 수입은 1.1% 감소한 44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2억 6,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음.

○ 수출은 철강제품(7.1%), 기계류와 정밀기기(5.7%), 승용차(3.2%) 및 컴퓨터(19.3%)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선박(-19.4%), 무선통신기기(-30.1%) 및 가전제품(-9.3%) 등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수입은 소비재(-0.2%)는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원유(18.2%) 등 연료(13.7%)의 수입 증가로 원자재(2.3%)의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본재(-8.7%)는 다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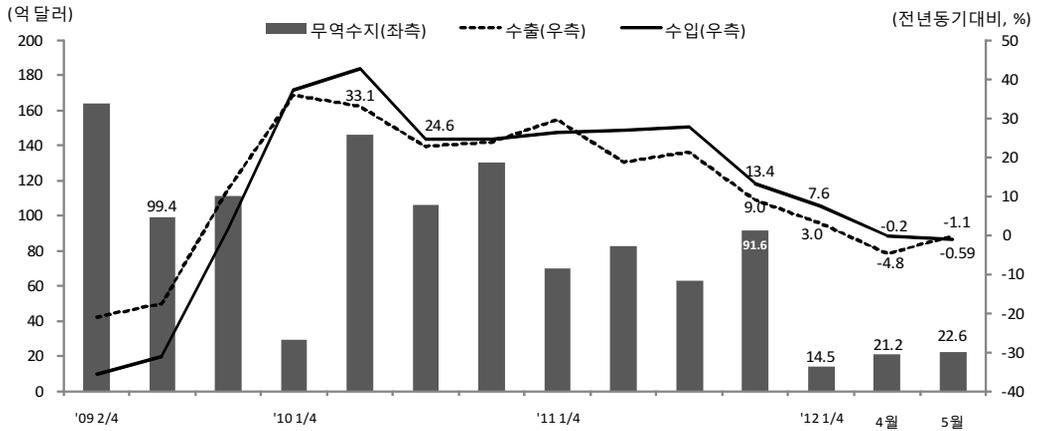
〈표 12〉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원료 및 연료	38.1	64.8	73.5	66.1	40.2	60.2	23.4	-11.3	-1.2
	중화학 공업품	28.3	27.5	14.1	15.5	6.3	15.2	-0.2	-4.4	-1.0
	- 철강제품	26.0	36.4	25.8	39.4	23.4	30.7	7.1	4.7	7.1
	- 기계류와 정밀기기	34.4	38.2	23.0	25.5	13.7	24.1	8.4	3.1	5.7
	- 전기·전자제품	27.2	9.4	3.2	-0.5	-3.6	1.8	-5.5	-8.3	-3.4
	(가전제품)	30.5	11.7	-1.0	12.0	-6.2	4.1	-15.7	-11.7	-9.3
	(정보통신기기)	-4.7	3.7	15.6	10.5	-22.3	0.2	-23.3	-27.4	-23.1
	· 컴퓨터	17.1	-4.9	-6.6	24.4	-5.7	0.9	0.6	-3.1	19.3
	· 무선통신기기	-10.3	14.6	29.4	-6.8	-27.6	-0.9	-26.6	-32.9	-30.1
	(반도체)	61.2	13.9	-3.3	-10.1	-1.7	-1.1	-2.7	-8.2	1.1
	- 수송장비	27.5	47.5	13.6	19.7	8.0	20.6	-1.5	-6.5	-4.9
	(승용자동차)	41.9	33.7	27.1	30.8	25.1	28.8	27.3	12.9	3.2
(선박)	10.0	69.7	4.9	7.6	-5.8	15.7	-25.4	-24.2	-19.4	
전체	28.3	29.9	19.4	20.8	9.7	19.3	3.0	-4.8	-0.6	
수입	- 소비재	23.9	28.9	28.1	32.4	14.6	25.6	6.3	-2.7	-0.2
	- 원자재	34.1	31.7	35.6	38.2	21.0	31.4	8.9	-0.0	2.3
	- 자본재	29.8	12.9	12.6	8.4	-0.7	7.9	4.8	0.2	-8.7
	전체	31.6	26.3	27.1	27.7	13.4	23.3	7.5	-0.2	-1.1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그림 26〉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 2012년 5월 지역별 수출입은 일본, 동남아, 중동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EU, 중동 등에서 늘어남.

- 지역별 수출의 경우 중동(24.4%), 동남아(4.6%) 및 동구권(7.9%) 등 신흥국에서 호조세를 보임.
- 지역별 수입의 경우 중동(13.7%)지역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EU(13.2%)도 증가하였으나 미국(-14.4%), 중국(-8.9%), 일본(-4.4%)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음.

〈표 13〉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5월	증감률	1~5월	증감률	5월	증감률	1~5월	증감률
미 국	47.4	-8.3	257.3	12.6	38.3	-14.4	195.9	7.1
일 본	31.0	1.5	159.7	2.8	53.2	-4.4	276.5	-1.6
E U	45.8	-0.5	216.2	-15.2	45.5	13.2	206.9	9.3
동남아	110.4	4.6	515.3	4.9	54.1	-5.2	287.9	-1.2
중 동	34.1	24.4	154.0	18.9	115.6	13.7	557.8	19.0
중 국	107.4	-4.9	525.3	-1.3	70.8	-8.9	339.9	-4.7
중남미	32.3	-3.1	161.9	-1.6	17.0	-6.1	85.0	-1.4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2년 1/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3.8%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2.5% 높아졌음.

- 광공업 생산의 경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14.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4.5%) 등이 호조를 보임.
 - 광공업 생산지수는 2012년 4월에 보합세를 보인 후 5월에 2.6% 증가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5.1%), 도매 및 소매업(2.0%) 등이 호조를 보임.
 -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2년 4월 1.0%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5월 2.2%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됨.

〈표 14〉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광공업	16.3	10.4	7.2	5.3	5.0	6.9	3.8	0.0	2.6
- 제조업	16.8	10.6	7.3	5.3	5.3	7.0	4.2	0.0	2.7
- 자동차	23.2	15.5	11.9	16.0	12.6	13.8	10.5	4.2	8.8
- ICT	25.2	13.8	9.9	4.5	12.4	10.0	6.4	0.5	1.7
서비스업	3.9	2.8	3.2	4.5	2.7	3.3	2.5	1.0	2.2
- 도매 및 소매업	5.7	4.2	5.0	3.6	2.8	3.8	2.0	-3.0	1.1
- 운수업	11.9	7.2	3.5	4.2	0.9	3.9	0.3	-2.0	2.1
- 숙박 및 음식점업	1.2	-1.2	0.5	0.1	-1.3	-0.5	-0.8	0.0	0.1
- 금융 및 보험업	4.6	7.0	7.1	9.1	5.9	7.3	5.1	0.1	2.9
- 부동산 및 임대업	-8.5	-19.7	-10.8	-1.3	-6.0	-10.2	-8.1	-5.5	-4.4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하였으며, 고용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2012년 1/4분기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늘어남.

-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3.0%)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2.4%를 기록하였음.
 -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5.8%, 공업제품은 3.5%, 전기·수도·가스는 4.6%, 집세는 4.5%, 공공서비스는 0.7%, 개인서비스는 0.6%로 나타남.
- 2012년 2/4분기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10.2p 높아진 104.2로 나타났음.

〈표 15〉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소비자기대지수(p)	125.2	130.8	105.0	101.9	95.9	95.5	99.6	94.0	104.2
소비자물가지수	3.2	3.0	3.8	4.0	4.3	4.0	4.0	3.0	2.4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품	5.4	4.6	5.7	5.4	6.1	5.4	5.7	4.1	4.0
- 농축수산물	18.1	10.0	16.0	9.1	9.5	2.8	9.2	2.3	5.8
- 공업제품	2.3	3.2	3.8	4.6	5.5	5.8	4.9	4.3	3.5
- 전기·수도·가스	-	-	3.2	4.4	4.6	6.8	4.8	5.7	4.6
서비스	1.9	1.9	2.3	2.8	2.9	2.7	2.7	2.2	1.3
- 집세	2.3	1.9	2.7	3.7	4.4	5.0	4.0	5.0	4.5
- 공공서비스	0.7	1.2	0.1	-0.4	-0.5	-1.0	-0.4	-0.2	0.7
- 개인서비스	2.3	2.2	3.2	3.9	3.9	3.8	3.7	2.4	0.6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2년 1/4분기 취업자 수의 경우 무상보육 등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함.

○ 2012년 1/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고, 2012년 4월과 5월에도 각각 1.9%씩 늘어남.

- 청년 취업자 수는 2011년 감소하였으나 2012년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1/4분기 고용률은 57.8%, 4월 59.7%, 5월 60.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8%, 4월 3.5%, 5월 3.1%를 보이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 청년실업률은 2012년 1/4분기에 8.2%를 나타낸 후 2012년 4월 8.5%, 5월 8.0%를 기록하였음.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음.

○ 2012년 1/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6% 줄어들었으며, 2012년 4월 1.8%, 5월 1.2% 감소세를 보였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

○ 2012년 1/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7% 줄어들었으며, 2012년 4월 2.0%, 5월 1.6% 감소세를 보였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1/4분기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음.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등 공공주택 수주 증가로 2012년 1/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으나, 4월과 5월에는 각각 3.0%, 1.8%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표 16〉 고용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1.4	1.8	1.7	1.5	2.0	1.7	2.0	1.9	1.9
- 청년취업자	-1.1	-1.2	-1.9	0.0	-0.5	-0.9	0.1	0.7	0.5
고용률	58.7	57.4	59.9	59.5	59.4	59.1	57.8	59.7	60.5
실업률	3.7	4.2	3.4	3.1	2.9	3.7	3.8	3.5	3.1
- 청년실업률	8.0	8.8	7.9	6.7	7.1	7.6	8.2	8.5	8.0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5.0	-2.3	0.2	-2.9	-1.5	-1.6	-2.6	-1.8	-1.2
광공업	4.9	5.8	2.7	-0.5	-2.0	1.5	-2.7	-2.0	-1.6
- 제조업	5.0	5.8	2.8	-0.3	-1.8	1.6	-2.5	-2.0	-1.6
SOC 및 기타서비스업	1.2	1.2	1.6	2.4	3.2	2.1	3.4	3.1	3.0
- 건설업	1.9	-0.2	-2.3	-2.0	4.0	-0.1	4.9	3.0	1.8
- 도소매음식숙박	-1.2	-1.1	-0.1	1.0	1.8	0.4	1.8	2.5	3.0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7	1.6	3.6	6.6	5.5	4.3	4.5	2.4	2.2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2	3.0	2.8	2.8	3.1	2.9	3.7	3.7	3.5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2년 1/4분기 가계소득과 지출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늘어남.

○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2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도 3.8% 늘어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6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도 2.2% 증가하였음.

〈표 17〉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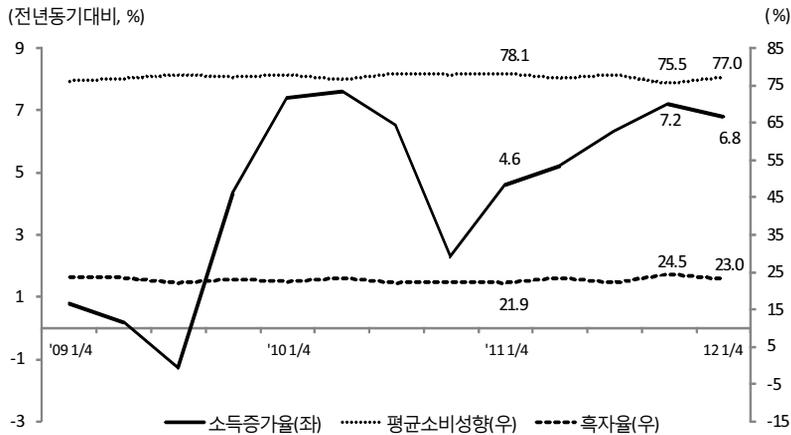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소득	2.3	5.8	4.6	5.2	6.3	7.2	5.8	6.9
(실질소득)	-1.3	2.8	0.2	0.9	1.5	3.3	1.9	3.8
- 경상소득	3.1	6.1	5.4	5.1	6.1	7.4	6.0	7.4
* 근로소득	3.3	5.4	6.8	5.4	6.3	7.6	6.5	8.2
* 사업소득	2.1	7.9	2.8	3.2	4.4	5.2	3.9	2.6
* 재산소득	30.5	-0.7	3.1	4.0	11.5	-5.8	2.7	3.7
* 이전소득	3.1	7.2	3.1	7.2	8.4	11.1	7.3	12.1
- 비경상소득	-17.1	-0.5	-8.7	7.7	13.6	3.9	2.0	-2.5
소비지출	3.6	6.3	5.2	5.1	5.8	3.9	5.0	5.3
(실질소비지출)	0.7	3.8	1.4	1.7	2.0	-0.1	1.0	2.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 2012년 1/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3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7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2% 늘어남.
-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77.0%로 전년동기보다 1.1%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함.

〈그림 27〉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2년 2/4분기 국고채 금리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감. 회사채 금리 역시 국고채와의 스프레드를 좁히며 크게 하락하였으며 기준금리는 3.25%로 동결되었음.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3.25% 으로 동결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금융위기 이후 공급된 과잉유동성이 여전히 금리동결에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하방리스크가 더욱 클 수 있다고 보고 2011년 6월 말 이후 기준금리를 12개월 연속 동결함.

- 국고채(3년) 금리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전분기 3.55%에서 3.30%로 25bp 하락하였음.
 - 국고채 금리는 유로, 미국 등 선진국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성향 증가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임.
 - 특히 유럽 재정위기 확대를 우려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강화되었으며, 이후 기준금리 수준에 근접한 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세로 마감하였음.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변동이 없고 국고채(3년) 금리를 상회한 반면 회사채(AA-, 3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국고채와의 스프레드를 줄였음.
 - 양도성 예금증서(91일)는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성 수신 수요 감소로 인해 발행물량이 감소되며 변동폭 1bp 이하의 제한적 움직임을 나타내었음(1/4분기 3.55% → 2/4분기 3.54%).

- 국고채 금리(3년)가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 크게 하락하면서 ‘양도성 예금금리-국고채’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 말 0bp에서 24bp로 확대되었음.
- 회사채 가격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상반기 중 강세가 유지되었으며 대내외 경기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회사채-국고채’ 간 스프레드는 80bp에서 57bp로 소폭 축소되었음.

〈표 18〉 금리 추이

(단위: %)

구분	'10년 4/4	'11년 4/4	'12년 1/4(A)	'12년 2/4(B)	(B)-(A)
기준금리	2.50	3.25	3.25	3.25	0.00
CD(91일) (C)	2.80	3.55	3.55	3.54	-0.01
국고채(3년) (D)	3.38	3.34	3.55	3.30	-0.25
회사채(3년, AA-) (E)	4.19	4.10	4.35	3.87	-0.48
스프레드(CD-국고채) (C-D)	-0.58	0.21	0.00	0.24	-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E-D)	0.81	0.76	0.80	0.57	-

자료: 한국은행.

〈환율〉

2012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 부각 및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하였으나 환율 수준에 대한 경계감과 미국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하며 분기 평균 1,152.3원을 기록함.

■ 원/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약세를 보임(종가기준, 1/4분기 1,133원 → 2/4분기 1,14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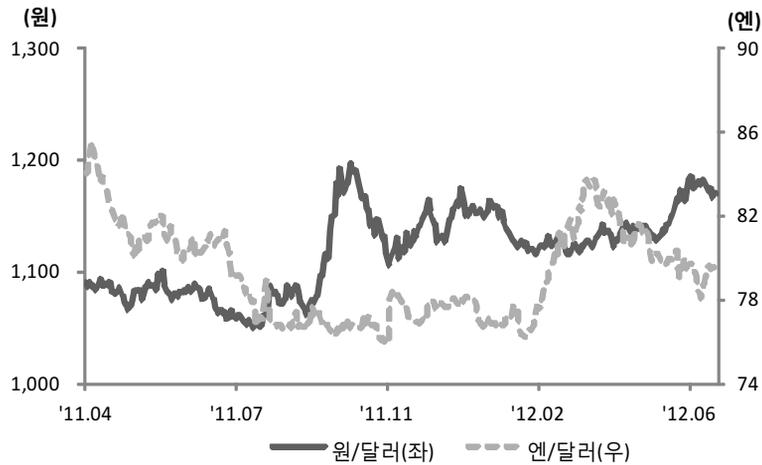
- 4월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IMF재원 확충 소식과 스페인 국채 입찰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보합으로 마감함(4/30일 1,130원).
- 5월 원/달러 환율은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큰 폭으로 상승함(5/31일 1,180원).

- 6월 원화약세에 대한 경계감과 미연준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 기조를 보였으며, 엔/달러 환율은 안전통화 선호와 달러 약세 등으로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일본 신용등급 강등, 엔화 강세 우려로 하락세가 완화되며 분기 평균 80엔을 기록함(1/4분기 82.8엔 → 2/4분기 79.7엔).

- 4월 엔화는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세를 보임(4/30일 79.8엔).
 - 5월 엔화는 전월에 이어 강세기조를 이어갔으나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규모 동결 발표 이후 약세로 전환함(5/31일 78.3엔).
 - 6월 엔화는 일본 외환당국의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 표명과 유로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며 약세기조를 지속함.
- 달러화는 분기 중 지속적으로 엔화 대비 강세, 유로화 대비 약세 기조를 유지함.

〈그림 28〉 환율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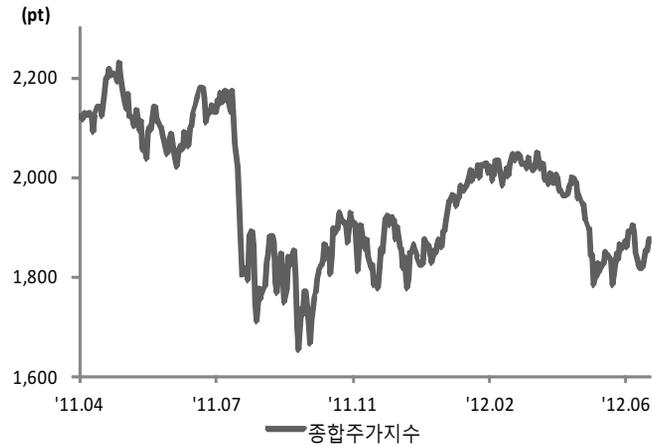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가지수〉

2012년 4월 초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주요국 경제지표의 부진과 유로지역 리스크가 부각되며 5월 중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락세를 보였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며 2/4분기 1,854pt로 마감함.

- 2012년 2/4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신용등급상향 및 유동성 호조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분기 중 종합주가지수는 유럽지역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심리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아울러 큰 폭의 외국인 주식순매수 유출입 역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켰음.
 - 국가신용등급 상향, 저가매수 유입 등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 반면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은 시장의 주요 하락요인을 제공함.
 - 4월 초 종합주가지수는 주요국 제조업지표 개선 등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힘입어 2,049pt를 기록함.
 - 이후 북한 로켓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 외국인 순매도 등이 이어지면서 약세로 전환함.
 - 5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전월에 이어 투자심리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옵션만기일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순매도 증가 등이 겹치면서 1,782pt까지 급락함.
 - 6월 종합주가지수는 투자심리 완화, 저가매수세 유입, EU·IMF 등 유럽위기 해법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스페인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감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1,854pt로 소폭 상승 마감하였음.

〈그림 29〉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자금흐름〉

2012년 1/4분기 보험권 순수수는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은행권 순수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증권·투신은 상당한 자금 유입을 보였음.

■ 2012년 1/4분기 보험권 총순수수는 1.3% 감소하였음.

- 생명보험 순수수는 수입보험료 감소분이 지급보험금 감소분을 소폭 상회하며 약 0.7% 감소함.³³⁾
- 손해보험 순수수는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 각각 전분기 대비 5.3%, 7.5% 증가하였으나 원수손해액 증가액이 원수보험료보다 커서 순수수는 전분기 대비 3.6% 감소함.³⁴⁾

33)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는 5.6%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은 -13.4% 증가하였음.

34)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원수보험료는 22.3% 증가하고 원수손해액은 34.5% 증가하였음.

■ 2012년 1/4분기 은행 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종금, 투신 역시 전분기 자금이탈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재유입되었음.

- 은행권 수신은 분기 초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기업의 결제성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소폭 증가하였음.
 - 전체 유입액 중 은행채의 순발행 규모가 컸는데 이는 만기상환된 채권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일부 은행의 은행채 판매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증권사 수신은 4월, 5월 모두 소폭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6월 들어 큰 폭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3분기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함.
- 투신권 수신은 3월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자금 유입을 나타냈으나 채권형 펀드는 은행권 투자 자금이 유출되며 다소 감소함.

〈표 19〉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4	3/4	4/4	1/4	2/4	3/4	4/4	1/1
보 험	113,206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122,280
- 생 보	79,340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96,041
- 손 보	33,866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26,239
은 행	265,044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 일 반	247,333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 신 탁	17,711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증 권	15,820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투 신	-83,616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종 금	-22,687	-13,827	9,480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³⁵⁾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1 4/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38조 5천억 원을 기록함.

- FY2011 4/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이 2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FY2011 연간 기준으로는 10.0%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5.6% 증가한 22조 4천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3.3 (4.4)	21.2 (10.8)	83.0 (7.9)	21.1 (9.5)	20.7 (7.7)	23.7 (1.5)	22.4 (5.6)	87.8 (5.8)
손해보험	14.6 (21.8)	13.3 (17.5)	52.2 (19.2)	14.1 (16.5)	14.2 (16.0)	16.6 (13.6)	16.1 (21.0)	61.0 (16.7)
합계	38.0 (10.5)	34.5 (13.3)	135.3 (12.0)	35.1 (12.2)	34.9 (10.9)	40.3 (6.1)	38.5 (11.5)	148.8 (10.0)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5) 농협보험 제외.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의 고성장과 일반손해보험의 양호한 증가세로 21.0% 증가한 16조 1천억 원을 기록함.

나. 총자산

FY2011 4/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 총자산 증가폭 확대로 전분기대비 3.9% 증가한 588조 원을 기록함.

■ FY2011 4/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주식시장 호조로 인한 생명보험 특별계정 자산 증가와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등으로 3.9% 증가하였으며, FY2011 연간 기준으로는 13.3% 증가함.

-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2011년 12월 말 1,825.74포인트를 나타내던 주가지수가 2012년 3월 말 2,014.04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특별계정 자산과 유가증권 중 주식이 증가한데 힘입어 3.5%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원수보험료 고성장 등에 힘입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5.3%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408.5	416.7	417.0	425.0	429.4	442.7	458.2	458.2
	(2.8)	(2.0)	(11.8)	(2.0)	(1.0)	(3.1)	(3.5)	(10.0)
손해보험	99.0	102.2	102.0	112.8	116.5	123.3	129.8	129.8
	(4.8)	(3.3)	(18.7)	(10.3)	(3.3)	(5.9)	(5.3)	(27.0)
합계	507.5	518.9	519.0	537.8	545.9	565.9	588.0	588.0
	(3.2)	(2.2)	(13.0)	(3.7)	(1.5)	(3.7)	(3.9)	(13.3)

주: 1) () 안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1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영업손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2.6%로 나타남.

■ FY2011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본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2.6%를 기록하였으며, FY2011 연간 기준으로는 1.5%p 하락한 10.6%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 감소로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2.5%를 기록함.
- 반면 손해보험산업에서는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되면서 3.0%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5	2.6	12.4	2.9	1.3	1.8	2.5	8.7
손해보험	1.1	3.5	11.3	5.9	3.4	2.6	3.0	16.4
합계	2.2	2.8	12.1	3.6	1.9	2.0	2.6	10.6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23개,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한 22조 3,891억 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고 사망보험 수입보험료가 플러스 증가로 전환되면서 8.2%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1.0% 감소함.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주가지수 상승으로 특별계정 자산과 유가증권 가치가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3.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12년 3월 말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등(2011년 12월 말 주가지수: 1,825.74포인트)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특별계정자산은 7.0%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 항목 중 주식이 크게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23.3	21.2	83.0	21.1	20.7	23.7	22.4	87.8
	(4.4)	(10.8)	(7.9)	(9.5)	(7.7)	(1.5)	(5.6)	(5.8)
총 자산	408.5	416.7	416.7	425.0	429.4	442.7	458.2	458.2
	(2.8)	(2.0)	(11.8)	(2.0)	(1.0)	(3.1)	(3.5)	(10.0)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 안은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1 4/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0%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사망보험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8.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0.8% 증가하면서 FY2008 2/4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몇몇 국내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16.1% 증가했으며,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 일반연금 수입보험료가 각각 10.8%, 17.7% 증가함.
 - 생존보험 초회보험료는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몇몇 대형사와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의 초회보험료 확대에 기인함.
 - 2012년 4월 경험생명표 개정과 함께 연금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국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29.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0.3% 증가에 그쳤으며, 초회보험료는 FY2011 3/4분기에 이어 40% 이상 감소함.
 -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것과 달리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2.9% 증가에 그쳤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9% 감소함.
- FY201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과 생존보험이 각각 9.7%, 5.0% 증가하고 생사혼합보험이 16.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5.9% 증가함.

■ FY2011 4/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과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1.0% 감소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로 30.4% 감소하였으며,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도 각각 78.9%, 0.3% 감소함.
- FY20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46.7% 증가한 반면 납입이 중단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92.7%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5.3% 증가에 그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44,312	44,496	170,897	40,937	43,061	43,773	51,654	179,425
	증가율	8.6	8.8	11.6	1.5	3.1	-1.2	16.1	5.0
	구성비	19.0	21.0	20.6	19.4	20.8	18.5	23.1	20.4
사망	보험료	71,895	71,632	287,162	71,520	71,649	71,772	72,171	287,112
	증가율	-1.0	-1.0	-0.8	-0.3	-0.3	-0.2	0.8	0.0
	구성비	30.8	33.8	34.6	34.0	34.6	30.3	32.2	32.7
생사 혼합	보험료	27,370	28,786	105,215	27,350	28,489	29,406	37,134	122,378
	증가율	28.8	23.1	28.2	13.1	14.5	7.4	29.0	16.3
	구성비	11.7	13.6	12.7	13.0	13.8	12.4	16.6	13.9
변액 보험	보험료	50,600	52,949	194,130	52,972	54,714	52,149	53,102	212,937
	증가율	14.0	18.9	12.9	17.8	20.0	3.1	0.3	9.7
	구성비	21.7	25.0	23.4	25.2	26.4	22.0	23.7	24.2
개인계	보험료	194,177	197,863	757,403	192,778	197,913	197,100	214,061	801,852
	증가율	8.4	9.2	8.7	6.4	7.5	1.5	8.2	5.9
	구성비	83.2	93.3	91.2	91.5	95.6	83.2	95.6	91.3
단체	보험료	39,241	14,242	72,672	17,839	9,040	39,798	9,831	76,508
	증가율	-11.9	38.6	-0.5	59.9	12.5	1.4	-31.0	5.3
	구성비	16.8	6.7	8.8	8.5	4.4	16.8	4.4	8.7
합계	보험료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236,899	223,891	878,360
	증가율	4.4	10.8	7.9	9.5	7.7	1.5	5.6	5.8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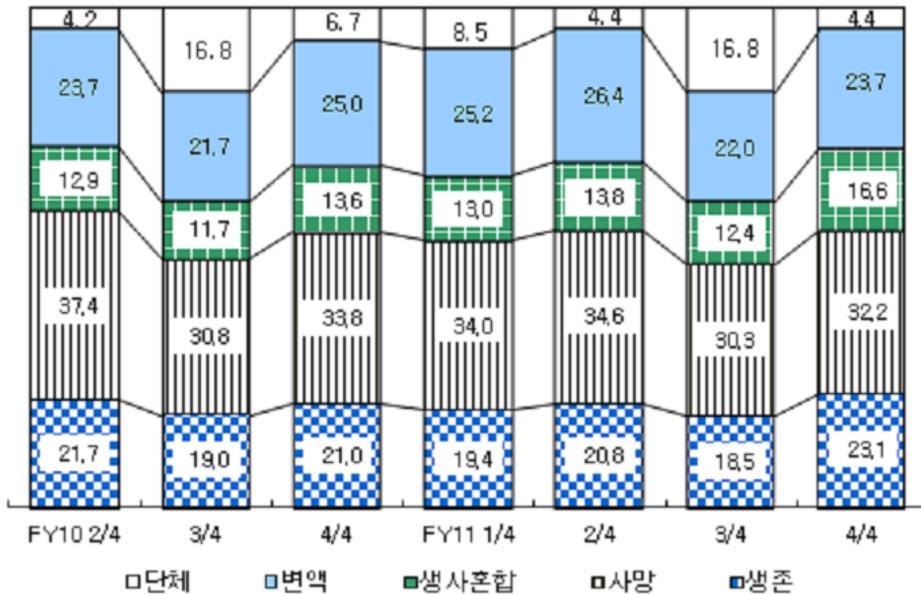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상승하고 사망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생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1%p 증가한 23.1%로 나타났으며, 생사혼합보험은 3.0%p 증가한 16.6%로 나타남.
- 단체보험 비중은 2.3%p 하락한 4.4%를 기록했으며,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비중도 각각 1.6%p, 1.3%p 하락한 32.2%, 23.7%로 나타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함.

- 국내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2.4%p 상승한 30.6%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0.9%p 하락한 50.1%로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1.2%p 하락한 20.0%로 나타남.
- 연간 기준으로도 국내 중소형사의 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FY2005 이후 7년 만에 20%대를 하회함.

■ FY2011 4/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03 감소한 0.1111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54.1	51.0	52.3	52.7	50.8	53.6	50.1	51.8
국내중소형사	27.3	28.2	26.9	27.3	29.1	28.6	30.6	28.4
외국사	18.5	21.2	20.8	20.3	20.8	18.2	20.0	19.8
허핀달지수	0.1253	0.1141	0.1186	0.1219	0.1136	0.1258	0.1111	0.1179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2년 6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1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사망보험을 제외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5%p 낮아진 56.9%로 나타남.
 - 생존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와 해지환급금 감소로 7.6%p 하락한 51.2%로 나타났으며,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만기환급금 감소로 12.6%p 하락한 39.1%를 기록함.
 - 변액보험 지급률도 해약환급금 감소로 7.9%p 하락한 59.3%로 나타났으나 사망보험 지급률은 3.9%p 상승한 56.7%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16.7%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3%p 낮아진 10.2%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 지급률	70.6	69.4	64.7	62.9	56.6	59.0	56.9	58.9
개 인 계	62.8	57.8	56.8	54.0	52.3	51.1	53.0	52.6
- 생 존	61.2	58.8	55.7	54.5	60.8	58.9	51.2	56.1
- 사 망	51.1	52.8	51.3	50.4	53.0	53.2	56.7	53.3
- 생사혼합	68.6	51.7	55.3	44.8	45.7	45.0	39.1	43.3
- 변 액	77.6	67.2	66.6	63.3	48.0	45.0	59.3	53.9
단 체	109.4	230.3	147.2	158.4	152.5	98.5	143.2	124.6
사 업 비 율	14.2	17.4	16.2	16.5	17.7	15.5	16.7	16.6
해 지 율	8.2	10.5	10.5	2.8	5.3	7.9	10.2	10.2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1조 288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1.8% 증가하였지만,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보험영업수익이 10.2%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4.6%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대손상각비와 파생상품평가손실 감소 등으로 투자영업비용이 52.4% 크게 감소했으나, 투자영업수익도 수수료수익과 유가증권 평가이익 감소로 10.5%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4.0% 감소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49,339	151,443	590,702	144,384	147,885	149,573	166,878	608,719
	투자영업	47,279	54,683	195,936	52,471	54,812	44,022	48,940	200,245
	영업외	8,969	9,481	39,752	8,977	9,034	9,017	9,611	36,638
	소계	205,587	215,606	826,390	205,831	211,731	202,612	225,428	845,602
총비용	보험영업	122,808	121,772	467,305	108,640	116,832	117,565	123,967	467,003
	투자영업	6,776	7,313	28,596	10,439	16,571	2,584	3,484	33,078
	영업외	1,381	2,031	6,566	1,763	2,377	1,714	1,527	7,381
	소계	130,965	131,115	502,466	120,842	135,780	121,863	128,979	507,463
수지차	보험영업	26,530 (34.8)	29,671 (36.9)	123,398 (57.5)	35,744 (9.8)	31,053 (-10.3)	32,009 (20.6)	42,910 (44.6)	141,716 (14.8)
	투자영업	40,503 (18.7)	47,370 (41.4)	167,340 (21.6)	42,032 (1.8)	38,241 (0.2)	41,438 (2.3)	45,456 (-4.0)	167,166 (-0.1)
	영업외	7,588	7,450	33,186	7,213	6,657	7,304	8,084	29,257
	소계	74,622	84,491	323,923	84,989	75,951	73,467.6	96,449	338,140
책임준비금전입		61,545	71,183	269,789	71,277	69,426	70,902	82,911	294,516
법인세		3,785	3,659	13,942	2,807	1,335	2,530	3,250	9,917
당기순이익		9,292 (60.5)	9,649 (204.6)	40,193 (63.7)	10,906 (-15.1)	5,195 (-38.2)	7,318 (-21.2)	10,288 (6.6)	33,707 (-16.1)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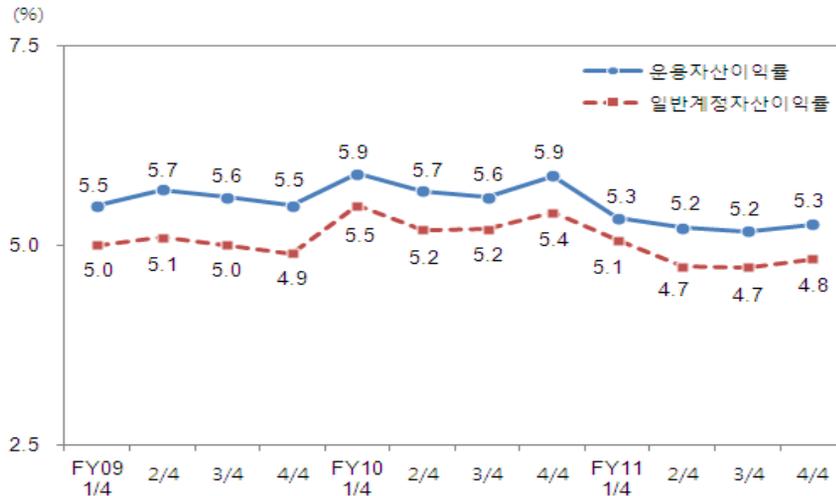
■ FY2011 4/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5.3%와 4.8%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4.8%인데, 이는 당기손익증권, 매도가능증권,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이익률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임.
- 대출채권 이익률은 7.4%(전년동기대비 0.8%p 하락)였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3.5%(전년동기대비 0.5%p 상승)를 기록함.

■ 일반계정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66.3%, 대출채권 18.9%, 현금과예금 4.1%, 부동산 3.7%임.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 비중은 소폭 줄어든(1.0%p) 반면, 현금과예금, 유가증권 비중은 소폭 증가함(0.6%p).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5	3.6	4.0	3.2	3.8	3.9	4.0	3.8	4.1	3.8
유 가 증 권	65.7	5.4	65.5	5.0	66.0	4.8	65.9	4.7	66.3	4.8
○ 당기손익인식증권	1.2	3.1	1.9	2.5	1.9	-3.0	1.5	0.3	1.6	2.6
- 주 식	0.0	16.2	0.1	-1.8	0.1	-35.9	0.1	-24.5	0.1	-8.0
- 채 권 등	0.4	2.9	0.8	3.5	0.8	-1.6	0.8	2.3	0.7	4.1
- 수익증권	0.8	3.0	1.0	2.2	1.0	-0.6	0.6	1.4	0.8	2.7
○ 매도가능증권	49.5	5.4	49.8	5.1	50.2	5.0	50.4	4.8	51.4	4.7
- 주 식	5.3	2.0	4.8	1.7	4.4	1.5	4.9	0.9	5.3	1.9
- 채 권 등	41.0	5.3	42.3	5.0	43.2	5.1	43.2	5.0	43.5	5.0
- 수익증권	3.1	12.7	2.7	12.2	2.6	9.1	2.4	8.3	2.5	5.8
○ 만기보유증권	14.1	5.3	12.8	5.2	13.0	5.1	13.1	5.2	12.5	5.4
- 채 권 등	14.1	5.3	12.8	5.2	13.0	5.1	13.1	5.2	12.5	5.4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0.9	10.5	1.1	3.6	0.9	1.7	0.8	1.2	0.9	7.2
대 출 채 권	19.9	8.2	19.4	7.1	19.5	7.2	19.3	7.4	18.9	7.4
부 동 산	3.6	3.0	3.8	3.5	3.7	3.8	3.7	3.6	3.7	3.5
운 용 자 산 계	92.7	5.9	92.6	5.3	93.0	5.2	92.9	5.2	93.0	5.3
비 운 용 자 산	7.3	0.1	7.4	1.6	7.0	-1.5	7.1	-0.9	7.0	-0.6
일반계정자산계 (자산운용률)	100.0 (80.4)	5.4	100.0 (80.9)	5.1	100.0 (81.7)	4.7	100.0 (81.9)	4.7	100 (81.3)	4.8
특별계정자산	19.6	8.7	19.1	1.2	18.3	-5.8	18.1	-2.3	18.7	0.9
총 자 산	100.0	6.0	100.0	4.3	100.0	2.7	100.0	3.4	100.0	4.1
총 자산규모	4,166,524		4,250,375		4,293,992		4,426,524		4,582,041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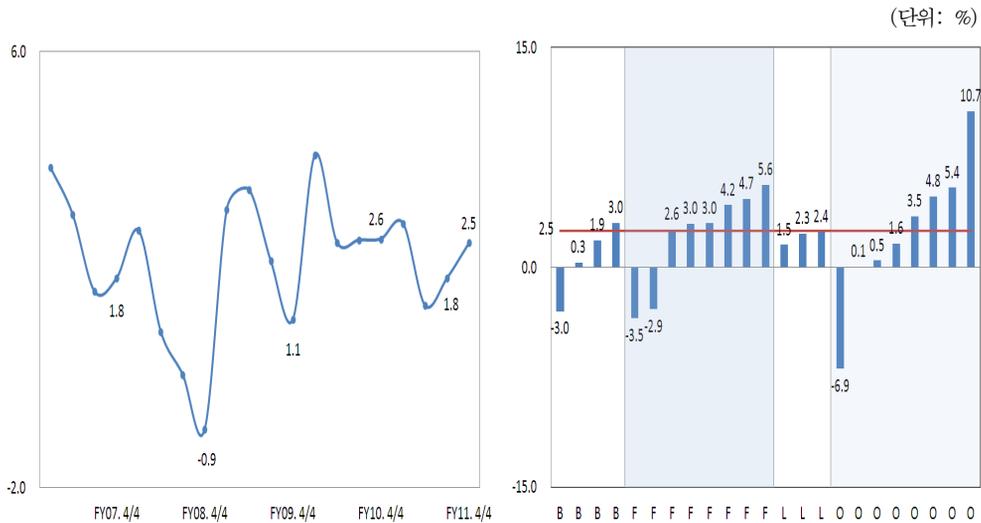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2.5%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 0.7%p 상승함.

○ 대부분의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산업평균(2.5%)을 상회한 반면, 모든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산업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일부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는 음(-)의 자본이익률을 보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등 총 23개 회사임.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상승하였으나 대형사와 방카사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외국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의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3.3%p,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3.6%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하락함.
- 한편, 대형사 및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각각 2.2%, 1.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p, 1.5%p 하락한 반면, 전분기대비 각각 0.8%p, 1.2%p 상승함.

〈표 10〉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2.5	3.1	13.6	2.6	1.2	1.4	2.2	7.5
중소형사	1.9	0.3	5.7	4.4	2.1	2.5	3.6	13.5
외국사	3.6	2.1	13.1	3.1	1.5	3.3	2.6	11.4
방카사	-0.3	2.8	3.7	-0.8	-0.3	0.1	1.3	0.4
전체	2.5	2.6	12.4	2.9	1.3	1.8	2.5	8.7

주: 1)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전분기 자본 + 당분기 자본) * 0.5]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분기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0.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하락은 매출이익률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레버리지비율과 자산회전을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률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개선됨.
- 한편 대형사는 매출이익률이 1.2%p 하락하면서, 방카사는 레버리지비율과 자산회전을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낮은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전분기 기준으로는 외국사를 제외한 대형사, 중소형사, 방카사가 자본이익률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이는 모두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표 11〉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대형사	8.5	8.7	8.4	5.1	4.2	4.5	7.1	3.7	5.9
중소형사	12.2	12.7	12.6	9.4	8.3	9.3	0.2	2.4	3.1
외국사	7.5	7.2	7.2	7.2	6.5	6.6	3.9	7.1	5.6
방카사	11.3	11.9	12.5	9.7	9.7	12.4	2.5	0.1	0.9
전체	8.8	9.0	8.8	6.1	5.4	6.1	4.7	3.8	4.6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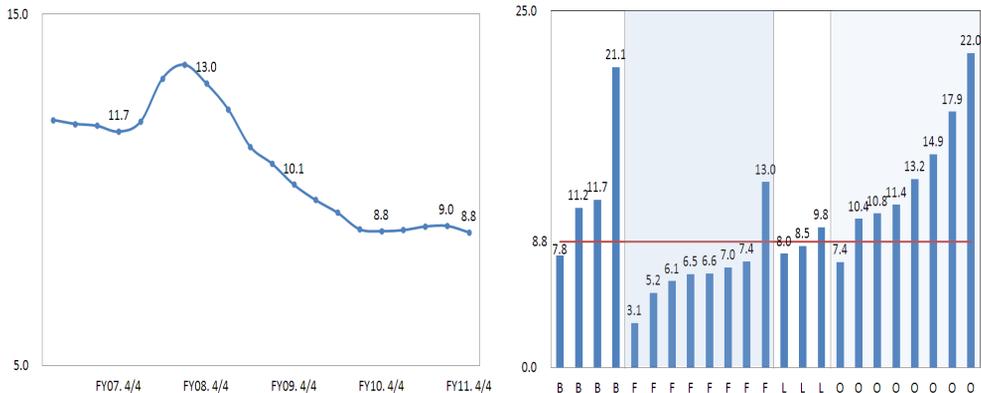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8.8배로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임.

○ 대형사 및 외국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방카사 및 중소형사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4〉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 비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같은 수준이나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음.

- 전년동기에 비해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자산증가 효과로 상승했으나, 대형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하락함.
- FY2011 3/4분기에 비해서는 대형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나머지 그룹은 보합이거나 상승하였음.

〈표 12〉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대형사	8.7	8.5	10.8	8.5	8.7	8.7	8.4	11.0
중소형사	11.8	12.2	15.7	12.4	12.4	12.6	12.6	15.2
외국사	7.4	7.5	10.7	7.5	7.3	7.2	7.2	10.2
방카사	11.8	11.3	16.8	11.0	11.3	11.9	12.5	15.7
전체	8.9	8.8	11.4	8.9	9.0	9.0	8.8	10.8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 자산이 전분기대비 3.1% 증가하였으나, 자본도 5.2% 증가함에 따라 산업 전체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보다 하락함.

- 전년동기대비로는 생명보험회사 전체 자산증가율과 자본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동일한 수준을 보임.

〈표 13〉 FY2011 4/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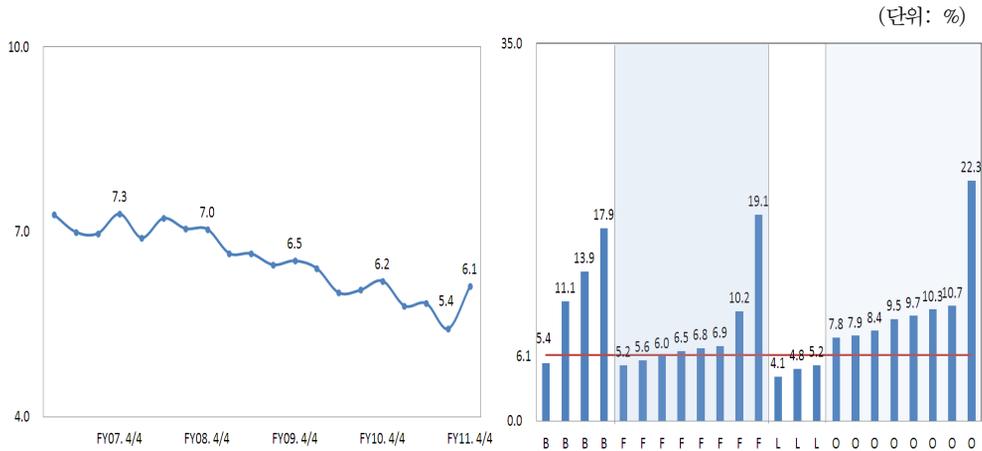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8.3	2.8	9.4	6.1
중소형사	17.7	4.3	14.9	4.7
외국사	10.0	2.2	14.4	2.5
방카사	29.2	7.8	17.2	2.7
전체	10.6	3.1	11.0	5.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1 4/4분기 자산회전율은 6.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이후 지속된 하락추세에서 상승(전분기대비 0.7%p 상승) 반전함.

〈그림 5〉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대형사와 일부 외국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수준(6.1%)을 상회함.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경우 자산회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여 각각 4.5%, 9.3%, 6.6%를 기록하였으며, 방카사는 전년동기대비 2.7%p 상승한 12.4%를 나타냄.

■ 전년동기에 비해 보험영업회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투자영업회전율은 소폭 하락하여 자산회전율 하락을 초래함.

- 전분기대비로는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회전율이 모두 상승함.
- 특히, 중소형사, 외국사의 보험영업회전율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방카사의 보험영업회전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표 14〉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자산회전을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대형사	5.1	4.2	4.5	3.3	3.1	3.3	1.8	1.2	1.3
중소형사	9.4	8.4	9.3	7.9	7.1	7.6	1.5	1.3	1.6
외국사	7.2	6.5	6.6	5.8	5.1	5.2	1.4	1.4	1.3
방카사	9.7	9.7	12.4	8.2	8.5	11.2	1.5	1.3	1.2
전체	6.2	5.4	6.1	4.6	4.2	4.7	1.6	1.2	1.4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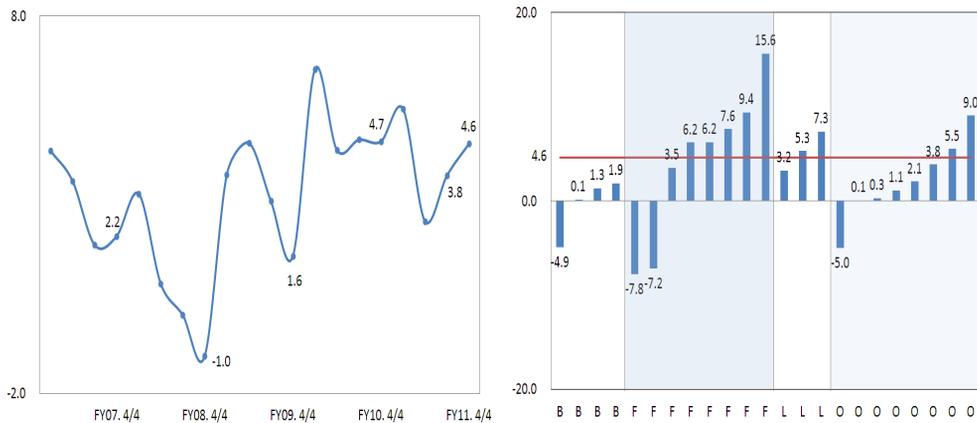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매출이익률은 4.6%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임.

○ 일부 대형사와 다수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이 산업평균(4.6%)을 상회하고 있으나, 방카사와 중소형사 대부분은 부진한 매출이익률 수준을 나타냄.

〈그림 6〉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4/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개선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이 매출이익률 유지의 원인임.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방카사가 각각 11.8%, 30.3%, 57.9%로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률은 중소형사가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각각 2.5%p, 0.7%p 상승하였으나, 대형사, 방카사의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함.

〈표 15〉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대형사	7.1	3.7	5.9	4.8	8.7	11.8	30.6	27.3	27.0
중소형사	0.2	2.4	3.1	29.2	29.1	30.3	11.8	13.6	14.3
외국사	3.9	7.1	5.6	17.1	11.5	13.0	17.1	19.0	18.7
방카사	2.5	0.1	0.9	41.8	46.4	57.9	13.2	11.4	9.5
전체	4.7	3.8	4.6	14.4	16.5	18.5	23.0	21.4	20.9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1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임직원 비중은 크게 감소함.

- 임직원 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FY2010 4/4분기 25.2%에서 7.3%로 감소하였고, 대리점 비중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6.7%로 나타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비중은 각각 23.4%, 62.3%를 기록함.

〈표 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26.2	25.2	21.0	22.7	12.7	32.5	7.3	21.3
설계사	29.1	21.8	26.1	27.0	29.5	23.5	23.4	24.7
대리점	6.1	6.8	6.8	9.5	7.3	7.2	6.7	7.1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37.6	45.4	45.5	40.3	50.0	36.5	62.3	46.6
기타	0.9	0.8	0.7	0.4	0.4	0.3	0.3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4,342	40,993	134,794	33,748	29,400	42,032	42,889	148,510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전분기에 비해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가 증가하고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623명 증가한 27,963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사와 국내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895명 증가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가 각각 465명, 430명 증가한 141,499명, 11,690명으로 나타남.
 - 대형사의 전속설계사 수는 1,383명 증가하였고 국내중소형사의 교차설계사 수는 1,282명 증가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을 중심으로 124개가 감소한 8,965개를 기록함.
 - 대리점 수는 모든 집단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6,230	26,481	26,586	26,717	27,339	27,340	27,963
설 계 사	153,778	149,140	146,065	147,671	150,161	152,294	153,189
- 전속	137,027	133,763	132,117	134,574	138,024	141,034	141,499
- 교차	16,751	15,377	13,948	13,097	12,137	11,260	11,690
대 리 점	10,659	10,359	9,846	9,610	9,511	9,089	8,965
- 개인	7,186	6,876	6,364	6,177	6,176	5,857	5,712
- 법인	3,473	3,483	3,482	3,433	3,335	3,232	3,253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성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고성장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0% 늘어난 16조 799억 원을 기록함.

-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신규 수요 급증과 개인연금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한 11조 686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담보별 요율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3조 2,507억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동기 대비 17.7% 증가한 1조 7,606억 원을 기록함.

○ FY2011 기준으로는 장기성 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한 60조 9,648억 원을 기록함.

■ FY2011 4/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과 일반계정자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5.3% 증가한 129조 8,013억 원에 달하였으며, FY2011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7.0% 증가함.

○ 특별계정은 개인연금 성장을 중심으로 15.3% 증가하였으며, 일반계정은 장기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으로 4.9%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14.6 (21.8)	13.3 (17.5)	52.2 (19.2)	14.1 (16.5)	14.2 (16.0)	16.6 (13.6)	16.1 (21.0)	61.0 (16.7)
- 장기성	9.7 (27.7)	8.6 (21.0)	33.5 (25.3)	9.1 (20.7)	9.2 (19.4)	11.5 (18.0)	11.1 (29.0)	40.8 (21.7)
- 자동차	3.2 (12.7)	3.2 (13.8)	12.4 (10.6)	3.2 (9.1)	3.3 (8.3)	3.3 (2.2)	3.3 (1.1)	13.0 (5.1)
- 일반손해	1.7 (9.5)	1.5 (7.5)	6.3 (7.6)	1.8 (10.1)	1.7 (14.2)	1.8 (9.5)	1.8 (17.7)	7.1 (12.7)
총 자산	99.0 (4.8)	102.2 (3.3)	102.2 (18.7)	112.8 ³⁾ (10.3)	116.5 (3.3)	123.3 (5.9)	129.8 (5.3)	129.8 (27.0)

주: 1)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1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중심의 초회보험료 급증과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1.3% 늘어난 9조 6,572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432.9%나 증가하고 계속보험료도 지속적인 고성장 및 해지율 안정화로 41.5% 늘어남에 따라 102.7% 증가한 3조 3,372억 원을 시현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증가세 전환 및 계속보험료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11.6% 늘어난 2조 1,889억 원을 기록함.
- 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갱신 효과 등에 따른 계속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회보험료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8.6% 증가한 1조 6,033억 원을 시현함.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 급증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계속보험료 고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30.3% 증가한 7,749억 원을 기록함.
- FY2011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1.2% 늘어난 34조 1,432억 원을 시현함.

■ FY2011 4/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신규 수요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273.6% 증가한 1조 5,269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432.9%나 늘어난 1조 3,715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9.3% 증가한 602억 원을 기록하여 3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난 반면,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3.9% 감소한 331억 원을 시현하여 감소세를 지속함.
-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9.9% 증가한 345억 원을 기록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FY2011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하반기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94.5% 증가한 3조 4,048억 원을 기록함.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8,976	19,616	74,527	20,363	20,151	21,152	21,889	83,554
		증가율	15.6	15.6	16.3	15.2	10.3	11.5	11.6	12.1
	운전자	보험료	5,636	5,719	22,537	5,749	5,711	5,679	5,642	22,781
		증가율	9.2	4.8	9.3	3.2	1.8	0.7	-1.3	1.1
	재 물	보험료	5,604	5,945	21,791	6,264	7,444	7,536	7,749	28,993
		증가율	19.2	22.9	16.9	25.2	42.1	34.5	30.3	33.1
	질 병	보험료	14,405	14,770	56,614	15,261	15,484	15,713	16,033	62,490
		증가율	10.8	11.1	13.6	12.8	11.3	9.1	8.6	10.4
	저축성	보험료	16,540	16,466	62,541	17,882	20,988	25,224	33,372	97,465
		증가율	66.7	41.0	59.9	27.5	35.3	52.5	102.7	55.8
	통합형	보험료	10,733	10,798	42,749	11,077	11,188	11,400	11,752	45,417
		증가율	6.0	4.5	7.6	4.5	5.3	6.2	8.8	6.2
	자산 연계형	보험료	257	239	1,055	222	201	173	136	732
		증가율	120.5	-59.8	8.5	-17.2	-31.2	-32.6	-43.0	-30.6
소 계	보험료	72,151	73,551	281,813	76,818	81,166	86,877	96,572	341,432	
	증가율	21.4	16.5	21.0	15.3	16.9	20.4	31.3	21.2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517	551	2,046	460	424	490	602	1,976
		증가율	48.0	15.4	-9.7	-11.2	-7.8	-5.4	9.3	-3.4
	운전자	보험료	103	201	540	66	65	72	76	279
		증가율	-50.8	0.8	-16.9	-48.0	-39.8	-30.7	-62.0	-48.3
	재 물	보험료	302	314	1,098	355	448	415	345	1,565
		증가율	51.6	65.0	58.7	59.5	73.3	37.3	9.9	42.5
	질 병	보험료	294	345	1,197	310	236	273	331	1,150
		증가율	3.6	39.8	-33.3	29.6	-26.1	-7.0	-3.9	-3.9
	저축성	보험료	3,202	2,574	12,224	2,851	4,694	7,216	13,715	28,476
		증가율	192.4	50.0	141.8	-4.0	35.0	125.3	432.9	132.9
	통합형	보험료	97	102	409	102	157	146	198	603
		증가율	-11.9	-25.7	-45.5	-2.4	48.1	51.1	94.6	47.5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7	0	0	-2	0	-2
		증가율	-100.6	-100.0	-101.9	-99.7	-95.0	1,013.8	-100.0	-70.5
소 계	보험료	4,516	4,087	17,509	4,145	6,025	8,609	15,269	34,048	
	증가율	98.3	23.8	51.3	-0.7	27.4	90.6	273.6	94.5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8,458	19,065	72,480	19,902	19,727	20,663	21,286	81,578
		증가율	14.9	15.6	17.3	16.0	10.8	11.9	11.7	12.6
	운전자	보험료	5,533	5,518	21,997	5,683	5,646	5,607	5,566	22,502
		증가율	11.8	4.9	10.1	4.4	2.6	1.3	0.9	2.3
	재 물	보험료	5,302	5,631	20,692	5,909	6,996	7,120	7,403	27,428
		증가율	17.8	21.2	15.3	23.6	40.4	34.3	31.5	32.6
	질 병	보험료	14,111	14,425	55,417	14,951	15,248	15,440	15,701	61,340
		증가율	11.0	10.6	15.3	12.5	12.2	9.4	8.9	10.7
	저축성	보험료	13,338	13,892	50,317	15,031	16,293	18,009	19,657	68,989
		증가율	51.1	39.5	47.7	36.0	35.3	35.0	41.5	37.1
	통합형	보험료	10,636	10,696	42,340	10,975	11,031	11,254	11,554	44,813
		증가율	6.2	4.9	8.7	4.6	4.9	5.8	8.0	5.8
	자산 연계형	보험료	258	239	1,062	222	201	175	136	734
		증가율	196.8	-8.8	73.9	-19.1	-31.2	-31.9	-43.0	-30.9
소 계	보험료	67,636	69,464	264,304	72,672	75,141	78,267	81,303	307,384	
	증가율	18.3	16.0	19.4	16.3	16.1	15.7	17.0	16.3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4/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12.1%를 기록함.

- 재물보험의 경우 최근 신계약 급증으로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에 비해 해지율이 4.0%p나 상승하였으나,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나머지 종목은 모두 보유계약액이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지율이 하락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4/4
상 해	9.7	12.4	3.2	5.6	8.0	10.5
운전자	10.3	14.3	3.0	5.8	8.4	11.1
재 물	12.1	14.8	5.0	10.8	15.1	18.8
질 병	9.4	11.9	3.2	6.1	8.8	11.4
저축성	11.8	14.7	3.7	7.1	10.4	13.6
통합형	7.7	9.9	2.3	4.4	6.7	8.9
계	10.1	12.9	3.3	6.4	9.3	12.1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1 4/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기저효과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1조 4,114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효과가 이어짐에 따라 35.2% 늘어난 9,343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 종료에 따른 퇴직연금 신규 전환효과 소멸, 전년동기 고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12.8% 감소한 4,547억 원을 시현함.
- FY2011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고성장으로 전년대비 24.8% 증가한 6조 6,90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FY2010 54.7%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 연금	보험료	6,444	6,908	24,697	7,586	8,200	9,145	9,343	34,273
	증가율	29.6	33.6	38.4	37.2	40.9	41.9	35.2	38.8
	구성비	25.5	56.5	46.1	53.0	79.0	32.6	66.2	51.2
퇴직 보험	보험료	3,940	111	5,284	516	4	92	224	835
	증가율	-42.3	-80.7	-39.1	-46.3	-98.6	-97.7	102.3	-84.2
	구성비	15.6	0.9	9.9	3.6	0.0	0.3	1.6	1.2
퇴직 연금	보험료	14,890	5,218	23,616	6,218	2,169	18,857	4,547	31,791
	증가율	194.9	161.7	190.9	160.7	93.2	26.6	-12.8	34.6
	구성비	58.9	42.6	44.1	43.4	20.9	67.1	32.2	47.5
합계	보험료	25,275	12,236	53,598	14,320	10,373	28,094	14,114	66,900
	증가율	50.0	58.2	54.7	61.4	43.8	11.2	15.3	24.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1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담보별 요율 조정과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3조 2,507억 원을 기록함.

- 담보별 요율 조정으로 대인배상 I 과 자차담보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원수보험료 증가율 둔화가 이어짐.
- FY2011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3조 415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담보별 요율 조정,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원인임.

■ FY2011 4/4분기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도 2.7% 증가에 그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담보별 요율 조정과 주행거리연동 특약 등의 영향으로 개인용 물건과 업무용 물건이 각각 6.9%, 5.7% 줄어듦에 따라 6.0% 감소한 8,028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 대형화 및 고급화 등으로 대물 담보가 12.6% 증가하였으나, 자차 담보가 '자기부담금 정률제' 및 담보별 요율 조정의 영향으로 6.5% 감소하여 2.7% 늘어난 2조 3,111억 원에 그침.
- FY2011 기준으로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4% 감소한 반면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7.3% 증가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8,798	8,545	34,613	8,502	8,584	8,311	8,028	33,426	
	1.9	3.6	1.2	-0.4	-1.7	-5.5	-6.0	-3.4	
종합 보험	대인 II	3,266	3,211	12,914	3,247	3,402	3,360	3,313	13,323
		3.4	3.9	4.3	1.9	4.7	2.9	3.2	3.2
	대물	8,801	8,851	33,679	8,979	9,535	9,857	9,970	38,342
		16.2	17.3	14.2	14.5	16.4	12.0	12.6	13.8
	자차	8,735	9,042	33,173	8,575	8,754	8,455	8,453	34,237
		28.3	26.8	22.5	16.0	9.4	-3.2	-6.5	3.2
	자손	1,137	1,125	4,394	1,115	1,177	1,164	1,117	4,572
	11.7	10.7	10.2	5.8	9.2	2.4	-0.8	4.1	
무보험	290	282	1,139	272	279	265	258	1,074	
	2.4	2.8	2.6	-2.9	-3.0	-8.5	-8.4	-5.7	
소계	22,229	22,512	85,299	22,188	23,148	23,101	23,111	91,548	
	18.0	18.1	15.2	12.3	11.3	3.9	2.7	7.3	
외화표시	34	20	102	27	30	39	25	122	
	-2.0	-0.6	-5.9	0.4	47.8	14.3	23.9	19.2	
이륜자동차	138	128	569	173	164	149	151	637	
	16.1	16.5	11.6	10.3	13.0	7.9	17.9	12.1	
기타	904	938	3,552	1,087	1,202	1,202	1,191	4,682	
	5.4	15.2	6.0	30.7	36.8	33.1	27.0	31.8	
합계	32,103	32,143	124,134	31,977	33,128	32,803	32,507	130,415	
	12.7	13.8	10.6	9.1	8.3	2.2	1.1	5.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종합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 I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3%p 상승한 80.4%를 기록함.²⁾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요율 조정으로 경과보험료가 2.7% 감소하고 발생손해액이 15.9% 증가함에 따라 15.4%p 높아진 81.3%를 시현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담보의 손해율이 IFRS 제도 변경에 따른 발생손해액 증가로 상승하였으나 자차 담보 손해율이 ‘자기부담금 정률제’ 등 손해율 개선 노력에 힘입어 크게 하락함에 따라 1.1%p 낮아진 80.1%를 기록함.
- FY2011 기준으로는 대인배상 I 손해율이 악화되었으나 종합보험 손해율이 소폭 개선되어 전년대비 1.9%p 상승에 그친 82.2%를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81.1	65.9	73.5	73.2	80.4	90.5	81.3	81.3	
종합 보험	대인 II	74.5	80.0	74.6	86.5	88.9	91.2	88.1	88.7
	대물	93.7	80.7	86.1	87.5	89.6	93.2	88.7	89.8
	자차	90.4	84.0	86.5	78.7	79.0	70.4	66.8	73.7
	자손	82.3	77.9	77.2	66.0	72.5	91.0	90.3	80.1
	무보험	33.3	42.9	34.6	47.6	60.6	68.3	64.6	60.1
	소계	88.0	81.2	83.2	82.3	84.1	83.7	80.1	82.6
외화표시	67.5	71.7	71.5	71.9	84.4	87.8	54.9	75.0	
이륜자동차	98.0	64.4	85.4	89.2	92.2	89.7	81.9	88.3	
기타	82.9	84.4	81.0	74.4	85.1	81.6	79.9	80.4	
합계	85.9	77.1	80.3	79.6	83.2	85.4	80.4	82.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IFRS 도입으로 사업비 항목이었던 손해조사비가 발생손해액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손해율 상승 효과가 4분기 연속 지속됨.

4) 일반손해보험

■ FY2011 4/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7.7% 증가한 1조 7,606억 원을 시현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주택물건이 25.1%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높은 일반물건이 4.0%나 감소함에 따라 0.2% 줄어든 656억 원을 기록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물동량 감소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각각 5.5%, 11.5% 감소하였으나 해양종합보험이 605.7%나 증가함에 따라 35.2% 늘어난 2,335억 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이행보증 및 통신 관련 신용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17.2% 증가한 4,083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증가세에 힘입어 12.5% 증가한 9,525억 원을 시현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보험이 건설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18.4%나 줄어들고 기계보험과 조립보험도 각각 3.5%, 3.7% 감소함에 따라 전체 13.0% 감소한 657억 원을 기록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일반배상 및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이 각각 16.5%, 16.2% 늘어남에 따라 10.8% 증가한 1,576억 원을 나타냄.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여행보험이 감소한 반면, 일반상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4.3% 증가한 3,263억 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비중이 큰 기업성 물건이 증가함에 따라 4.6% 늘어난 2,439억 원을 기록함.
- FY2011 기준으로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이 증가세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7조 901억 원을 기록함.

〈표 24〉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779	657	2,660	624	598	758	656	2,636
	증가율	-2.4	-3.2	-3.7	0.4	-0.7	-2.7	-0.2	-0.9
	구성비	4.6	4.4	4.2	3.5	3.5	4.1	3.7	3.7
해상	보험료	1,939	1,728	7,721	2,393	2,138	1,833	2,335	8,699
	증가율	4.4	-12.1	-4.1	14.8	8.5	-5.5	35.2	12.7
	구성비	11.5	11.5	12.3	13.6	12.4	10.0	13.3	12.3
보증	보험료	3,417	3,483	13,074	3,547	3,634	3,908	4,083	15,172
	증가율	10.0	11.4	6.4	11.0	22.0	14.4	17.2	16.1
	구성비	20.4	23.3	20.8	20.1	21.0	21.3	23.2	21.4
특종	보험료	9,955	8,469	37,120	10,409	10,270	11,026	9,525	41,230
	증가율	11.6	11.4	11.5	7.7	13.7	10.8	12.5	11.1
	구성비	59.3	56.6	59.0	59.1	59.3	60.0	54.1	58.2
해외원보험	보험료	702	623	2,326	636	667	854	1,007	3,164
	증가율	6.2	16.6	11.9	46.9	17.4	21.8	61.6	36.1
	구성비	4.2	4.2	3.7	3.6	3.9	4.6	5.7	4.5
합계	보험료	16,792	14,961	62,901	17,608	17,307	18,380	17,606	70,901
	증가율	9.5	7.5	7.6	10.1	14.2	9.5	17.7	12.7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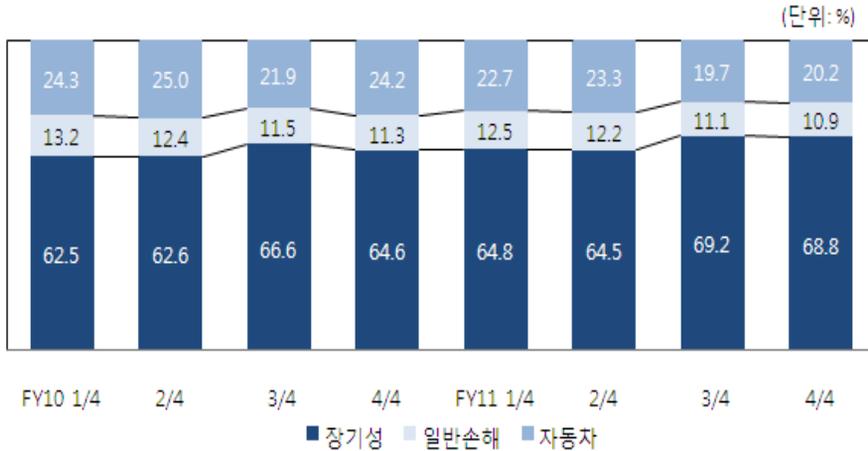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1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장기성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소폭 축소에 그침.

- 장기성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 증가에 따른 장기손해보험 증가세와 개인연금 증가에 따른 연금부문 고성장에 힘입어 4.2%p 늘어난 68.8%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담보별 요율 조정 및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됨에 따라 4.0%p 축소된 20.2%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높은 성장(17.7%)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성보험이 고성장함에 따라 0.4%p 축소된 10.9%를 나타냄.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4사의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기타 국내사, 전업사, 외국사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31 증가한 0.1492를 기록함.
 - 상위 4사는 저축성 장기보험 및 연금판매 증가로 고성장(24.2%)하여 점유율은 1.9%p 확대된 72.2%를 기록함.
 - 기타 국내사의 경우 원수보험료가 14.3%나 증가하였으나 상위 4사의 고성장으로 점유율이 1.3%p 축소된 22.9%를 나타냄.
 - 전업사는 보증보험의 양호한 성장(17.2%)에도 불구하고 상위 4사가 고성장함에 따라 점유율이 0.1%p 낮아진 2.5%로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경우 지속적인 저성장(2.6%)으로 점유율이 0.4%p 하락한 2.4%를 기록함.
 - FY2011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기타 국내사 및 외국사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3 증가한 0.1501을 기록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4사	70.8	70.3	69.9	71.2	70.8	72.5	72.2	71.7
국내 기타사	24.3	24.2	24.7	23.6	23.8	22.8	22.9	23.3
전업사	2.3	2.6	2.5	2.5	2.6	2.4	2.5	2.5
외국사	2.6	2.8	2.9	2.7	2.9	2.3	2.4	2.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6	2.8	2.9	2.6	2.8	2.3	2.3	2.5
허핀달지수	0.1500	0.1461	0.1471	0.1520	0.1488	0.1504	0.1492	0.1501

주: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터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 를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 대비 5.0%p 상승한 82.8%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경과보험료가 30.8%나 증가하였으나 발생손해액도 저축보험 신규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37.4%나 증가함에 따라 4.1%p 상승한 84.6%를 시현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IFRS 도입에 따른 손해조사비 항목 조정 등의 영향으로 발생손해액이 12.1% 증가한 반면 경과보험료가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7.2% 증가에 그치면서 3.5%p 상승한 80.6%를 기록함.
- FY2011 손해보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전년대비 3.6%p 상승한 81.2%를 기록함.

■ FY2011 4/4분기 사업비율은 손해조사비 항목 조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하락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4%p 낮아진 18.9%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순사업비가 저축성보험 중심의 신규 판매 급증으로 22.8% 증가하였으나 보유보험료가 31.5%나 증가함에 따라 1.2%p 낮아진 16.7%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순사업비가 IFRS 도입 영향으로 26.7% 감소하고 보유보험료가 원수보험료 증가율 둔화로 0.2% 증가에 그침에 따라 8.1%p 하락한 20.9%를 시현함.
- FY2011 연간기준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6%p 감소한 18.4%를 기록함.

■ FY2011 4/4분기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한 101.7%를 기록하였으며, FY2011 연간기준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99.6%)을 유지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81.6	80.5	81.2	81.7	82.6	83.2	84.6	83.1
	자동차보험	85.9	77.1	80.3	79.6	83.3	85.4	80.6	82.2
	화재보험	-7.2	300.2	38.8	47.4	61.0	66.3	62.6	59.0
	해상보험	143.6	109.6	83.7	58.7	42.2	63.5	60.2	57.2
	보증보험	27.8	33.8	9.2	43.9	43.0	65.0	67.5	55.0
	특종보험	62.2	66.4	62.2	61.6	69.2	70.9	69.6	68.0
	해외원보험	43.8	41.9	41.1	43.5	56.6	53.8	55.5	53.3
	해외수재보험	82.3	69.9	68.4	54.4	78.5	112.1	131.0	95.0
	전체	80.2	77.8	77.6	78.2	80.7	82.7	82.8	81.2
사업비율		21.7	22.3	22.0	18.3	18.2	18.1	18.9	18.4
합산비율		101.9	100.1	99.6	96.5	98.9	100.8	101.7	99.6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투자영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크게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24.2% 감소한 3,711억 원의 흑자를 시현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장기성보험의 성장 지속으로 보험영업수익이 22.6% 증가하였으나, 지급보험금과 환급금의 증가로 보험영업비용도 25.5% 증가함에 따라 5,041억 원 적자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익	보험영업	121,779	125,138	476,145	128,987	136,235	143,583	153,488	562,294
	투자영업	12,610	12,336	47,396	14,387	16,461	11,576	3,420	55,845
	기타	13,794	11,876	33,455	2,442	2,554	7,079	3,668	15,743
	소계	148,183	149,351	556,996	145,815	155,250	162,238	170,577	633,881
총비용	보험영업	127,437	127,308	486,025	126,513	136,765	146,134	158,530	567,951
	투자영업	2,831	2,959	10,050	4,199	6,928	1,545	2,620	15,293
	기타	14,105	12,319	33,508	2,676	2,787	7,521	4,070	17,054
	소계	144,373	142,585	529,583	133,389	146,480	155,200	165,220	600,298
수지차	보험영업	-5,658	-2,169	-9,879	2,474	-530	-2,551	-5,041	-5,658
	투자영업	9,778	9,377	37,345	10,187	9,533	10,031	10,800	40,552
	기타	-311	-442	-53	-235	-233	-443	-401	-1,312
	소계	3,810	6,766	27,413	12,427	8,770	7,037	5,358	33,583
법인세	1,195	1,871	7,098	2,798	2,288	2,321	1,646	9,063	
당기순이익	2,614	4,895	20,314	9,629	6,482	4,717	3,711	24,519	
	(-35.9)	(105.6)	(31.8)	(8.6)	(64.4)	(80.4)	(-24.2)	(20.7)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이자수익 및 파생상품 평가이익 증가로 투자영업수익이 8.8% 증가하였으나,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실 등 투자영업비용도 11.4% 감소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한 1조 800억 원 흑자를 기록함.

〈자산운용〉

- FY2011 4/4분기 일반계정 자산 기준 운용자산별 비중은 유가증권 51.0%, 대출채권 18.5%, 현금과예금 6.3%, 부동산 5.0% 순임.
 - 유가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42.7%, 당기손익인식증권 3.7%, 만기보유증권 3.0%,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5% 순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 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줄어들었으나, 현금과예금, 대출채권의 비중은 확대됨.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의 경우 현금과예금 및 부동산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은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0.5%p 하락한 4.6%를 기록함.
 - 유가증권 중 만기보유증권, 관계·투자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이익률이 상승했으나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의 이익률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전체 유가증권 이익률은 0.9%p 하락한 4.7%를 기록함.
 - 당기손익인식증권의 경우 주식 이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해당 이익률이 2.1%에 그침에 따라 유가증권 중 가장 낮은 이익률을 기록함.
 - 현금과예금 및 부동산 이익률은 각각 0.5%p, 0.4%p씩 상승하여 각각 3.6%와 1.3%를 시현한 반면, 대출채권은 0.1%p 하락한 5.8%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예금	5.4	3.1	5.8	2.6	5.7	5.3	6.0	3.8	6.3	3.6
유가증권	53.4	5.6	50.2	5.3	49.9	4.7	49.9	4.6	51.0	4.7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4.8	4.6	3.9	2.8	4.0	-0.7	3.7	1.2	3.7	2.1
- 주 식	0.3	14.9	0.5	-4.1	0.3	-32.4	0.3	-25.1	0.2	-17.1
- 채 권 등	1.3	3.6	1.2	4.7	1.4	8.0	1.2	7.7	2.1	5.0
- 수익증권	3.2	4.0	2.2	3.1	2.4	-0.3	2.3	2.2	1.4	2.1
○ 매도가능증권	44.7	5.8	41.9	5.4	41.6	5.2	41.8	5.0	42.7	4.9
- 주 식	4.5	7.6	4.1	6.1	3.7	2.1	4.1	1.9	4.5	2.9
- 채 권 등	29.6	5.5	28.9	5.2	28.8	5.7	28.9	5.4	35.0	5.3
- 수익증권	10.5	5.7	9.0	6.0	9.1	5.1	8.8	5.0	3.2	3.6
○ 만기보유증권	3.0	5.4	3.1	5.1	3.0	5.4	3.1	5.4	3.0	5.5
- 채 권 등	2.8	5.5	2.9	5.2	2.8	5.4	2.8	5.4	3.0	5.5
- 수익증권	0.2	3.6	0.2	4.1	0.3	6.2	0.3	5.1	0.0	0.0
○ 투자주식 ⁴⁾	0.9	2.0	1.3	7.2	1.2	4.4	1.4	3.1	1.5	2.7
대출채권	18.4	5.9	17.6	5.8	18.5	5.6	18.7	5.7	18.5	5.8
부동산	5.7	0.9	5.6	1.5	5.4	1.4	5.3	1.3	5.0	1.3
운용자산	83.0	5.1	79.1	4.9	79.6	4.7	80.0	4.6	80.7	4.6
비운용자산	17.0	0.1	20.9	0.0	20.4	-0.1	20.0	0.0	19.3	0.0
일반계정자산	100	4.3	100	3.9	100	3.7	100.0	3.7	100.0	3.7
일반계정자산	96.4	4.3	96.3	3.9	96.7	3.7	96.6	3.7	96.2	3.7
특별계정자산	3.6	-	3.7	-	3.3	-	3.4	0.0	3.8	0.0
총자산	100	4.0	100.0	3.7	100	3.6	100.0	3.5	100.0	3.5
총자산 규모	1,022,151		1,127,714		1,164,544		1,232,944		1,298,01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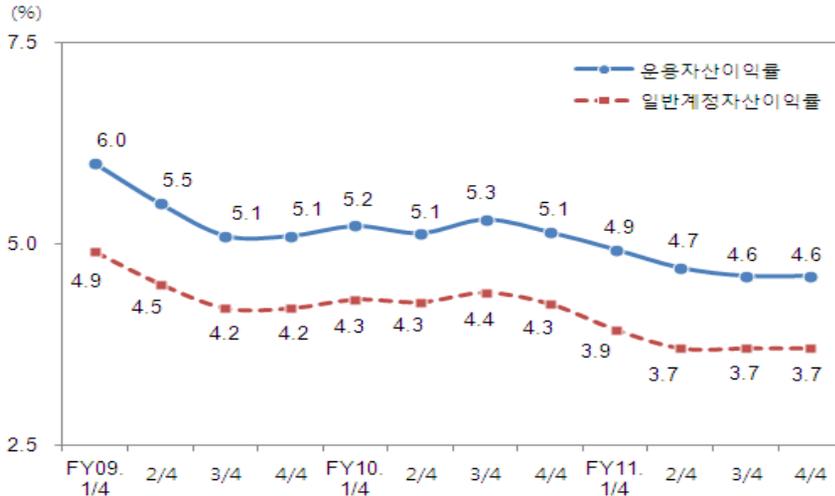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편, FY2011 4/4분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3.7%로 나타남.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단위: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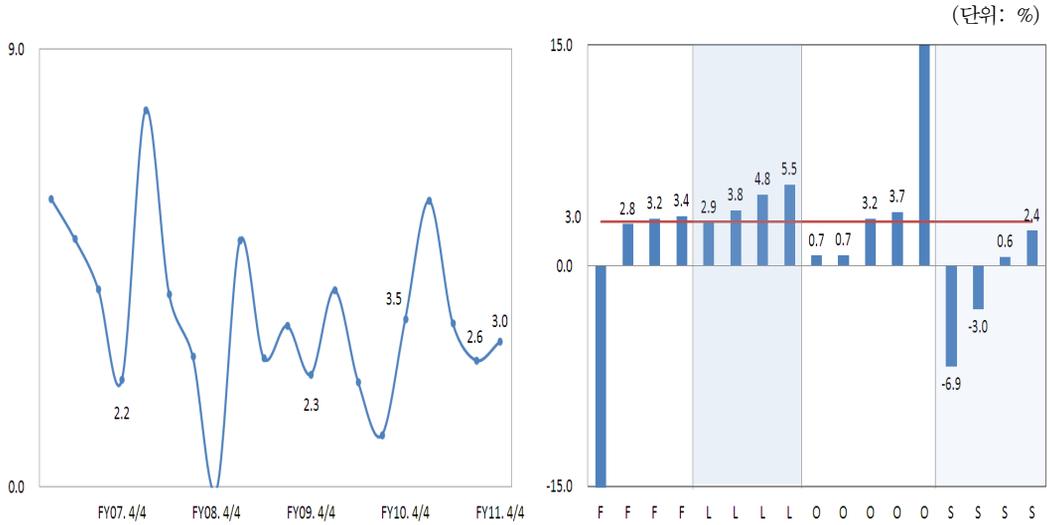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³⁾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3.0%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4%p 상승함.

○ 대형사는 모두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국내외 17개 회사임.

〈그림 9〉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4/4분기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외국사, 전업사만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대형사와 전업사만이 상승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3.6%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외국사는 당기순이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2.7%p 상승한 0.5%를 기록함.
- 한편, 전업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8.3%p 개선되었으나,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2.6	4.3	14.8	5.8	3.8	2.7	3.6	17.6
중소형사	-4.2	1.4	3.1	6.3	0.8	2.8	-0.4	9.9
외국사	-3.3	-2.2	-1.8	9.1	3.3	3.6	0.5	20.9
전업사	-17.0	-8.9	-31.4	4.7	2.8	-2.4	-0.6	4.2
국내외 17개사	1.1	3.5	11.3	5.9	3.4	2.6	3.0	16.4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은 매출이익률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로는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 하락으로 자본이익률이 하락한 반면, 전분기대비로는 매출이익률과 자산회전율 증가로 자본이익률도 증가함.
- 외국사는 레버리지비율과 자산회전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률 개선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 모두 당기순손실에 따라 음(-)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했으나, 전업사는 매출이익률의 개선으로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표 3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대형사	7.1	6.6	6.5	13.7	13.4	13.8	4.4	3.1	4.0
중소형사	12.8	13.4	14.0	15.6	14.1	14.2	0.7	1.5	-0.2
외국사	4.4	2.4	2.4	25.9	23.4	23.0	-1.9	6.4	0.9
전업사	4.9	4.9	4.9	21.3	17.7	17.4	-8.6	-2.8	-0.7
국내외 17개사	7.8	7.3	7.3	14.3	13.7	14.0	3.1	2.6	2.9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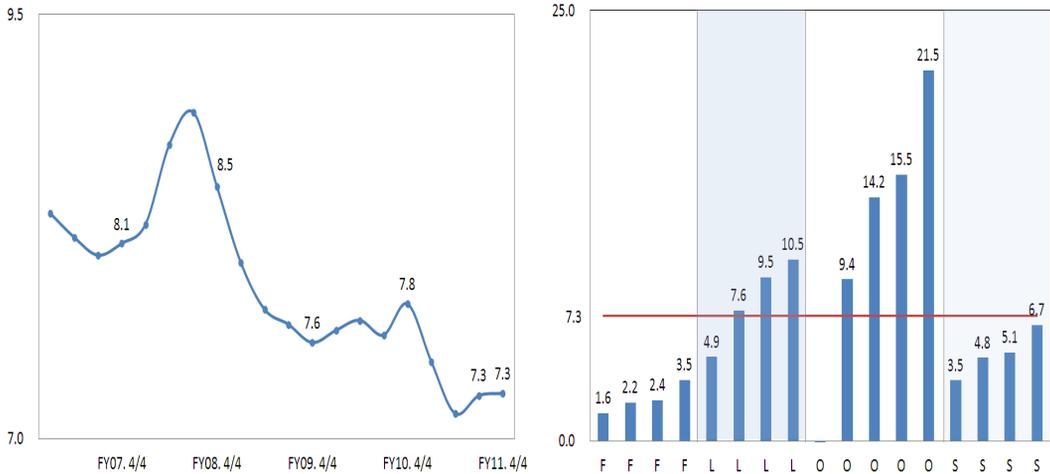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7.3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대비와 동일한 수준임.

○ 손해보험회사 그룹별로는 대부분의 중소형사 및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7.3배)을 상회하고 있으나, 외국사 및 전업사의 경우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음(-)의 레버리지비율을 기록한 중소형사도 있음.

〈그림 10〉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4/4분기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은 중소형사의 경우만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대형사는 하락하고 외국사, 전업사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임.

○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증가로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며, 대형사는 자본증가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 외국사의 경우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아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은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형사	7.1	7.1	7.4	6.7	6.5	6.6	6.5	7.1
중소형사	11.3	12.8	12.8	13.7	13.3	13.4	14.0	14.7
외국사	4.2	4.4	4.4	3.1	2.5	2.4	2.4	3.0
전업사	5.3	4.9	4.5	4.8	4.9	4.9	4.9	4.7
국내외 17개사	7.6	7.8	8.0	7.5	7.1	7.3	7.3	7.9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2〉 FY2011 4/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주)}		자본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28.3	6.2	40.9	7.1
중소형사	25.3	4.4	23.4	-1.1
외국사	25.9	-1.5	135.2	-1.1
전업사	20.2	-0.3	15.6	3.0
국내외 17개사	27.5	5.7	39.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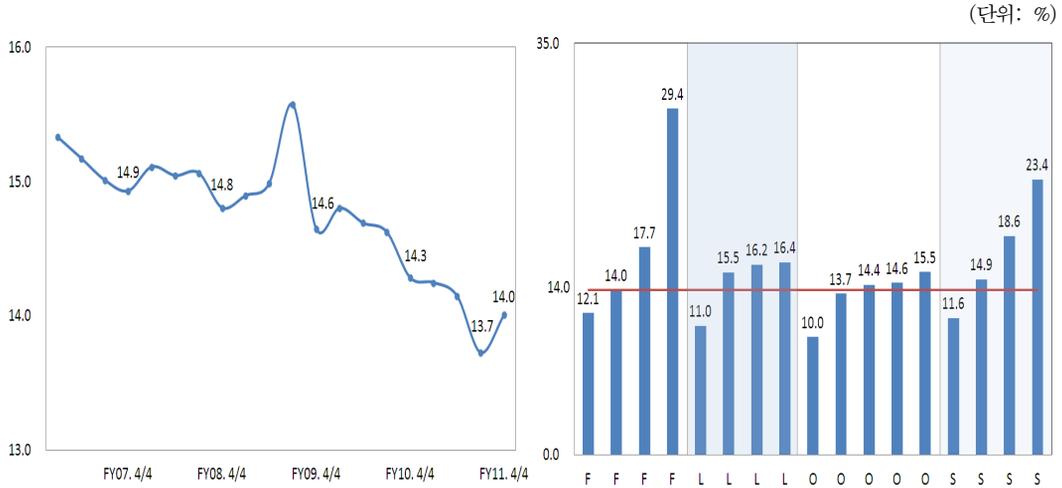
주: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국내외 17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FY2010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4.0%를 기록하면서 상승하였음.

○ 일부 외국사와 전업사의 높은 자산회전율로 산업평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음.

〈그림 11〉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은 각각 12.9%, 1.1%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자산회전율 하락 원인으로 투자영업회전율 하락을 들 수 있음.

〈표 33〉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회전율			투자영업회전율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대형사	13.7	13.4	13.8	12.4	12.4	12.7	1.3	1.0	1.1
중소형사	15.6	14.1	14.2	14.2	13.1	13.1	1.3	1.0	1.1
외국사	25.9	23.4	23.0	25.2	22.4	22.3	0.7	1.0	0.7
전업사	21.3	17.7	17.4	20.3	16.9	16.6	1.0	0.8	0.8
국내외 17개사	14.3	13.7	14.0	13.0	12.7	12.9	1.3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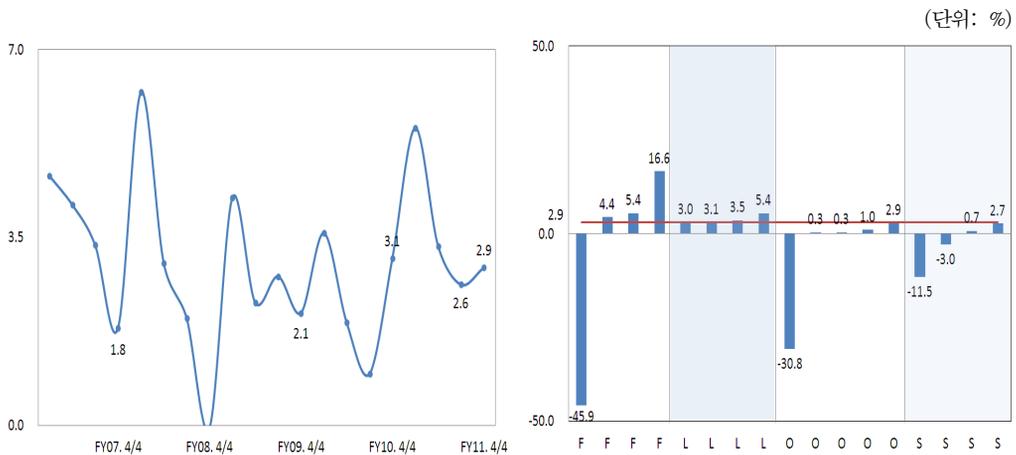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2.9%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0.3%p 상승함.

- 대형사들의 매출이익률은 모두 양(+)의 값을 기록하였으나, 대다수 전업사는 산업평균수준(2.9%)을 크게 하회하는 음(-)의 매출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12〉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현황



주 :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4/4분기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2.5%로 나타낸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0.1%p 상승한 6.7%로 나타나 동 투자영업이익률 상승이 매출이익률 상승을 주도함.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전업사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전분기대비 하락함.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 모든 그룹에서 음(-)의 보험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한편, 투자영업이익률의 경우 대형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전분기대비 투자이익률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의 투자이익률 상승으로 손해보험산업 전체 투자영업이익률은 상승함.

〈표 34〉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FY2010 4/4	FY2011 3/4	FY2011 4/4
대형사	4.4	3.1	4.0	-1.1	-1.8	-1.5	7.3	6.9	7.0
중소형사	0.7	1.5	-0.2	-4.4	-3.9	-5.9	6.1	6.1	6.0
외국사	-1.9	6.4	0.9	-1.7	5.8	-0.7	2.6	3.1	2.8
전업사	-8.6	-2.8	-0.7	-12.4	-6.3	-4.7	3.5	4.5	4.1
국내외 17개사	3.1	2.6	2.9	-2.2	-2.3	-2.5	6.8	6.6	6.7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1 4/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이 크게 확대된 반면 설 계사 및 대리점 채널비중이 축소되었으며, FY2011 연간기준으로도 방카슈랑스 채널 비 중 증가가 두드러짐.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장기 저축성보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8.8%p나 증가한 15.2%를 차지함.
- 설계사 및 대리점 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각각 2.5%p, 4.9%p 줄어든 30.5%, 40.4%를 나타냄.

〈표 3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직원	30,526	19,023	81,690	22,603	19,022	34,353	21,138	97,115
	20.9	14.3	15.6	16.1	13.4	20.7	13.1	15.9
설계사	43,085	43,873	168,389	45,467	47,161	48,001	49,012	189,640
	29.4	33.0	32.2	32.3	33.2	28.9	30.5	31.1
대리점	62,068	60,255	232,577	62,156	63,637	68,432	64,971	259,195
	42.4	45.3	44.5	44.2	44.8	41.2	40.4	42.5
중개사	1,402	898	4,176	1,107	1,113	1,275	930	4,424
	1.0	0.7	0.8	0.8	0.8	0.8	0.6	0.7
방카슈랑스	9,040	8,493	34,692	9,208	10,824	13,879	24,416	58,327
	6.2	6.4	6.6	6.5	7.6	8.4	15.2	9.6
공동인수	200	350	922	183	217	214	333	946
	0.1	0.3	0.2	0.1	0.2	0.1	0.2	0.2
전체	146,321	132,892	522,445	140,723	141,973	166,153	160,799	609,6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1 4/4분기 말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설계사 수 및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비정규직 직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533명 증가한 3만 1,003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국내 중소형사⁴⁾를 중심으로 전속설계사 채널이 증가한 반면 상위 4사를 중심으로 교차설계사 채널이 줄어들어 따라 전체 204명 감소한 16만 1,237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은 증가하였으나 개인대리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725개 줄어든 3만 9,818개를 기록함.

4)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제외한 국내사를 의미함.

〈표 3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3/4	4/4
임직원	29,206	29,400	28,951	29,537	30,060	30,470	31,003
설계사	162,985	161,767	162,144	161,858	161,129	161,441	161,237
- 전속	83,765	83,597	84,144	85,372	86,517	87,893	88,179
- 교차	79,220	78,170	78,000	76,486	74,612	73,548	73,058
대리점	43,343	42,927	41,963	41,519	41,034	40,543	39,818
- 개인	31,650	31,003	30,091	29,647	29,254	28,670	27,844
- 법인	11,693	11,924	11,872	11,872	11,780	11,873	11,974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가. 생명보험

■ 2012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²⁾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증가하였는데 장기보험과 종신보험 증가세가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부진을 상쇄하였기 때문임.

○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성장세를 견인함.

- 종신보험 연납화 보험료는 2009년 이후 지속 성장하여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수준으로 확대됨.

- 2007년 당시 생명보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유니버설보험에 비해 20%p 낮았으나 2012년 1/4분기에는 7%p 차이로 근접하였음.

○ 생명보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니버설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0% 증가에 그침.

- 유니버설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ifetime guarantee 유니버설 상품이 보험료 인상 등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이 크게 증가함.

○ 정기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1% 증가하고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1% 감소함.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2012년 1/4분기 신계약 보험료 기준 누적 비중은 종신보험만이 2011년 말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감소하고 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2010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종목별 비중은 유니버설보험이 42%로 가장 높고,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30%, 20%, 8%를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4	1	3	-2	3	42	0	42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14	3	34	36	22	9	-1	8
정기	-11	-5	-4	-4	-6	20	1	20
종신	15	5	10	5	9	29	10	30
계	8	1	6	2	4	100	3	100
연납화 보험료	2,370	2,419	2,380	2,744	9,935		2,418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2, 6),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2년 1/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8.7% 감소한 548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7.5% 감소하였으며, 신규보험료 규모는 2010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음.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인덱스형 연금이 증가한 반면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고정금리 연금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9% 감소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38.5	140.5	39.8	40.9	40.2	38.4	159.3	36.8
	증가율	16.7	9.8	23.6	16.2	16.2	-0.3	13.4	-7.5
	비중	66.5	63.2	66.3	65.5	66.6	66.9	66.3	67.2
정액연금	보험료	19.4	81.9	20.2	21.5	20.2	19.0	81.0	18.0
	증가율	-8.1	-25.9	4.7	-1.4	-5.6	-2.1	-1.1	-10.9
	비중	33.5	36.8	33.7	34.5	33.4	33.1	33.7	32.8
합계	보험료	57.9	222.4	60.0	62.4	60.4	57.4	240.2	54.8
	증가율	7.0	-6.8	16.5	9.5	7.9	-0.9	8.0	-8.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2, 6), U.S. Individual Annuities.

■ 2012년 1/4분기 개인연금 판매 채널 비중은 전속설계사가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립중개인이 23.2%, 독립설계사가 16.3%,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3.5%, 12.6%, 8.8%로 나타남.

○ 변액연금의 경우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32.6%, 26.9%로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은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4/4	1/4	2/4	3/4	4/4	1/4
은행	14.0	16.3	15.9	14.9	13.4	13.5
전속설계사	21.3	20.3	21.0	21.7	23.0	23.8
직접판매	7.3	7.0	8.0	7.6	8.2	8.8
독립중개인	21.5	22.6	21.0	21.2	22.1	23.2
독립설계사	17.8	15.6	17.0	17.6	16.2	16.3
증권중개인	14.2	15.1	14.9	14.9	14.8	12.6
기타	4.0	3.2	2.2	2.0	2.3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2, 6),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2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변경권이 있는 Guaranteed Renewable³⁾과 Non-cancellable⁴⁾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 늘어남.
- Non-cancellable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8%, Guaranteed Renewable은 0.6% 증가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CY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80.4	344.1	107.2	76.0	81.6	83.1	347.9	107.6
		증가율	0.0	9.0	1.4	2.3	-2.5	3.4	1.1	0.4
		구성비	67.3	71.0	76.2	69.0	66.6	67.1	70.0	75.4
	Non-cancellable	건 수	39.0	140.5	33.4	34.1	40.9	40.8	149.2	35.1
		증가율	-2.6	-7.0	8.6	2.9	8.8	4.5	6.2	5.0
		구성비	32.7	29.0	23.8	31.0	33.4	32.9	30.0	24.6
	전체	건 수	119.4	484.6	140.6	110.1	122.5	123.9	497.1	142.7
		증가율	-0.8	3.9	3.0	2.5	1.0	3.8	2.6	1.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1.0	211.1	64.1	48.8	51.5	53.1	217.6	64.5
		증가율	3.3	6.2	6.2	-0.2	1.3	4.2	3.1	0.6
		구성비	40.1	42.9	49.1	40.0	38.8	39.9	42.0	47.6
	Non-cancellable	보험료	76.3	280.7	66.6	73.1	81.2	80.1	300.9	71.1
		증가율	-5.3	-7.0	6.6	9.2	8.3	5.0	7.2	6.8
		구성비	59.9	57.1	50.9	60.0	61.2	60.1	58.0	52.4
	전체	보험료	127.3	491.8	130.7	121.9	132.7	133.2	518.5	135.6
		증가율	-2.1	-1.8	6.4	5.2	5.5	4.7	5.4	3.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2, 6),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1년 4/4분기⁵⁾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1,0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4분기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감.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08년과 2009년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09년 0.8%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후 2010년에는 1.2% 증가함.
 - 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의 증가가 지급보험금 증가를 상쇄하면서 전년동기에 비해 적자폭이 26억 달러 감소한 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2011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거대재해 손실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에 그친 804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거대재해 손실 증가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보험영업이익 적자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11년 4/4분기 거대재해손실이 44억 달러에 그치면서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둔화됨.
 - 합산비율은 지급보험금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 105.9%에서 103.4%로 하락하였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할 경우 합산비율은 101.1%로 나타남.

- 투자영업이익은 4.6% 증가한 142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타 이익과 미실현 자본이익은 각각 6억 달러, 80억 달러로 나타남.
 - 이자수입과 배당금 등의 투자영업이익은 1.6% 증가한 125억 달러, 실현자본이익은 33.1% 증가한 17억 달러로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0억 달러 증가한 1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기자본이익률도 2.3%p 상승한 8.2%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FY2010 4/4분기 -40.7%에서 -64.8%로 악화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0년 4/4분기 6.9%에서 9.7%로 개선됨.

5) 미국 손해보험산업 데이터는 입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2011년 4/4분기 데이터를 사용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원수보험료	금액	423,789	108,589	109,746	115,740	103,073	437,148
	증가율	1.2	3.4	1.6	4.6	3.8	3.2
지급보험금	금액	310,666	78,459	95,404	89,883	80,432	344,178
	증가율	1.4	5.3	22.9	15.8	0.2	10.8
보험영업이익	금액	-8,216	-4,008	-19,262	-10,548	-820	-34,638
	증가율	676.6	209.7	532.8	1146.8	-73.0	321.6
계약자 배당금	금액	2,298	456	348	260	780	1,844
	증가율	15.7	-10.9	34.4	-23.5	-33.7	-19.8
총 보험영업이익	금액	-10,514	-4,463	-19,610	-10,808	-1,600	-36,481
	증가율	245.4	147.1	493.7	811.3	-62.0	247.0
투자영업이익	금액	47,567	12,561	12,222	11,681	12,498	48,962
	증가율	1.2	8.4	1.3	2.1	1.6	2.9
실현자본이익	금액	5,852	984	2,617	1,862	1,718	7,181
	증가율	-173.5	0.3	103.8	-15.4	33.1	22.7
총 투자영업이익	금액	53,419	13,545	14,839	13,544	14,216	56,144
	증가율	36.8	7.7	11.2	-0.7	4.6	5.1
세전 영업이익	금액	38,170	8,610	-7,347	2,007	11,540	14,810
	증가율	-14.8	-15.6	-181.7	-79.9	31.6	-61.2
당기순이익	금액	35,204	7,807	-3,065	3,221	11,171	19,134
	증가율	23.8	-11.8	-139.5	-68.3	37.5	-45.6
자기자본(surplus)	금액	559,247	564,656	559,058	538,627	550,308	550,308
	증가율	9.3	4.4	4.9	-1.1	-1.6	-1.6
지급준비금	금액	560,841	560,795	574,977	578,117	572,604	572,604
	증가율	1.4	1.4	2.8	3.8	2.1	2.1
합산비율		102.4	103.3	117.6	108.6	103.4	108.2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 보험영업이익 + 총 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 P/C Insurers' Full-Year Results (2012, 4).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⁶⁾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 2012년 1/4분기 보험료(분할납+일시납)는 일시납 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5% 늘어난 128억 600만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 기준으로는 13억 파운드 감소함.

- 분할납 보험료는 13억 5,400만 파운드로 나타났고,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대폭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함.
- 일시납 보험료는 114억 5,200만 파운드였으며, 퇴직연금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함.

〈표 6〉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57.3	9.1	9.1	9.4	7.5	35.0	7.4
	증가율	-25.4	-49.1	-46.5	-25.7	-24.6	-38.9	-18.6
	구성비	1.1	0.6	0.5	0.8	0.6	0.6	0.5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187.4	886.0	1,003.3	800.0	781.6	3,470.9	910.3
	증가율	13.5	21.8	7.2	0.7	7.1	8.9	2.7
	구성비	60.7	62.3	60.1	65.3	63.6	62.6	67.2
퇴직연금	보험료	910.9	259.0	381.6	154.4	192.8	987.8	160.0
	증가율	-5.6	26.6	54.8	-26.6	-22.7	8.4	-38.2
	구성비	17.3	18.2	22.9	12.6	15.7	17.8	11.8
역외영업	보험료	36.7	10.9	8.7	7.1	5.3	31.9	4.4
	증가율	73.7	38.2	-0.1	-23.6	-51.1	-12.9	-59.7
	구성비	0.7	0.8	0.5	0.6	0.4	0.6	0.3
보장성보험	보험료	1,062.0	257.8	265.5	253.3	241.2	1,017.7	272.3
	증가율	-11.2	-2.9	-3.6	-2.6	-7.7	-4.2	5.6
	구성비	20.2	18.1	15.9	20.7	19.6	18.4	20.1
합계	보험료	5,254.3	1,422.7	1,668.1	1,224.2	1,228.4	5,543.3	1,354.4
	증가율	3.7	16.3	12.5	-4.9	-2.6	5.5	-4.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7〉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10,153.9	2,523.5	2,333.8	2,069.9	2,047.7	8,974.9	1,992.2
	증가율	-17.8	-6.3	-6.6	-13.9	-19.9	-11.6	-21.1
	구성비	22.7	22.6	18.9	21.0	15.8	19.4	17.4
퇴직연금 계좌	보험료	15,155.0	3,984.3	5,033.2	3,785.6	3,244.0	16,047.2	3,859.8
	증가율	2.1	-2.0	9.4	12.4	4.0	5.9	-3.1
	구성비	33.8	35.6	40.9	38.5	25.0	34.7	33.7
퇴직 연금	보험료	12,831.7	3,072.4	3,400.1	2,270.4	6,403.3	15,146.2	4,376.9
	증가율	20.3	14.8	6.0	-7.6	42.6	18.0	42.5
	구성비	28.7	27.5	27.6	23.1	49.4	32.7	38.2
역외영업	보험료	6,403.4	1,554.3	1,498.1	1,662.8	1,211.4	5,926.7	1,169.4
	증가율	38.4	3.4	-14.8	9.4	-25.3	-7.4	-24.8
	구성비	14.3	13.9	12.2	16.9	9.3	12.8	10.2
보장성 보험	보험료	229.6	53.9	54.3	51.2	55.9	215.3	53.2
	증가율	-3.2	-12.6	0.5	-8.5	-3.7	-6.2	-1.2
	구성비	0.5	0.5	0.4	0.5	0.4	0.5	0.5
합계	보험료	44,773.4	11,188.5	12,319.6	9,839.9	12,962.3	46,310.3	11,451.5
	증가율	4.8	1.7	1.6	0.3	9.4	3.4	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2년 1/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보험료는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 savings), 어린이신탁(stakeholder child trust)보험 등이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함.

○ 금액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억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 생사혼합저축보험과 어린이신탁(가)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억 파운드 감소함.

■ 같은 기간 일시납 기준 보험료는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을 제외한 모든 종목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1.1% 감소함.

7) 어린이신탁보험의 대부분은 stakeholder 어린이신탁보험임.

-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은 전년동기대비 4억 6,600만 파운드 감소하였는데 투자·저축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액(5억 3,200만 파운드) 중 87.6%를 차지함.
- 변액연동채권의 계약건수는 전년동기대비 9,000건 감소하였고, 판매채널별로는 독립재정자문가(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2억 9,300만 파운드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2년 1/4분기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는 분할납 기준으로 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
 - 단체개인연금계좌는 전년동기대비 6억 6,000만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이는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전년동기대비 판매 증가액(2억 4,000만 파운드)을 초과함.
 - 단체개인연금계좌의 경우 계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46,000건 증가하였고, 채널별로는 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7억 파운드 증가함.
- 일시납 기준으로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는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pensions)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s) 판매 대폭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함.
 -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s)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억 1,300만 파운드 감소하여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판매 감소액(1억 2,400만 파운드)의 91%를 차지함.
 - 연금계좌의 경우 계약건수가 전년동기대비 5,000건 감소하였고, 특히 채널별로는 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억 1,700만 파운드 감소함.
-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는 전년동기대비 41.5% 증가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2년 1/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대비 38.2% 감소함.
 - DB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48.7% 감소하였는데 분할납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판매 감소액의 58.6%를 차지함.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채널별로는 전속대리점의 판매 감소가 1억 파운드를 기록하여 DB형 퇴직연금 전년동기대비 판매 감소액(9,900만 파운드)을 초과함.
- DC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30.4% 감소하여, 분할납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판매 감소액의 31.3%를 차지함.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채널별로는 직접 판매의 감소액이 2,300만 파운드를 기록하여 DC형 퇴직연금 전년동기대비 판매 감소액(3,100만 파운드)의 74%를 차지함.

■ 2012년 1/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의 경우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5% 증가함.

- 맞춤형퇴직연금의 전년동기대비 판매 증가액(13억 3,900만 파운드)은 같은 기간 일시납 퇴직연금 판매액 증가액(13억 500만 파운드)을 초과함.
- 맞춤형퇴직연금의 경우 채널별로는 직접판매액이 동 기간 동안 18억 900만 파운드 증가함.

〈역외영업 신규보험료〉

■ 2012년 1/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역외영업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9.7% 감소하여 5분기 연속 감소함.

- 역외영업 보험료는 모든 종목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IFA 판매 저조가 주목됨.

■ 2012년 1/4분기 일시납 기준으로 역외영업, 신규보험료는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유럽 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기인하여, 공동투자채권(personal bonds (pooled))⁸⁾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4.8% 감소함.

- 일시납 기준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억 8,50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역외영업 종목 중 공동투자채권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억 9,400만 파운드 감소함.

8) 뮤추얼 펀드,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임.

- 공동투자채권의 경우 채널별로는 IFA 판매 감소(전년동기대비 3억 8,600만 파운드)가 큰 것으로 나타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2년 1/4분기 분할납 기준 보장성보험은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소득보장보험(group income protection)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6% 성장함.

- 단체생명보험(group life)은 전년동기대비 1,300만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료(1,400만 파운드)의 93%를 차지함.
 - 단체생명보험의 경우 계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8000건 증가하였고, 채널별로는 IFA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1,000만 파운드 증가함.
- 단체소득보장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00만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보장성보험료 증가액의 50%를 차지함.

■ 2012년 1/4분기 분할납 보장성 보험료의 19.5%에 해당하는 일시납 보장성 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 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0만 파운드 감소하였으며, 일시납 보장성 보험 중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은 전년동기대비 400만 파운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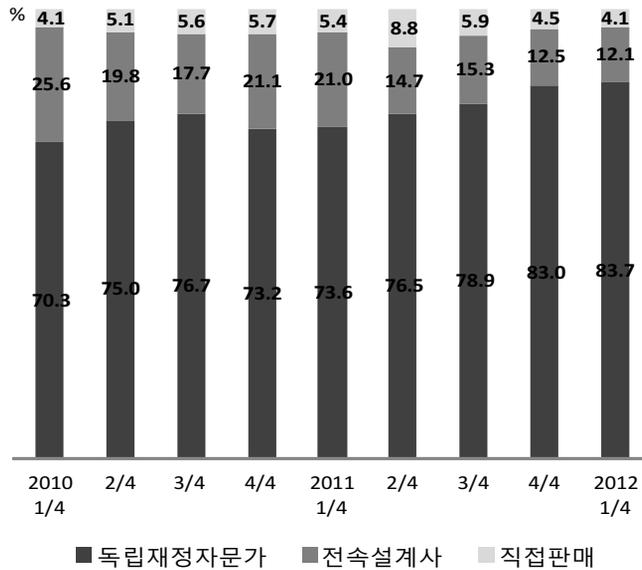
나.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2년 1/4분기 분할납 기준으로 독립재정자문가(IFA)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직접판매와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감소함.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에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0.1%p 증가한 83.7%를 기록함.
- 전속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개인 보장성보험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8.9%p 감소한 12.1%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비중은 퇴직연금과 개인 보장성보험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1.3%p 감소한 4.1%로 나타남.

〈그림 1〉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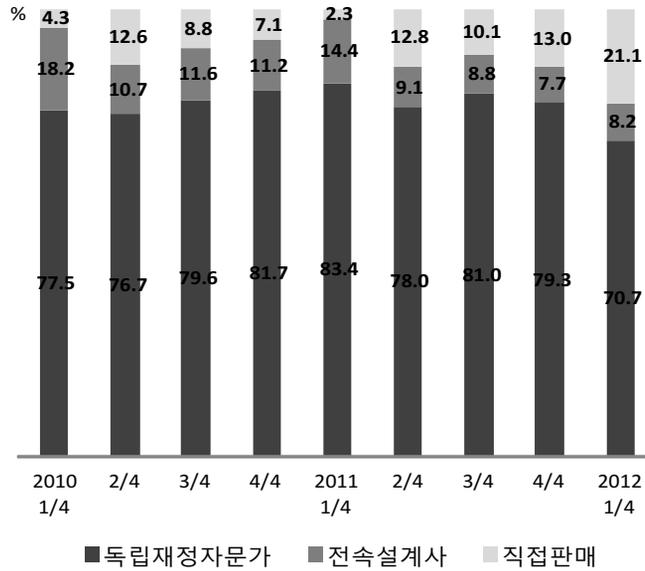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일시납 기준으로 직접판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한 반면,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크게 감소함.

- 직접판매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에서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8.8%p 증가한 21.1%를 기록함.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에서 급격히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12.7%p 감소한 70.7%를 기록함.
- 전속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모든 종목에서 줄어들어 전년동기대비 6.2%p 감소한 8.2%로 나타남.

9)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그림 2〉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2년 1/4분기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된 보험료는 은행에 대한 신뢰 저하의 영향으로 분할납과 일시납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분할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퇴직연금계좌, 보장성보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600만 파운드 감소한 1억 1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는 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억 7,500만 파운드 감소한 9억 2,800만 파운드를 기록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⁰⁾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1 4/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19조 9,238억 엔을 기록함.

〈표 8〉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성	개 인	금 액	653,871	154,803	174,097	178,917	169,856	677,673
		증가율	3.9	-1.4	2.9	3.9	9.3	3.6
		구성비	87.3	85.1	88.5	85.4	85.3	86.1
	- 사 망	금 액	532,941	126,306	145,014	146,156	139,434	556,910
		증가율	5.7	-0.4	5.3	3.2	9.9	4.5
		구성비	71.2	69.4	73.7	69.7	70.0	70.7
	- 생 사 혼 합	금 액	115,697	27,080	27,407	30,885	28,764	114,136
		증가율	-3.3	-6.4	-9.5	5.8	5.3	-1.3
		구성비	15.5	14.9	13.9	14.7	14.4	14.5
	- 생 존	금 액	5,233	1,417	1,676	1,876	1,659	6,628
		증가율	1.8	9.1	34.8	29.6	33.4	26.7
		구성비	0.7	0.8	0.9	0.9	0.8	0.8
	개인연금	금 액	69,759	16,487	18,615	26,131	18,325	79,558
		증가율	-16.2	-6.5	-5.5	62.0	12.5	14.0
		구성비	9.3	9.1	9.5	12.5	9.2	10.1
단체보험	금 액	24,828	10,561	4,063	4,533	11,057	30,214	
	증가율	-15.2	1.3	-13.3	61.5	59.8	21.7	
	구성비	3.3	5.8	2.1	2.2	5.5	3.8	
합계	금 액	748,579	181,850	196,775	209,582	199,238	787,445	
	증가율	0.9	-1.7	1.6	9.6	11.5	5.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0)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사망, 생사혼합, 생존보험이 각각 9.9%, 5.3%, 33.4%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3% 늘어난 16조 9,856억 엔을 시현함.
 - 사망보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기보험이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하였고 종신보험과 정기부종신보험도 각각 18.8%, 31.2%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양로보험과 기타보험이 각각 11.9%, 12.7%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5.3% 상승함.
- 개인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 8.8% 감소하였으나 정액연금보험이 14.4%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한 1조 8,325억 엔을 기록함.
 - 저출산·고령화 및 국가 재정의 악화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단체보험은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고성장(274%)과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증가(57.6%)로 전체 59.8% 증가한 1조 1,057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1 4/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대출금 및 부동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유가증권 확대로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326조 9,525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과 단기자금의 경우 전분기대비 각각 1.0%, 2.0% 감소함.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채와 지방채가 각각 1.4%, 1.9% 증가하였으며, 주식도 전분기대비 9.5% 증가됨에 따라 전체 3.0%의 양호한 성장을 시현함.
 -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0.8% 감소하였으며, 부동산도 0.7% 감소함.

〈표 9〉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0		FY2011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56,560	96.6	31,286	-44.7	46,006	47.0	35,512	-22.8	35,155	-1.0
단기자금	20,096	-9.7	18,496	-8.0	21,533	16.4	25,595	18.9	25,093	-2.0
매입금전채권	30,458	-5.3	31,552	3.6	30,515	-3.3	31,189	2.2	28,894	-7.4
금전신탁	20,712	1.1	20,067	-3.1	19,517	-2.7	19,737	1.1	20,144	2.1
유가증권	2,479,810	0.4	2,493,798	0.6	2,483,074	-0.4	2,500,557	0.7	2,575,603	3.0
- 국채	1,323,987	0.7	1,344,865	1.6	1,374,469	2.2	1,393,340	1.4	1,412,757	1.4
- 지방채	119,164	3.6	122,923	3.2	126,128	2.6	129,152	2.4	131,630	1.9
- 사채	252,836	-3.1	252,272	-0.2	252,680	0.2	251,689	-0.4	253,429	0.7
- 주식	162,149	-3.3	151,322	-6.7	140,236	-7.3	134,667	-4.0	147,444	9.5
- 외화증권	457,384	2.8	459,622	0.5	438,671	-4.6	440,819	0.5	469,237	6.4
대출금	438,772	-2.4	436,174	-0.6	426,622	-2.2	425,334	-0.3	421,739	-0.8
부동산	66,909	-1.9	65,965	-1.4	66,223	0.4	65,570	-1.0	65,139	-0.7
운용자산	3,131,288	0.8	3,112,022	-0.6	3,108,847	-0.1	3,119,521	0.3	3,196,765	2.5
비운용자산	75,623	-2.2	77,948	3.1	79,187	1.6	72,151	-8.9	72,760	0.8
총자산	3,206,912	0.7	3,189,970	-0.5	3,188,034	-0.1	3,191,672	0.1	3,269,525	2.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1 4/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한 1조 9,814억 엔을 시현함.

- 화재보험은 재해 관련 보험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9.3% 상승한 3,541억 엔, 비중은 17.9%를 기록함.
 - 지난해 동북부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화재보험 보험료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8,729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도 13.6% 증가한 2,267억 엔을 시현하며 고성장함.
 - 일본 정부의 에코카 보조금 제도 부활로 신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규모가 확대됨.

〈표 10〉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FY2010	FY2011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13,159	3,384	3,234	3,614	3,541	13,773
	증가율	-5.9	2.1	2.3	5.0	9.3	4.7
	구성비	17.0	16.5	16.5	18.1	17.9	17.2
해상	보험료	1,965	521	481	469	478	1,949
	증가율	5.8	1.4	-0.5	-0.8	-3.4	-0.8
	구성비	2.5	2.5	2.5	2.3	2.4	2.4
운송	보험료	608	166	148	154	154	622
	증가율	-2.9	0.1	2.6	2.3	5.5	2.3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34,314	8,812	8,448	8,772	8,729	34,761
	증가율	0.5	0.1	0.9	1.5	2.8	1.3
	구성비	44.3	42.9	43.2	43.8	44.1	43.5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8,063	2,222	2,211	2,217	2,267	8,917
	증가율	0.1	2.7	1.0	16.9	13.6	10.6
	구성비	10.4	10.8	11.3	11.1	11.4	11.2
상해	보험료	10,403	2,895	2,747	2,626	2,409	10,677
	증가율	1.4	-1.6	2.3	5.8	5.1	2.6
	구성비	13.4	14.1	14.0	13.1	12.2	13.4
특종	보험료	8,966	2,539	2,289	2,158	2,237	9,223
	증가율	0.5	0.4	4.6	0.6	6.4	2.9
	구성비	11.6	12.4	11.7	10.8	11.3	11.5
합계	보험료	77,478	20,541	19,558	20,010	19,814	79,923
	증가율	-0.5	0.5	2.7	4.0	5.6	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상해보험은 수요 회복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2,409억 엔을 기록하였으나,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2,237억 엔을 기록함.
 - 한편, 상해보험은 사고 등에 의한 후유 장애인 증가와 평균 통원 일수 장기화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어 2009년 5월 이후 3년 만에 요율을 평균 15% 인상하기로 함.
- 해상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478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1 4/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국채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 증가로 운용자산이 전분기대비 3.3% 확대되었고, 비운용자산도 0.9% 증가하여 3.0% 늘어난 27조 9,958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0.3% 증가한 9,146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자금도 전분기대비 41.2% 증가한 3,801억 엔을 나타냄.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가 전분기대비 5.4% 증가한 반면, 지방채와 회사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12.0%,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식은 전분기대비 12.5%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12년 1/4분기 일본의 주식시장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주력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닛케이지수가 1988년 이래 최고의 분기상승률을 기록함.

〈표 11〉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추이

(단위: 억 엔, %)

구분	FY2010		FY2011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043	14.9	7,235	-20.0	7,107	-1.8	9,119	28.3	9,146	0.3	
단기자금	7,574	203.1	3,136	-58.6	6,114	94.9	2,691	-56.0	3,801	41.2	
환매조건부채권	1,675	-33.3	2,384	42.4	2,125	-10.9	3,730	75.6	4,071	9.1	
매입금전채권	9,489	-0.2	7,693	-18.9	7,971	3.6	7,430	-6.8	6,741	-9.3	
금전신탁	780	-34.1	762	-2.3	794	4.1	658	-17.1	581	-11.7	
유가증권	국채	50,984	-2.0	51,390	0.8	52,386	1.9	54,786	4.6	57,769	5.4
	지방채	5,311	-5.4	5,207	-2.0	4,693	-9.9	4,457	-5.0	3,924	-12.0
	회사채	32,925	-3.8	31,981	-2.9	31,282	-2.2	29,871	-4.5	29,200	-2.2
	주식	64,394	-3.4	62,804	-2.5	55,645	-11.4	50,904	-8.5	57,242	12.5
	외화증권	47,518	-0.6	47,146	-0.8	45,725	-3.0	44,009	-3.8	43,235	-1.8
	기타증권	3,242	-7.0	3,200	-1.3	2,869	-10.4	2,886	0.6	2,981	3.3
	소계	204,374	-2.6	201,729	-1.3	192,600	-4.5	186,914	-3.0	194,350	4.0
대출금	21,679	-3.8	21,240	-2.0	20,291	-4.5	19,776	-2.5	19,219	-2.8	
부동산	10,718	-0.6	10,637	-0.8	10,571	-0.6	10,489	-0.8	10,749	2.5	
운용자산	265,331	-0.5	254,817	-4.0	247,572	-2.8	240,807	-2.7	248,658	3.3	
비운용자산	31,402	5.4	45,757	45.7	31,255	-31.7	31,011	-0.8	31,300	0.9	
총자산	296,733	0.1	300,575	1.3	278,827	-7.2	271,820	-2.5	279,958	3.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 (<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総合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1)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2년 1/4분기 수입보험료는 4,83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율을 기록함.

- 2011년 12월 이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수입보험료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됨.

〈표 12〉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금액	14,528	4,617	3,440	3,197	3,085	14,339	4,835
	증가율	30.4	1.7	-0.5	-3.9	-3.7	-1.3	4.7
지급보험금	금액	3,200	980	979	914	1,056	3,929	1,172
	증가율	2.4	33.9	32.1	15.8	12.6	22.8	19.5
사업비	금액	1,538	385	437	466	594	1,882	467
	증가율	24.7	20.6	22.4	26.3	20.6	22.4	21.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9.5% 증가한 1,172억 위안, 사업비는 21.2% 증가한 467억 위안을 기록함.

1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바람.

〈자산운용〉

- 2012년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5.9% 증가한 6조 3,679억 위안을 기록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6.1% 증가한 5조 8,882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2.8% 증가한 4,796억 위안을 기록함.

- 예치금 및 투자금은 운용자산 규모 증가함에 따라서 모두 증가세로 나타남.
 - 예치금은 2조 698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지난 2년 동안 최고 수준임.
 - 투자금은 3조 8,183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지난 2년 동안 최저 수준임(2011년 2/4분기 제외).
 - 보험회사들이 안전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것은 운용자산 중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요인이라고 분석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운용자산계	금액	46,047	50,067	52,051	52,611	55,474	55,474	58,882
	증가율	0.0	8.7	4.0	1.1	5.4	20.5	6.1
	구성비	91.2	92.6	90.6	91.9	92.2	92.2	92.5
- 예치금	금액	13,910	16,257	17,658	17,183	17,737	17,737	20,698
	증가율	32.2	16.9	8.6	-2.7	3.2	27.5	16.7
	구성비	27.6	30.1	30.7	30.0	29.5	29.5	32.5
- 투자금	금액	32,137	33,810	34,393	35,428	37,737	37,737	38,183
	증가율	19.5	5.2	1.7	3.0	6.5	17.4	1.2
	구성비	63.7	62.5	59.8	61.9	62.8	62.8	60
비운용자산계	금액	4,435	3,997	5,419	4,646	4,664	4,664	4,796
	증가율	37.8	-9.9	35.6	-14.3	0.4	5.2	2.8
	구성비	8.8	7.4	9.4	8.1	7.8	7.8	7.5
총자산	금액	50,482	54,064	57,470	57,257	60,138	60,138	63,679
	증가율	24.2	7.1	6.3	-0.4	5.0	19.1	5.9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의 누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들어 자본시장 유동성 증가, 재테크 상품 수익률 하락으로 인보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나타남.
 - 2012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534억 위안¹²⁾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함.
 - 2011년 말부터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중앙은행이 발행한 상업어음 만기 도래로 채권 시장 및 주식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인보험의 수익률이 높아짐.
 -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로 재테크 상품 수익률은 2011년 말에 5.22%에서 2012년 1/4분기 말에 4.98%까지 하락하여 인보험 판매량은 증가세로 나타남.

- 인보험 수입보험료 중 생명보험은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거나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은 상승세로 나타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3,20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한 229억 위안을, 상해보험은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한 103억 위안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자본시장 유동성 증가, 경제 정책의 조정으로 변액생명보험의 자금운용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타났지만 변액연금보험의 판매량이 아직 크게 증가하지 못함.
 - 1/4분기 187개 변액생명보험 자금운용 계좌의 월별 평균 수익률이 0.42%, 3.16%, -2.1%를 기록하며 분기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타남 .
 - 이중 3개의 변액연금보험¹³⁾의 판매량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에 5%밖에 못 미쳐서 판매 중지 가능성이 있음.

12) 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가 포함됨.

13) 2011년 8월부터 중국에서 변액연금보험이 출시되었는데, 처음에 동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Axa-minmetals, Metlife 2개가 있었으며 2011년 11월에 Huatailife 추가기업으로 동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표 14〉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료	10,632	3,484	2,213	2,082	1,942	9,721	3,534
	증가율	28.7	-1.8	-9.1	-12.9	-14.2	-8.6	1.4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 생명보험	보험료	9,680	3,210	1,943	1,829	1,714	8,696	3,203
	증가율	29.8	-2.5	-10.8	-15.1	-16.6	-10.2	-0.2
	구성비	91.0	92.1	87.8	87.8	88.2	89.4	90.6
- 건강보험	보험료	677	187	181	165	159	692	229
	증가율	18.0	1.3	0.6	2.5	4.4	2.2	22.4
	구성비	6.4	5.4	8.2	7.9	8.2	7.1	6.5
- 상해보험	보험료	275	87	89	88	70	334	103
	증가율	19.7	23.3	18.7	20.5	25.2	21.5	17.9
	구성비	2.6	2.5	4.0	4.2	3.6	3.4	2.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599억 위안으로 8.8% 증가세로 나타남.

○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더 높지만, 수지비율이 오히려 하락세로 나타남.

○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15.3%, 24.7% 증가하며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은 24% 하락함.

〈표 15〉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금	1,444	551	471	362	358	1,742	599
	증가율	-6.8	49.7	36.1	4.0	-6.2	20.7	8.8
- 생명보험	보험금	1,109	437	332	263	269	1,301	503
	증가율	-12.6	50.7	23.4	0.0	-6.3	17.3	15.3
- 건강보험	보험금	264	96	120	78	66	360	73
	증가율	21.7	54.8	100.0	18.2	-13.6	36.2	-24.0
- 상해보험	보험금	71	18	19	21	24	82	22.5
	증가율	11.7	5.9	18.8	10.5	19.2	15.3	24.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보험회사의 인보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다소 상승한데 반해,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세로 나타남.

- 중국계 인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96.7%로 전년동기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외자계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0.1% 하락한 3.3%를 기록함.
- 상위 5개사는 인보험시장에 72.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2.5% 하락하였음.¹⁴⁾

14)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인수생명보험, 평안인수생명보험, 신화인수생명보험, 중국인민생명보험은 각각 32.7%, 14%, 10.1%, 9.2%, 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16〉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2.8	75.4	72.4	72.1	69.1	72.8	72.9
		중소형사	21.6	21.2	23.0	24.5	25.7	23.2	23.8
		소 계	94.4	96.6	95.4	96.6	94.8	96.0	96.7
	외자계	5.6	3.4	4.6	3.4	5.2	4.0	3.3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2년 1/4분기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실적 호전으로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1,301억 위안을 기록함.

○ 2012년 2월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표 17〉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손해보험	보험료	3,896	1,133	1,227	1,115	1,143	4,618	1,301
	증가율	35.5	13.9	19.9	19.0	21.5	18.5	14.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2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한 573억 위안을 기록함.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음.

〈표 18〉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금	1,756	429	508	552	698	2,187	573
	증가율	11.4	17.9	28.6	25.2	25.5	24.5	33.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2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포함)가 1,35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한 가운데, 중국계 보험회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변화가 있음.
- 중국계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339억 위안으로 0.1% 하락한 98.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외자계 보험회사는 13.5억 위안으로 0.1% 증가한 1.2%에 그침.
-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인 중국인민재산, 타이핑양재산, 평안재산은 각각 36.1%, 12.7%, 17.9%의 점유율로 손해보험시장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1.5% 하락하였음.

〈표 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6.4	68.2	66.2	66.2	65.9	66.6	66.7
		중소형사	32.5	30.7	32.8	32.7	33.0	32.3	32.1
		소 계	98.9	98.9	98.9	98.9	98.9	98.9	98.8
	외자계	1.1	1.1	1.1	1.1	1.1	1.1	1.2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

■ 2012년 1/4분기 중국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0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 규모는 1,56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3.3% 증가함.

○ 2007년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 수탁업무가 전국에 걸쳐 허용되면서 5년간 급성장 하였음에도 기업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중국은 2004년 4월 기업연금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2007년 10월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업무가 정식으로 허용됐으며, 현재 5개의 연금보험회사가 존재함.

○ 2011년 12월 현재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연금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20〉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0		2011					2012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탁보험료	금액	135	357	169	45	87	109	410	207
	증가율	-	35.2	128.4	-41.6	22.5	-19.3	14.8	22.0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1,039	1,039	1,147	1,216	1,265	1,378	1,378	1,561
	증가율	12.9	46.8	10.4	6.0	4.0	8.9	32.6	13.3

주: 1)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수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3) 2010년 4/4분기 수탁보험료 증가율은 결측수치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기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6호 (4. 2)	<p>금감원,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 등의 총 건수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52만 516건으로 나타남. · 금융상담, 금융민원, 상속인조회가 각각 24.2%, 17.4%, 17.5% 증가함. (2011년 중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금감원, 3/23)
제176호 (4. 2)	<p>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동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금감원, 3/28)
제177호 (4. 9)	<p>2011년도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중 국내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0%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4억 1,000만 달러, 자기자본은 1억 7,640만 달러(11.4% 감소), 부채는 2억 3,360만 달러(47.4% 증가) 수준임. (‘11년도(‘11. 1~12월) 생보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금감원, 4/3)
제177호 (4. 9)	<p>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전월대비 상승률도 -0.1%를 기록함. (2012년 3월 소비자물가 2%대 진입 등, 기재부 등, 4/2)
제178호 (4. 16)	<p>동양생명 매각 성공 가능성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생명은 4월 10일 보고편드에 동양생명 인수가격과 조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4월 12일 보고편드와 인수가격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마감시한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으나 동양생명 매각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한국경제, 매일경제 외)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8호 (4. 16)	<p>금융위,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연금저축의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연금저축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익률, 수수료 등 연금저축에 대한 통합공시 방안과 더불어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금융위, 4/4)
제179호 (4. 23)	<p>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세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되며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2012년 2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발표, 한국은행, 4/18)
제179호 (4. 23)	<p>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추진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금융위, 4/16)
제180호 (4. 30)	<p>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모집인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금융회사는 업무위탁계약 해지 이외에도 수수료 감액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 4/18)
제180호 (4. 30)	<p>보험사기 규모 3조 4천억 원, 가구당 추가보험료 부담은 20만 원 수준으로 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FY2010 공제기관을 포함한 민영보험 부문의 보험사기 누수금액을 3조 4,105억 원으로 추정함 · 또한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4,237억 원이었으며, 적발인원은 4.5% 증가한 72,333명을 기록함. (연간 보험사기 규모추정, 금감원, 4/25)
제181호 (5. 7)	<p>2012년 경기 회복 불투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4분기 우리 경제는 유럽재정위기의 여파에서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소비 기여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올해 무역수지 감소, 내수둔화가 전망되고 하반기에는 정부소비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기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보도자료 외)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1호 (5. 7)	<p>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등 실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이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바로잡을 계획임. <p>(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 금감원, 4/27)</p>
제182호 (5. 14)	<p>저축은행 구조조정, 난항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2012년 5월 6일 솔로몬저축은행의 3개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음. ·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각처리 될 것으로 보이나 인수가능 주체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p>(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금융위, 5/6)</p>
제182호 (5. 14)	<p>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소폭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년말대비 0.15%p 상승한 1.5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 2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한 이후 2012년 초 부실채권 정리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p>(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금감원, 5/8)</p>
제183호 (5. 21)	<p>양호한 국내은행의 대외신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과 대북 리스크 부각에도 2012년 4월말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여건과 유동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은행의 외화건전성 비율은 금감원의 지도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p>(12년 4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및 유동성 현황, 금감원, 5/15)</p>
제183호 (5. 21)	<p>강화되는 금융소비자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임. ·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입법도 재추진됨. <p>(「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5/10)</p>
제184호 (5. 29)	<p>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직접금융 자금조달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총 10조 2,971억 원으로 전월 13조 1,567억 원에서 21.7% 감소하였으며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규모는 연초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로지역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제 성장 불확실성, 국내 민간소비 둔화 조짐 등으로 인한 증시 불안이 원인으로 보임. <p>(2012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전월대비 21.7%감소, 5/21, 금감원)</p>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4호 (5. 29)	<p>OECD,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2년 3.3%, 2013년 4%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지난 전망치 보다 각각 0.2%p, 0.3%p 낮아진 수치임. (OECD 경제전망 발표 등, 기재부 등, 5/22)
제185호 (6. 4)	<p>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4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1.49%로 전월 말 1.32% 대비 0.17% 상승하였음. 2012년 대내외 불안요인 및 주택·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국내은행의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채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 (2012년 4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금감원, 5/23)
제185호 (6. 4)	<p>가계신용 증가율 3분기 연속 둔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1/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09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대비 5,000억 원 감소하여 911조 4,000억 원을 기록함. (2012년 1/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 5/24)
제186호 (6. 11)	<p>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 둔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전기 대비 0.2%에 그쳐 201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때문임. 총저축률은 31.3%로 전분기보다 1.2%p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종소비지출이 2.2% 증가하였고,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0.4%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2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6/7)
제186호 (6. 11)	<p>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소폭 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말대비 0.08%p 하락한 13.88%를 기록하였으며, Tier1 비율도 11.05%로 0.04%p 하락함. (2012년 3월 말 국내은행 BIS비율 현황, 금감원, 6/1)
제187호 (6. 18)	<p>금융위,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는 변액보험 문제점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보험산업 신뢰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 중심의 보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변액보험 제도 개선, 금융위, 6/7)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8호 (6. 25)	<p>IMF,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 시사</p> <p>· IMF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보다 0.25%p 낮은 3.2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25%로 하향 전망, 기재부, 6/12)</p>
제188호 (6. 25)	<p>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 제도’ 도입</p> <p>·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료비 신속지급제도’시행, 금감원, 6/18)</p>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6호 (4. 2)	<p>미국 주택시장, 침체 지속</p> <p>· 1월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기대비 3.8% 하락하였으며, 미국 주택가격은 10여년 전인 2003년 초 수준으로 나타남. (Reuters, 3/27 등)</p>
제177호 (4. 9)	<p>미국 경제지표 호조세 지속</p> <p>· 2011년 4/4분기 미국 GDP 성장률(확정치)이 2010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3.0%를 기록하였고, 2012년 2월 소비지출과 소비자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Washington Post, 4/3 등)</p>
제178호 (4. 16)	<p>미국 금융기관들의 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논란</p> <p>· 미국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에 따른 대출 관련 손실을 회복한 이후 최근 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New York Times, 4/10)</p>
제179호 (4. 23)	<p>심각해진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 부유층 증세 논란 확대</p> <p>·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머스 피케티와 엠마누엘 사에즈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197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공황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New York Times, 4/16)</p>
제180호 (4. 30)	<p>미국 고용시장의 질적 악화와 경기회복 지연</p> <p>· 전반적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소득 감소, 학자금 대출 문제 등이 제기됨. (Bloomberg, 4/24 등)</p>
제181호 (5. 7)	<p>미국 제조업 상승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나</p> <p>· 4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3월에 비해 1.4p 상승한 54.8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임. (Financial Times, 5/1 등)</p>
제182호 (5. 14)	<p>4월 실업률 하락 불구, 시장반응은 냉담</p> <p>· 미 노동부는 4월 실업률이 8.1%로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신규 일자리 규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함. (CBS, 5/4 등)</p>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3호 (5. 21)	<p>JP모건체이스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은행산업 규제강화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신용평가회사들은 JP모건체이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고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조사에 착수함. <p>(Associate Press, 5/15 등)</p>
제184호 (5. 29)	<p>미국 주택시장 회복세 가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미국 전역에 걸쳐 기존주택 판매가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힘. <p>(Bloomberg, 5/22 등)</p>
제185호 (6. 4)	<p>공적연금 예정 투자수익률 하향조정 압력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환경이 지속되고 주식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7~8%의 높은 예정 투자수익률을 설정하고 있는 공적 연금 펀드의 예정 수익률 하향조정 압력이 증가함. <p>(New York Times, 5/27)</p>
제186호 (6. 11)	<p>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추가 양적완화 기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시장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고 실업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 <p>(Washington Post, 6/1 등)</p>
제187호 (6. 18)	<p>미국 가계 순자산,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1일 미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금융조사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진행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계 순자산은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산층의 순자산 감소폭이 커지면서 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p>(New York Times, 6/11 등)</p>
제188호 (6. 25)	<p>미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0일 미 연준은 경기전망이 여전히 어둡다고 지적하고 2012년 6말 종료예정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2012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p>(Financial Times, 6/20 등)</p>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6호 (4. 2)	<p>독일과 EU, 구제기금 확대 논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30~31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구제기금 확대가 합의될 것으로 예상됨. <p>(Financial Times, 3/27 등)</p>
제177호 (4. 9)	<p>유로존 2월 실업률 10.8%로 최고치 경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의 2012년 2월 실업률은 10.8%로 전월의 10.7%에서 소폭 상승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는데 이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p>(Bloomberg, 4/2)</p>
제178호 (4. 16)	<p>스페인 위기 조기 불식을 위한 ECB의 스페인 국채 매입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의 구제금융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스페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개 의사 표명으로 유럽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p>(Financial Times, 4/11)</p>
제179호 (4. 23)	<p>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와 국채 투자 감소의 악순환 지속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ECB의 국채 매입 시사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6%대를 넘어섰고, 국채 투자 자금 이탈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 <p>(Bloomberg, 4/15, 4/17)</p>
제180호 (4. 30)	<p>재정긴축과 경기불안 악순환 속에 정치적 반발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됨으로써 유럽 내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름. <p>(New York Times, 4/23)</p>
제181호 (5. 7)	<p>유로존 위기 해법, 긴축에서 성장으로 변화 조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의 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긴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게 됨. <p>(Wall Street Journal, 5/1)</p>
제182호 (5. 14)	<p>유럽 선거 이후 재정위기 심화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정권교체와 그리스 연립정부구성 실패로 재정긴축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 짐. <p>(Wall Street Journal, 5/7, 5/8, 5/9)</p>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3호 (5. 21)	<p>유로존 1/4분기 제로 성장, 2/4분기 경기침체 진입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제자리를 기록하면서 공식적인 경기침체 진입은 잠시 지연되었으나, 경기침체 위험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p style="text-align: right;">(Bloomberg, 5/11)</p>
제184호 (5. 29)	<p>난항을 겪는 유로본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이견만 재확인한 채 끝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못함. <p style="text-align: right;">(Financial Times, 5/23)</p>
제185호 (6. 4)	<p>스페인, 구제금융 우려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은행권 부실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됨. <p style="text-align: right;">(Financial Times, 5/30)</p>
제186호 (6. 11)	<p>ECB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 先 자구책 마련 後 경기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갖고 있으나, 유럽 정부들을 압박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1.0%)하였다고 분석함. <p style="text-align: right;">(Wall Street Journal, 6/7)</p>
제187호 (6. 18)	<p>유로존 해체 가능성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EU)의 위기 대응력 미흡으로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구제금융설도 제기되었고, 유로존 와해 가능성이 높아짐. <p style="text-align: right;">(Wall Street Journal, 6/13, 6/14)</p>
제188호 (6. 25)	<p>독일의 입장 선회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 기대감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으로 재정긴축만을 고수해 왔던 독일이 기존의 강경 입장을 선회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 <p style="text-align: right;">(Wall Street Journal, 6/20)</p>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6호 (4. 2)	<p>일본생명, 주계약 통합상품 개발 혁신(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생명은 개인보험의 특약상품 판매를 종료하고 4월 2일부터 고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주계약 보험상품을 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품 전략을 전환하는 혁신(안)을 발표함. <p>(마이니치, 요미우리신문, 3/24 등)</p>
제177호 (4. 9)	<p>인터넷 생명보험,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나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생명보험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생명보험’의 판매가 20~30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p>(산케이 외, 4/4)</p>
제178호 (4. 16)	<p>FY2011 일본손해보험 대형 5개사 보험료 수입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1 일본 대형 손보 5개사의 보험료(잠정) 수입은 자동차보험 및 지진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에코카 보조금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크게 상승함. <p>(산케이 신문 외, 4/6)</p>
제179호 (4. 23)	<p>미츠이 스미토모, 아시아 생명보험시장 진출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미츠이 스미토모 보험그룹은 인도의 유력 기업인 맥스인도그룹 산하 생명보험회사인 맥스뉴욕생명의 지분6%(약 450억 엔)를 4월 12일 취득함에 따라 인도 현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p>(요미우리 신문 외, 4/13)</p>
제180호 (4. 30)	<p>지진보험제도 전면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재무성이 계약자의 보험료 수준과 재해 시 보험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의견 합의를 거친 뒤 지진보험제도를 올 가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함. <p>(마이니치 신문 외, 4/23)</p>
제181호 (5. 7)	<p>2013년부터 사고운전자의 차량보험료 대폭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손보사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사업의 수지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최대 51%까지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p>(아사히 외, 5/2)</p>
제182호 (5. 14)	<p>일본 정부의 재보험을 통한 해외진출 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수출보험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대형 손보 3사의 태국 현지법인들이 자국기업에 판매하는 무역보험에 대해 재보험 협약을 맺기로 함. <p>(산케이 외, 5/9)</p>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3호 (5. 21)	<p>자동차 수요 변화로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 파산 급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FY2011 자동차 정비업체의 파산 건수는 전년대비 41.8%, 자동차 부품 및 차량용품 도매점의 파산 건수는 전년대비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p style="text-align: right;">(J-CAST, 5/13)</p>
제184호 (5. 29)	<p>Fitch,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Ratings)는 5월 22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구, 중국 등과 같은 수준인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한다고 밝힘. <p style="text-align: right;">(일본 및 국내 주요 뉴스, 5/23)</p>
제185호 (6. 4)	<p>일본 주요 12개 생명보험회사, 전년대비 경상이익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월 24일 발표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FY2011 실적에 따르면 주요 13개사 가운데 12개사의 경상이익이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개선됨. <p style="text-align: right;">(산케이 외, 5/25)</p>
제186호 (6. 11)	<p>일본 생보사, 젊은 층 대상으로 판매 전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젊은 층의 보험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를 강화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 6/7)</p>
제187호 (6. 18)	<p>일본 국토교통성, 이란산 원유 수송 유조선에 선박보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이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재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제재조치를 가하면서 일본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일본정부가 최대 76억 달러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특별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p style="text-align: right;">(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6/11)</p>
제188호 (6. 25)	<p>가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와 해외투자자의 채권투자 비중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2년 3월말 자금순환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자산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1,513조 3,619억 엔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일본은행, 6/20)</p>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6호 (4. 2)	<p>중국 생명보험, 2012년 1~2월 실적부진으로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p> <p>· 3월 2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1~2월 전국보험업 영업상황' 보고서에서 생명보험의 실적부진으로 전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메일경제신문, 하신망, 3/27 등)</p>
제177호 (4. 9)	<p>해외기관 직접 투자 한도 대폭 확대로 자본시장 국제화 촉진</p> <p>· 지난 4월 3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중국 증시 직접투자 해외기관(QFII)과 축적 위안화 직접투자 해외기관(RQFII)들의 투자한도를 각각 800억 달러(기존 300억 달러)와 500억 위안(기존 200억 위안)으로 대폭 인상하였음. (신량망, WSJ, 틴쉬, 4/9 등)</p>
제178호 (4. 16)	<p>세계은행,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p> <p>·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중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2 하향 조정함. (세계은행, 4/11)</p>
제179호 (4. 23)	<p>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대한 상반된 평가</p> <p>·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이 성장 전략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함. (WSJ, 4/17)</p>
제180호 (4. 30)	<p>중국 경제 지형도 변화 조짐</p> <p>· 중국 동부 연안지역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중부와 서부지역은 성장세가 빨라지면서 중국의 경제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화통신, 4/24)</p>
제 181호 (5. 7)	<p>중국 자동차책임보험시장 개방</p> <p>· 중국 정부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에게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함. (Reuters, 5/2)</p>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82호 (5. 14)	<p>높아진 중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4분기 중국 경제 성장세가 지난 3년 중 가장 둔화됨과 동시에 정부 및 일부 전문가들이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대로 낮추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대두됨. <p style="text-align: right;">(Reuters, 5/6)</p>
제183호 (5. 21)	<p>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로 경기부양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p style="text-align: right;">(WSJ, 5/11)</p>
제184호 (5. 29)	<p>중국, 경기부양 본격화 조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며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남. <p style="text-align: right;">(FT, Bloomberg 5/24)</p>
제185호 (6. 4)	<p>위안화의 국제화 가속화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대외 수출 둔화와 일본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양국의 경기 부양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은 6월 1일부터 위안화와 엔화를 직접 거래하기로 결정함. <p style="text-align: right;">(Bloomberg 5/29)</p>
제186호 (6. 11)	<p>중국, 해외투자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중국의 해외투자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 기업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p style="text-align: right;">(WSJ, 6/6)</p>
제187호 (6. 18)	<p>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였으나 시중상업은행의 예금금리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 <p style="text-align: right;">(WSJ, 5/29)</p>
제188호 (6. 25)	<p>중국 기본양로보험연금, 10년 후 고갈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0일 신화망은 2011년 말 1.92조 위안으로 발표된 기본양로보험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적립금이 실제로는 1.7조 위안 부족한 2,039억 위안에 불과하다고 발표함. <p style="text-align: right;">(신화망, 신랑망, 5/29)</p>

VI.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7.5	4.4	4.7	4.2	3.4	3.5	3.4	2.8	
경상수지	10,735	10,122	8,469	2,610	5,492	6,896	10,430	2,560	
수출	117,120	116,756	126,617	127,691	142,723	141,394	140,369	134,851	
수입	104,813	105,190	114,704	121,849	135,062	134,196	131,208	133,399	
실업률	3.5	3.5	3.3	4.2	3.4	3.1	2.9	3.8	
금리	국고채(3년)	3.74	3.70	3.30	3.80	3.68	3.60	3.41	3.55
	회사채(3년)	4.61	4.63	4.16	4.59	4.46	4.34	4.26	4.35
소비자물가지수	99.6	100.4	100.9	102.8	103.6	104.7	104.9	105.9	
환율	원/달러	1,210.30	1,142.00	1,138.90	1,107.20	1,078.10	1,179.50	1,145.70	1,137.80
	원/엔화	1,364.56	1,363.34	1,397.08	1,331.89	1,335.69	1,536.61	1,485.16	1,380.74
KOSPI	1,698.3	1,872.8	2,051.0	2,106.7	2,100.7	1,769.7	1,849.8	2,014.0	
외환보유고	274,219	289,775	291,571	298,618	304,485	303,384	306,402	315,952	

주: 1) 환율, 추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4	3/4	4/4	1/4	2/4	3/4	4/4	1/1
보험	113,206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122,280
- 생보	79,340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96,041
- 손보	33,866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26,239
은행	265,044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269,108
- 일반	247,333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190,485
- 신탁	17,711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78,623
증권	15,820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44,117
투신	-83,616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50,029
총금	-22,687	-13,827	9,480	-10,921	-40,343	-2,093	-52,656	11,809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44,312	44,496	170,897	40,937	43,061	43,773	51,654	179,425
	증가율	8.6	8.8	11.6	1.5	3.1	-1.2	16.1	5.0
	구성비	19.0	21.0	20.6	19.4	20.8	18.5	23.1	20.4
사망	보험료	71,895	71,632	287,162	71,520	71,649	71,772	72,171	287,112
	증가율	-1.0	-1.0	-0.8	-0.3	-0.3	-0.2	0.8	0.0
	구성비	30.8	33.8	34.6	34.0	34.6	30.3	32.2	32.7
생사 혼합	보험료	27,370	28,786	105,215	27,350	28,489	29,406	37,134	122,378
	증가율	28.8	23.1	28.2	13.1	14.5	7.4	29.0	16.3
	구성비	11.7	13.6	12.7	13.0	13.8	12.4	16.6	13.9
변액 보험	보험료	50,600	52,949	194,130	52,972	54,714	52,149	53,102	212,937
	증가율	14.0	18.9	12.9	17.8	20.0	3.1	0.3	9.7
	구성비	21.7	25.0	23.4	25.2	26.4	22.0	23.7	24.2
개인계	보험료	194,177	197,863	757,403	192,778	197,913	197,100	214,061	801,852
	증가율	8.4	9.2	8.7	6.4	7.5	1.5	8.2	5.9
	구성비	83.2	93.3	91.2	91.5	95.6	83.2	95.6	91.3
단체	보험료	39,241	14,242	72,672	17,839	9,040	39,798	9,831	76,508
	증가율	-11.9	38.6	-0.5	59.9	12.5	1.4	-31.0	5.3
	구성비	16.8	6.7	8.8	8.5	4.4	16.8	4.4	8.7
합계	보험료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236,899	223,891	878,360
	증가율	4.4	10.8	7.9	9.5	7.7	1.5	5.6%	5.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7,107	26,149	95,267	22,312	26,191	25,789	26,428	100,720
	증가율	27.4	18.3	12.0	8.5	22.2	-4.9	1.1	5.7
	지급률	61.2	58.8	55.7	54.5	60.8	58.9	51.2	56.1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36,739	37,843	147,289	36,023	37,941	38,191	40,956	153,111
	증가율	2.5	1.8	-1.3	0.0	3.4	4.0	8.2	4.0
	지급률	51.1	52.8	51.3	50.4	53.0	53.2	56.7	53.3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18,789	14,872	58,198	12,250	13,020	13,229	14,533	53,032
	증가율	-18.8	-24.8	-17.5	1.8	4.1	-29.6	-2.3	-8.9
	지급률	68.6	51.7	55.3	44.8	45.7	45.0	39.1	43.3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9,263	35,562	129,385	33,532	26,282	23,464	31,495	114,772
	증가율	79.1	52.1	59.2	29.7	-8.4	-40.2	-11.4	-11.3
	지급률	77.6	67.2	66.6	63.3	48.0	45.0	59.3	53.9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21,899	114,425	430,139	104,117	103,433	100,672	113,413	421,635
	증가율	19.3	11.7	11.4	10.2	4.1	-17.4	-0.9	-2.0
	지급률	62.8	57.8	56.8	54.0	52.3	51.1	53.0	52.6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42,941	32,797	106,952	28,259	13,788	39,190	14,077	95,315
	증가율	17.4	40.0	22.1	52.0	9.3	-8.7	-57.1	-10.9
	지급률	109.4	230.3	147.2	158.4	152.5	98.5	143.2	124.6
전체	지급보험금	164,841	147,222	537,091	132,376	117,221	139,863	127,490	516,950
	증가율	18.8	17.0	13.4	17.1	4.7	-15.2	-13.4	-3.8
	지급률	70.6	69.4	64.7	62.9	56.6	59.0	56.9	58.9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	사업비	8,336	8,972	32,942	8,802	9,138	8,827	9,168	35,935
	증가율	0.6	17.7	8.1	12.3	17.2	5.9	2.2%	9.1%
	사업비율	18.8	20.2	19.3	21.5	21.2	20.2	17.7%	20.0%
사망 보험	사업비	18,185	20,460	75,645	19,017	20,312	20,788	20,939	81,056
	증가율	-6.9	11.9	2.5	1.8	10.8	14.3	2.3%	7.2%
	사업비율	25.3	28.6	26.3	26.6	28.3	29.0	29.0%	28.2%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5,745	6,232	21,844	6,058	6,147	5,878	6,216	24,299
	증가율	9.7	24.0	9.2	26.8	20.8	2.3	-0.2%	11.2%
	사업비율	21.0	21.6	20.8	22.2	21.6	20.0	16.7%	19.9%
개인 보험계	사업비	32,265	35,663	130,431	33,877	35,597	35,493	36,324	141,291
	증가율	-2.4	15.3	5.0	8.3	14.0	10.0	1.9%	8.3%
	사업비율	16.6	18.0	17.2	17.6	18.0	18.0	17.0%	17.6%
단체 보험계	사업비	953	1,212	4,216	979	1,052	1,209	1,121	4,362
	증가율	-5.5	23.0	13.1	-10.7	10.2	26.9	-7.5%	3.4%
	사업비율	2.4	8.5	5.8	5.5	11.6	3.0	11.4%	5.7%
전체	사업비	33,218	36,875	134,647	34,857	36,649	36,702	37,445	145,652
	증가율	-2.5	15.5	5.2	7.6	13.9	10.5	1.5%	8.2%
	사업비율	14.2	17.4	16.2	16.5	17.7	15.5	16.7%	16.6%

-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연간	1/4	2/4	3/4	4/4
화재	보험료	602	779	657	2,660	624	598	758	656
	증가율	-4.7	-2.4	-3.2	-3.7	0.4	-0.7	-2.7	-0.2
	구성비	0.5	0.5	0.5	0.5	0.4	0.4	0.5	0.4
해상	보험료	1,970	1,939	1,728	7,721	2,393	2,138	1,833	2,335
	증가율	-2.0	4.4	-12.1	-4.1	14.8	8.5	-5.5	35.2
	구성비	1.6	1.3	1.3	1.5	1.7	1.5	1.1	1.5
자동차	보험료	30,581	32,103	32,143	124,133	31,977	33,128	32,803	32,507
	증가율	8.3	12.7	13.8	10.6	9.1	8.3	2.2	1.1
	구성비	25.0	21.9	24.2	23.8	22.7	23.3	19.7	20.2
보증	보험료	2,978	3,417	3,483	13,074	3,547	3,634	3,908	4,083
	증가율	3.1	10.0	11.4	6.4	11.0	22.0	14.4	17.2
	구성비	2.4	2.3	2.6	2.5	2.5	2.6	2.4	2.5
특종	보험료	9,030	9,955	8,469	37,120	10,409	10,270	11,026	9,525
	증가율	7.2	11.6	11.4	11.5	7.7	13.7	10.8	12.5
	구성비	7.4	6.8	6.4	7.1	7.4	7.2	6.6	5.9
해외 원보험	보험료	568	702	623	2,326	636	667	854	1,007
	증가율	13.6	6.2	16.6	11.9	46.9	17.4	21.8	61.6
	구성비	0.5	0.5	0.5	0.4	0.5	0.5	0.5	0.6
장기 손해	보험료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81,166	86,877	96,572
	증가율	21.2	21.4	16.5	21.0	15.3	16.9	20.4	31.3
	구성비	56.7	49.3	55.3	53.9	54.6	57.2	52.3	60.1
개인 연금	보험료	5,818	6,444	6,908	24,697	7,586	8,200	9,145	9,343
	증가율	43.7	29.6	33.6	38.4	37.2	40.9	41.9	35.2
	구성비	4.8	4.4	5.2	4.7	5.4	5.8	5.5	5.8
퇴직 보험	보험료	273	3,940	111	5,284	516	4	92	224
	증가율	-47.5	-42.3	-80.7	-39.1	-46.3	-98.6	-97.7	102.3
	구성비	0.2	2.7	0.1	1.0	0.4	0.0	0.1	0.1
퇴직 연금	보험료	1,123	14,890	5,218	23,616	6,218	2,169	18,857	4,547
	증가율	107.4	194.9	161.7	190.9	160.7	93.2	26.6	-12.8
	구성비	0.9	10.2	3.9	4.5	4.4	1.5	11.3	2.8
계	보험료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6,153	160,799
	증가율	16.5	21.8	17.5	19.2	16.5	16.0	13.6	21.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7.2	300.2	47.4	61.0	66.3	62.6
	사업비율	49.6	55.1	49.8	55.9	45.3	52.7
	합산비율	42.4	355.3	97.2	116.9	111.6	115.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143.6	109.6	58.7	42.2	63.5	60.2
	사업비율	37.1	30.8	22.3	35.2	31.3	42.1
	합산비율	180.7	140.4	81.1	77.4	94.7	102.3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7.8	33.8	43.9	43.0	65.0	67.5
	사업비율	20.7	19.4	8.1	11.0	14.6	14.4
	합산비율	48.5	53.2	52.0	54.0	79.6	81.9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2.2	66.4	61.6	69.2	70.9	69.6
	사업비율	21.9	27.5	21.1	19.4	17.2	23.6
	합산비율	84.1	93.9	82.7	88.5	88.2	93.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3.8	41.9	43.5	56.6	53.8	55.5
	사업비율	60.7	70.0	50.0	41.3	46.0	50.1
	합산비율	104.5	111.9	93.5	97.9	99.8	105.6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82.3	69.9	54.4	78.5	112.1	131.0
	사업비율	25.1	26.8	26.7	27.5	29.4	29.4
	합산비율	107.5	96.7	81.1	106.0	141.5	160.4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5.9	77.1	79.6	83.3	85.4	80.6
	사업비율	30.2	30.0	20.7	20.2	20.8	22.0
	합산비율	116.1	107.1	100.2	103.5	106.2	102.5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6	80.5	81.7	82.6	83.2	84.6
	사업비율	17.4	17.8	16.8	16.8	16.4	16.7
	합산비율	99.0	98.4	98.5	99.4	99.6	101.2
전체	경과손해율	80.2	77.8	78.2	80.7	82.7	82.8
	사업비율	21.7	22.3	18.3	18.2	18.1	18.9
	합산비율	101.9	100.1	96.5	98.9	100.8	101.7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 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 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 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 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 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 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 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 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 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 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 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 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 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 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 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 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 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 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 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 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 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 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 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 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 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 7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 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 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 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 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 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 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 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 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 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 4
 2010-6 RBC 내부보험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 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 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 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 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 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 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 7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 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 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 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 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 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 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 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 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 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 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 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 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 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 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 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 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 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 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 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 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 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 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 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 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 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 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 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 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 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 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 9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 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 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 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 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 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 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 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 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 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 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 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 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 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 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 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 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 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 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 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 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 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 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 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 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 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 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 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2년 여름호 (통권 62호)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과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